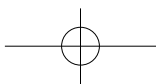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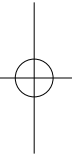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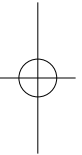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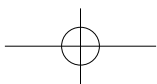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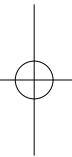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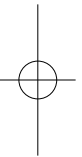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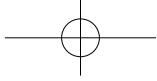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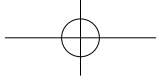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Gsef 2014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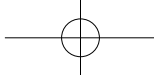




Gsef 2014 백서

변화를 향한 연대
Solidarity for Change





발간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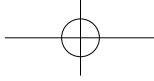
“ 변화와 연대가 꿈을 현실로 바꿉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백서를 발간하며 문득 2012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사회적경제 현장을 돌아봤던 때가 떠오릅니다.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라는 틀로 돌봄, 보육 등의 시민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정책입안자, 활동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경험과 비전, 시행착오와 성과를 나누고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60여개의 도시정부 및 기관의 대표자가 모여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라는 사회적경제 국제



네트워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상을 하는 전 세계 60여개의 도시와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이렇듯 현실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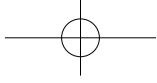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이 백서는 꿈이 현실이 된 기록입니다. 변화를 꿈꾸며 연대를 이룬 노력의 기록입니다. 어렵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한 국내외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상의 힘을 모으기 위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는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세계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우리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의 활동은 더 넓은 차원의 연대와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세계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과 함께 꾸는 꿈이라면, 그 꿈은 현실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발간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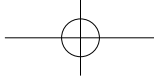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는 나눔과 회복의 경제입니다 ”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경제의 양적인 성장에만 집착했던 모습을 반성하며, 성장의 과정 중에 소외되었던 사회적약자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시장논리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금 경제활동의 중심에 두어, 오랫동안 잊혀져왔던 가치들을 회복하는 상생의 가능성에 대한 발견입니다.

GSEF는 이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확장시키고, 전 세계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함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첫 국제포럼이 서울시와 다양한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개최되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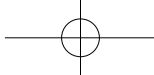
니다. 전 세계 8개 도시 그리고 9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들이 서울에 모여 빈부격차, 생태 및 공동체 가치의 파괴 등 당면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이듬해 2014년에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의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으로, GSEF는 이제 전 세계 23개 지방정부, 43개 사회적경제단체들이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서의 발간을 통해, 국내외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커다란 결실을 맺은 GSEF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협의체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가 나눔과 회복의 경제이듯,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또한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서로의 비전과 경험을 나누며 연대를 확장해가는 소중한 창구가 되길 기원하며, 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5년 8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공동의장 **송경용**



차 례

발간의 말씀

“변화와 연대로 꿈을 현실로 만듭시다” _ 박원순 서울시장 4

“사회적경제는 나눔과 회복의 경제입니다” _ 송경용 GSEF 공동의장 6

I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세계와 만나다 13

01.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14

1. 개관 14
2.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지나온 길 15
3.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 및 성과(2014년) 16
4.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 발전 과정 17
5.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 18

02. GSEF 20

1. 개요 20
2. 추진 배경 20
3. GSEF 2013 22

II GSEF 2014 준비 과정 33

01. GSEF 2014 준비과정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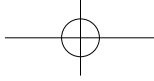
1. 주요업무 월별 추진 과정 34
2. 추진체계 35

02. GSEF 2014 추진과정 46

1. 기획 46
2. 초청 52
3. 기념포럼 58
4. 지역포럼(GSEF 후속행사) 61
5. 홍보 62
6. 행사대행사 선정 66

III GSEF 2014 주요 결과 69

01. GSEF 2014 개관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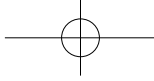
- 1. 행사 개요 70
- 2. 행사 요약 71
- 3. 주요 프로그램 71
- 4. 해외 참가 도시 72
- 5. 참가 국제기구 73
- 6. 해외 주요 참가 단체 73
- 7. 일자별 주요 프로그램 75
- 02. 개막식 76
 - 1. 오프닝 및 환영사, 축하 76
 - 2. 기조연설 I 78
 - 3. 기조연설 II 83
- 03. 창립총회 86
 - 1. 창립총회 준비회의 86
 - 2. 창립총회 및 폐막식 89
- 04. 기념포럼 93
 - 1. 기획세션 94
 - 2. 일반세션 102
- 05. 부대 행사 120
 - 1. 환영만찬 및 네트워킹 파티 120
 - 2. 전시 및 체험 행사 123
 - 3. 현장 탐방 124
 - 4. 지역포럼 125
- 06. 언론 보도 127
 - 1. 홍보 전략 127
 - 2. 언론보도 목록 128

IV GSEF 2014 평가 및 후속조치 137

- 01. GSEF 2014 평가 138
- 02. 후속조치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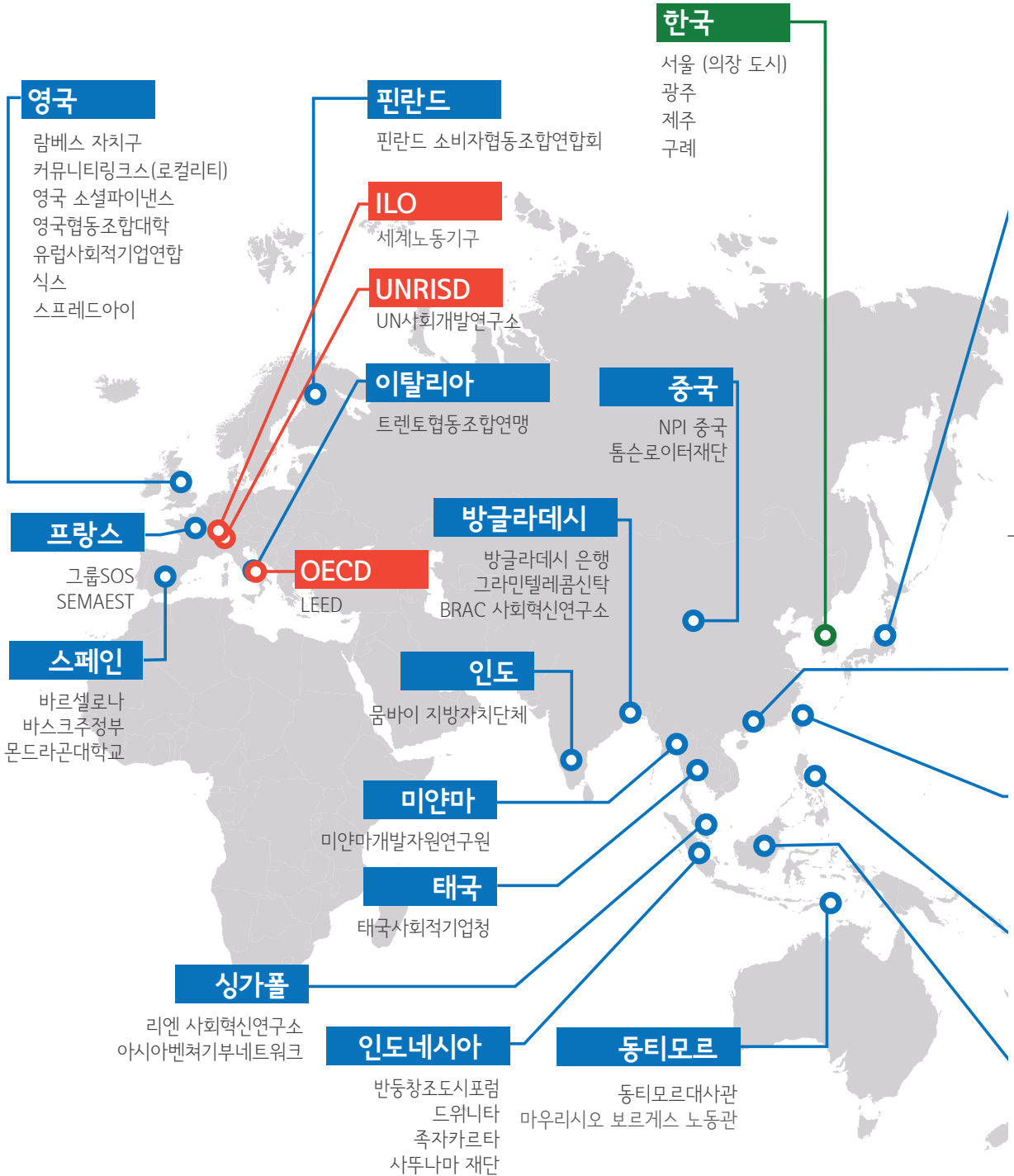
V 부록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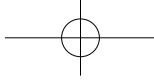
- 01. 행사 후 감사레터 148
- 02. GSEF 현장 152
- 03. GSEF 현장 준비회의 자료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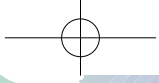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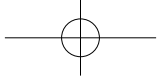
GSEF 2014 참가도시 및 단체

23개국 22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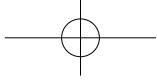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I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세계와 만나다





01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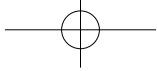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1. 개관

민선 5~6기^{2011년 10월~2017년 6월} 서울시의 비전은 “함께 서울”, 그리고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모토에 잘 집약되어 있다. 1천만 서울시민이 함께, 안전하고 따뜻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희망도시로 만들자는 비전이다.

‘사람이 중심인,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 분위와 승자독식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성장과 분배의 공동 성장을 통해 형평성을 이루고, 사회 격차를 줄여야 한다. 시민의 삶의 터전에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 도시 곳곳에 협동과 우애의 문화를 일으키는 일, 모든 정책에서 사람의 가치를 앞세우는 일, 더욱 촘촘한 복지 시스템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 과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다.

사회적경제는 19세기 말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기반의 세계화가 몰고 온 극심한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 격차, 공동체 해체, 환경 파괴 등 각종 사회적 해악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독점이 아닌 호혜와 연대, 화폐수익 중심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고용이나 복지·균형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회적경제는 오늘날의 각종 사회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경제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요한 시정 목표로 삼고, 오는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비중을 GRDP 대비 7%, 서울시 전체 고용 대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2,180여 개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2.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지나온 길

1990년
대

- 빈민지역 생산공동체 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장애인 재활 및 자립사업
- 자활센터 전국 5개 지역 시범 운영^{1996년, 보건복지부}
- IMF 외환위기^{1997~1998년}
- 대량실업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출범^{1998년}

2000년

-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지원 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0년 10월}
- 자활사업 전국 확대^{2000년, 보건복지부}

2007년

-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2007년 7월}

2009년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2009년 5월}

2012년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년 12월}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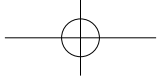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협동조합 상담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청년일자리허브,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
-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2013 개최}^{2013년 11월 5~7일}

2014년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시행^{2014년 5월}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창립총회 개최^{2014년 11월 17~19일}
- 12월말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 규모 : 2,290개 기업
(사회적기업 413개, 협동조합 1,315개, 마을기업 110개, 자활기업 452개)

2015년

-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준비



3. 서울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발전 과정

2011년

- 사회적기업 정책
 - 패러다임 전환 합의
 - 희망서울자문단 정책개발 협력
- 서울시 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 발족
 - 서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주도,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 참여

2012년

- 서울시 사회적경제 TF
 - 경제진흥실 간담회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분과회의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의 공동법인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준비
-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 민관 거버넌스 구조
 - 사회적경제 포괄 참여
 - 2013년 정책 및 예산 제안
 - 시장 속의 熟議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23개 사업 추진
 - 예산 100억 원(현장 배분 75%)
 - 직원 20명, 청년활동가 외 24명

2013년

-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
 - 부문간 협력방안 협의
 - 2013년 정책 모니터링
- 대외협력
 - 서울시의회와 「통합조례」 및 2014 사업 협의
 - 국회 사회적경제포럼 : 「사회책임조달법」 제정 협력
 -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 전국사회적경제 지방의원협의회 :

서울시 사회적 경제의 현황 및 성과 (2014년 현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고용창출

20,000명

사회적 경제 인구

100만 명

신규 참여 주체

4,423개 기업

협력기반 강화

공공구매 507억원

사회투자기금 조성 661억 원

신생협동조합 시민출자 194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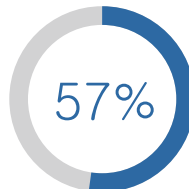
민-관협력구조

사회서비스 확충

취약층 사회서비스 제공 35억 원



취약계층 고용률



고용의 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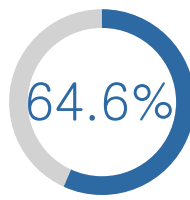
경영 역량 강화

2013년 매출액 6,000억 원

커뮤니티 자산 증식 1,60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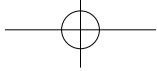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3년 생존률



간접지원
다각화





4.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

1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 추진 방향

-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전략 수립
- 대상과 업종별로 사회적경제의 확장 및 성장전략 구체화
- 시정 전반에 사회적경제 방식 도입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도모

▶ 기본 계획

- 비전 : “사회적경제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서울”
- 목표 및 과제 :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지역의 공동체 중심 경제 활성화,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2 사회적경제 우선지구(특구) 조성 지원

▶ 사회적경제 우선지구의 목적

-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구축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
- 지역기반 산업,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확대

▶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장려 · 확산하기 위한 구역 조성

3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 추진 방향

- 민간 사업역량 및 자치구 지원역량 제고를 통해 민관거버넌스 체계 육성
- 사회적경제 제반 지원사업과 자원 · 역량을 지역단위로 통합 및 연계 추진
- 자치구 여건 및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 지원 생태계조성 사업단 운영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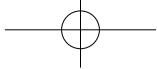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4 사회적경제 규모화 지원

▶ 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사회서비스 신규시장 현황 조사, 사회적경제 기업 공급역량 분석
- 교육 및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개선 지원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 전략 업종 공공시장 진입 지원 TF 구성 및 운영
- 업종별 전략 수립,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연결,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5 우수기업 육성 및 혁신형 기업 지원

▶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롤모델 기업으로 육성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및 맞춤형 지원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사회적기업 선정 및 지원

6 사회적경제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 관리 : 2014년 679억 원(실적)/2015년 800억 원(목표)
- 판로 확대, 상설 판매장, 사회적경제 장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 내용

- 대형 마트 및 전문매장 입점 추진
- 상설 판매코너 설치 및 운영
-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및 신규 사이트 발굴
-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몰' 기능 개선 및 활성화

7 사회적경제 클러스터형 공간 지원

▶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을 확보한 자치구에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비 지원
-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사무와 협업공간 등 제공

▶사업 내용

- 2015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형 공간지원 대상 자치구 선정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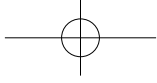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8 사회적경제 종합 홍보계획

▶추진 방향

-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
- 언론 보도 및 온·오프라인 홍보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추진 내용

- 통합 브랜드 개발 :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 연계
- 방송·신문·잡지 : 주 2회 이상 보도자료 배포, 주요 행사 및 사업 기획취재 협조
- 인터넷 : 주요 IT업체와 협력하여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 홍보
- 인쇄·영상 : 지하철,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시·구 보유매체 활용



02 GSEF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1. 개요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국제적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의 공동 참여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제조직이다. 민-관 협력 모델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최대의 사회적경제 기구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생태 및 사회적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며, 각국 민-관 조직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성장(fair growth),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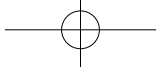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2013년 11월 6~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2013}과 이듬해인 2014년 11월 17~19일 서울시청 등지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GSEF 2014}를 통해 창립되었으며, 2016년까지 서울시가 초대 의장도시(임기 2년)를 맡고 있고, 사무국을 서울에 두고 있다. GSEF의 정회원은 지방정부 회원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으로 구성되며, 그밖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추진 배경

1 | 정부 부문

2012년 11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팀 및 민간 사회적경제 활동가들과 순방단을 꾸려 9일 간의 일정으로 유럽 정책투어를 다녀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와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 그리고 프랑스 파리^{Paris}를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박원순 시장과 순방단은 이 기간 동안 유럽 나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



제 정책 및 제도·사례들을 두루 접했다. 도시 자체가 거대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볼로냐를 비롯하여, 교육 및 금융 분야^{스페인 에사데 대학 및 모멘텀 프로젝트}, 스포츠 분야^{FC바르셀로나}, 유통 분야^{이탈리아 레가코프, 코프 아드리아티카}, 사회적기업 분야^{프랑스 에스파스, 그룹SOS} 등을 골고루 만나볼 수 있었다. 정책투어를 마치고 돌아와 박원순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국제적인 사회적경제 포럼을 만들 것을 주무부서인 사회적경제과에 제안했다. 세계 각지의 민·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과 사례를 교류하고 우애를 다지는 사회적경제 국제 행사 혹은 기구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박원순 시장의 제안에 따라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 네트워크와 함께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즉 GSEF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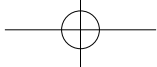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2 | 민간 부문

GSEF의 창립은 민간에서 이루어진 많은 구상과 논의, 그리고 다양한 줄기의 국제 교류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 1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민간조직들이 모여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여기에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현안이나 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논의 주제 중 하나는 혁신 주체들 특히, 청년들에게 환경문제나 분쟁지역 문제, 빈곤문제, 사회적 차별 문제 등 전 세계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한, 사회혁신의 꿈을 심어주고 역량을 키워주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조직의 활동가들은 특히 일본과 오랫동안 비슷한 고민을 나누어오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함께 빈곤아시아 문제와 같은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국제적 혁신 플랫폼을 만들자는 논의를 수 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민간 쪽의 고민과 논의가 서울시에 전달되면서, 국제 사회에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포럼 형식의 공간이나 계기를 만들어보기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요컨대,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세계 도시정부 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있었고, 민간은 민간대로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적 기구 혹은 행사의 필요를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양쪽의 유사한 욕구와 필요가 만나 GSEF라는 국제협의체 창립의 국내적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3. GSEF 2013

1 | 행사 개관

2013년 11월 5~7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협동의 재발견’을 주제로 “GSEF 2013”^{Global Social Economy Forum 2013}이 개최되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사회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혁신도시 8곳과 130여 개 국내외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전과 경험을 나누었다. 특히 기조강연 및 「서울 선언」 채택 등의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이 포럼을 통해 각 정부 및 기관 대표자들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사회적경제를 더 많은 도시들과 나누기 위한 10개의 실천 방안을 담은 「서울선언」을 함께 결의했다.

선언에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이를 통한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교류 협력 촉진,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상호 공유, 사회적경제 분야의 표준적 교과서와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인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연구성과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울에 임시사무국을 설립하고 2014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 | 행사 개요

● 목적

- 사회적경제의 국내외 도시·민간주체 간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의 장 마련

-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의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민 관심 제고

● 일정 : 2013년 11월 5일~7일(3일간)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혁신파크 등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기조연설 및 사례발표, 18개 분야별 세션
- 「서울선언」 채택 및 라운드테이블
- 부대행사(사회적경제 관련 전시,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네트워킹 파티 등)

3 | 주요 프로그램

1) 일정

시간	11월 5일(화)	11월 6일(화)		11월 7일(화)		
8:00		등록		등록		
9:00		개막식 다목적홀	사 회 적 경 제 전 시	전체 세션 2 기조강연 2		
9:30		전체 세션 1 개막식, 기조연설1				
10:00						
10:30	휴식					
11:00	현장탐방1 (금박연체험+가구박물관)	VIP워킹 런치 프레스센터19층		라운드 테이블	동시세션 (5개)	
11:30				신청사 투어		
12:00		동시 세션 (4개)		점심		
12:30						
13:00						
13:30	특별 세션 (2개)	폐막 및 서울선언문 발표				
14:00						
14:30	볼로냐-서울시 우호협력협정체결	휴식	휴식			
15:00		동시 세션 (4개)	동시 세션 (5개)			
15:30		특별 세션 (2개)				
16:00	휴식					
16:30						
17:00						
17:30	사전 라운드테이블	특별 세션 (4개)				
18:00						
18:30						
19:00						
19:30						
20:30	환영 리셉션 - 삼청각	네트워킹 파티				
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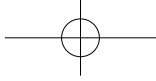
2) 강연 및 세션(11월 6일)

기초 세션	기초 강연	사회적경제의 도시재생 역할과 사회복지 영향 - 마거릿 멘델(Marguerite Mendell, 갈폴라니연구소장(캐나다))
	사례 발표	사회적경제를 통한 서울혁신의 현황과 발전모델 - 박원순(서울시장(한국))
		사회적경제를 통한 볼로냐 혁신의 현황과 발전모델 - 비르지니오 메롤라(Virginio Merola, 볼로냐시장(이탈리아))
		세계에 자랑하는 '교토의 힘', 전통을 가진 미래지향 도시 - 후지타 히로유키(藤田裕之, 교토(京都)부시장(일본))
		사회적경제를 통한 퀘존 혁신의 현황과 발전모델 - 조이 벨몬트(Joy Belmonte, 퀘존(Quezon)부시장(필리핀))
		사회적경제를 통한 퀘벡 혁신의 현황과 발전모델 - 클레어 드롱지에(Claire Deronzier, 퀘벡(Quebec)주정부 대표(캐나다))
특별 세션	초청 세션	'교토의 힘' : 전통을 뒷받침하는 미래지향 도시 - 교토(京都)(일본)
		사회적경제 : 지역 혁신의 엔진 - 그룹SOS(프랑스)
		홍콩의 혁신과 사회적경제 - 홍콩사회서비스연합회(HKCSS)(홍콩)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 복지의 성장 - 요코하마(横浜)(일본)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 볼로냐와 에밀리아 로마냐 사례 연구 - 에밀리아 로마냐주, 볼로냐시, 볼로냐 대학, 레가코프(이탈리아)
		사회적 경제 살리기 : 퀘벡의 경험 - 퀘벡주(캐나다),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SSEN)(한국)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길 : 사회 투자 - AVPN(아시아벤처자산네트워크), 한국사회투자(한국)
		호주의 사회적경제 현황 - 소셜트레이더스(Social Traders)(호주)
주제 세션		청년 사회적기업의 혁신 모델,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씨즈(Seeds)(한국), 도시정보학연구소(한국)
		대도시 에너지 협동조합의 가능성 - 햇빛발전네트워크(한국)
		윤리적 패션 활성화 및 대중화 - 윤리적패션네트워크(한국), 윤리적패션포럼(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 - 성공회대(한국), 한신대(한국)
		사회책임조달 제도와 사회적경제 -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한국)
		소비자협동과 GMO 문제 - 행복중심생협연합(한국), 한살림연합(한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
		도시농업이 만드는 일과 미래 - 서울도시농업(한국), 수도대학교(일본)
		빈곤 해결과 고용 증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의 사회적기업 - UNDP(UN)

3) 강연 및 세션(11월 7일)

기조 세션	기조 강연	지역 사회적경제 부흥을 위한 혁신적 협동 : 퀘벡의 교훈 - 낸시 님탄(Nancy Neamtan, 퀘벡 상티에(Chantier) 대표(캐나다))
		사회적경제의 중심에 서는 지역사회 - 제스 스틸(Jess Steele, 로컬리티(Locality) 지역조직국 차장(영국))
	사례 발표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수립 - 송경용(GSEF 2013 공동조직위원장(한국))
주제 세션		해외 협동조합교육시스템 - 서울지역협동조합연합회(한국), 스코틀랜드교육신탁(CETS(스코틀랜드))
		퀘벡 상티에의 경험과 협동사회연대회의의 발전전망 모색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한국), 상티에(캐나다)
		유럽의 사회적경제 동향 및 CICOPA 사례 - CICOPA, 세계노동자협동조합연맹
		주거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 주거재생연대회의(한국), 아시아주거연합(한국)
		사회적기업협의회의 역할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한국), 영국사회적기업협의회(영국)
		협동조합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 아이쿱생활협동조합(한국), 레가코프 볼로냐(이탈리아)
		공정무역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변화 -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한국), 세계공정무역기구, 아름다운커피(한국)
		영리와 비영리의 협력을 통해 보는 사회적경제 - 한겨레 경제연구소(한국), 성공회대(한국), 리츠메이칸대학(일본)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한국), NPO 네코다스케(일본)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구성과 역할 - 한국노동자협동조합(한국), 리용노동자협동조합(프랑스)





4 | 주요 성과

■ 「서울선언」 채택

- : 사회적경제 국제 연대의 필요성과 각 도시의 성과 공유, 인적 교류 등 구체적 협력 약속, 2014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발족 결의
- : 서울에 임시사무국 설치 및 2014 총회 개최 합의
- : 세계 최초로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연대 구축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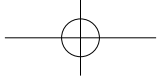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 해외 사회적경제 선진 도시 및 민간기관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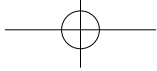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 : 서울, 볼로냐, 에밀리아 로마냐, 퀘벡, 교토, 요코하마, 퀘존, 몬트리올 등 8개 사회적경제 혁신도시의 대표 참석
- : 상티에, 레가코프, 그룹SOS, 로컬리티, 소셜트레이더스, 홍콩사회서비스연합회, AVPN, K2인터내셔널, 칼폴라니연구소 등 9개 주요 민간기관 대표 참석

■ 일상적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 국내외 기관 참여, 분야별 18개 동시세션 개최
- :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및 상티에 간 양해각서 MOU 체결
- : 서울시와 볼로냐시 간 우호협력 체결







GSEF 2013 서울 선언문

세계의 위기와 사회적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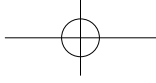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로 촉발된 위기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최근 아시아 및 신흥경제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시장원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규제 없는 금융 세계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 위기는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는 종종 사회정치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 체제는 기후온난화, 생물 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에너지-식량 위기 등 인류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우리는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경제 운동'은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적경제는 왜 중요한가?

사회적경제는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영리기업 제외), 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사회적경제를 구성한다. 물론, 자선단체와 사회투자 부문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가 공공부문, 그리고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룰 때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생태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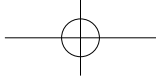
사회적경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과 보육, 보건과 돌봄서비스 등 관계재(relational goods)를 공급하는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경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또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형성과 식량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는 그 동안 충족되지 못한 필요(needs)를 사회 구성원의 협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로컬푸드 운동,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해 왔다. 생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국제협약 가입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체제 전환 등을 통해 세계와 나라의 여러 제도와 결합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풀뿌리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재생의 토대다. 사회적경제에 내재해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며 연대와 지속가능성의 정신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국제협약에서부터 개인의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향하여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는 어느 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지역공동체와 국가를 포괄하는 글로벌한 사회 경제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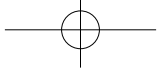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이며, 전 세계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장이다.

본 포럼은 세계 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운동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전을 다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각 지방정부는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2. 우리 모두는 시민 권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 사회적경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동체 리더십을 지지한다.
3.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상이한 집단을 위해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4.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표준적인 교과서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역량을 증진시킬 것이다.
5. 우리 모두는 사회혁신을 위해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 간 사회적경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6. 우리 모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기타 소통수단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토론하고 공유한다. 각 도시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시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7.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모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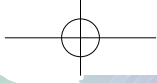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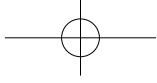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 개발한다. 정부의 공공정책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 연합체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9. 우리 모두는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감하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빈곤국가의 경제·사회·문화·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10.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공동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다. 여성 단체와 노동 단체, 환경 단체 등 사회적경제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협의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 임시 사무국을 만들어 2014년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모든 참여자는 2014년 총회에서 주최 도시 선정, 사업 확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력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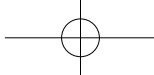
11월 5~7일 서울에서 모임.
본 선언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채택됨.





GSEF 2014 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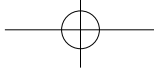


01 GSEF 2014 준비과정



1. 주요업무 월별 추진 과정

1월	국내외 조직위원회 및 각 분과위 섭외·구성 일정 확정	8월	만찬장 등 행사장 답사 국내외 도시 및 단체 참가 독려 참가자 호텔 및 객실가 확정
3월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 발족 임시사무국 업무분장 및 운영 로드맵 작성	9월	PCO 선정 창립총회 기본운영안 구성 프로그램별 운영안 구성 실행계획 및 예산, 일정 등 협의 홍보물 시안제작 및 제작 발주 프로그램북 및 참가자 디렉토리 구성·발주 개·폐막식 등 기본운영안 구성 현장 탐방 프로그램 구성
4월	행사 기본계획 및 예산안 수립 조직 및 행사의 명칭, 슬로건 등 확정 1차 초청장 발송 홍보 기본 전략 수립	10월	기조연설자 등 연사 최종 확정 프로그램별 현장 시나리오 작성 발표자료 취합 행사 안내 뉴스레터 발송 포스터 발송, 지하철·옥외 광고 실시
5월	해외 초청 도시/기관별 초청 대상 리스트업 국내외 유관 행사 일정 확인 세션 운영안 및 주제 확정 온라인 상시 게시판 구축	11월	현장 조성 및 운영계획 현장 점검 현장 사무국 설치 현장 언론취재 지원 (프레스룸 운영, 프레스키트 배포 등) 행사장·세션장·부대행사장 등 최종 점검 인천공항 멀티큐브 운영
6월	온라인 포럼 개최 2차 초청장 발송 행사 엠블럼 확정		
7월	세부 실행계획서 및 업무추진 일정 확정 「현장」 및 회원규정 구성 개·폐막식 기본구성안 준비 프로그램별 구성안 확정 세션 운영 신청 접수 공식 홈페이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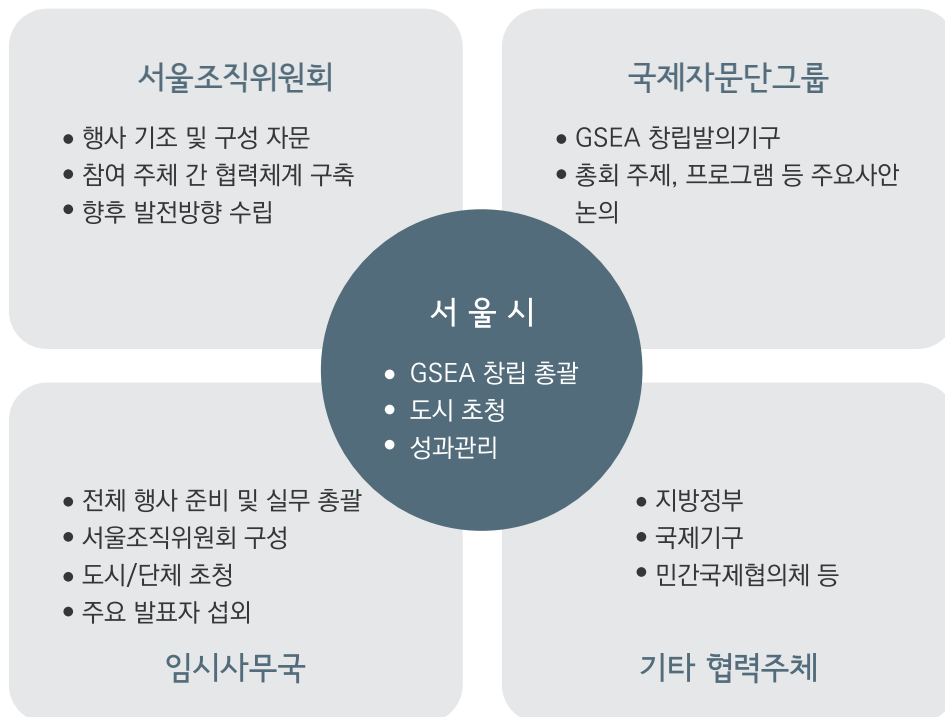
2. 추진체계

1 | 추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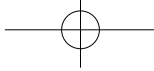
GSEF 2013이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이라는 ‘만남’의 자리였던 반면, GSEA¹ 2014는 국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아이디어와 사례를 서로 교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약속’의 자리였다. 국제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성격·목적·활동 등을 둘러싼 각종의 규정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GSEF 2013보다 준비할 일이 훨씬 더 많았다.

이에 좀더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선 「서울선언」에 따라 서울에 임시사무국을 설치했고, GSEF 2013에 참가했던 도시와 단체들로 국제자문단그룹^{Global Advisory Group}을 구성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될 창립총회의 준비를 도울 서울조직위원회도 구성했다.

GSEA 2014 추진체계



1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는 처음에는 GSEA(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다가 나중에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으로 바뀌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 47~4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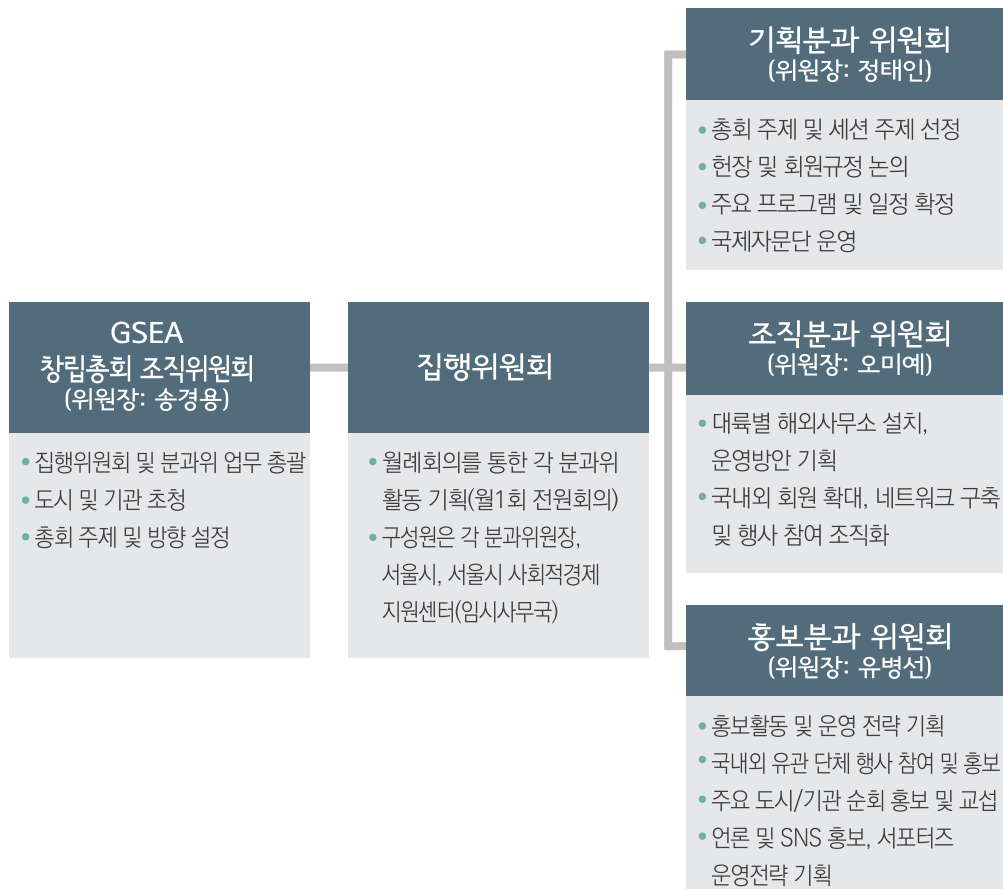
나아가 ‘협력과 연대’라는 행사의 취지에 맞게 지방정부, 국제기구, 민간국제협의체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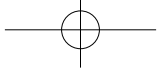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GSEA 2014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와 더불어 GSEA 창립총회의 공동주최이자, 국제자문단그룹의 일원이기도 한 서울시는 이 같은 추진체계 속에서 이 행사를 총괄하게 되었다.

(1) GSEA 2014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

2014년 3월 19일, 국내 사회적경제 협의체 및 관련기관의 대표 단체장들과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GSEA 2014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가 꾸려졌다. 국내 사회적경제의 각 분야별, 업종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 및 대표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춘 기구가 될 수 있었다.

GSEA 창립준비 조직위원회 조직 체계





서울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성격, 행사의 기초와 구성,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을 하고, 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직위원장에는 송경용 GSEF 2013 조직위원장이 추대되었다. 조직위원회 속에 기획분과위원회, 조직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를 두었고, 효율적인 업무 실행을 위해 각 분과위원의 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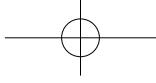
정태인 위원장이 이끄는 기획분과 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조직체계, 명칭, 헌장 및 회원규정을 논의하는 등 GSEF 2014 프로그램 기획을 총괄한다. 핵심의제를 설정하고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해 국제 자문단과 소통하는 역할도 기획분과 위원회에서 맡았다.

오미예 위원장이 이끄는 조직분과 위원회는 GSEA 2014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기획한다. 국내외 회원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역시 조직분과 위원회의 몫이다.

유병선 위원장이 이끄는 홍보분과 위원회는 언론과 SNS 등을 통한 홍보 업무를 맡았다. 국내외 주요 도시와 단체들을 직접 방문하며 GSEA를 알리는 것은 물론 창립총회 서포터즈 운영전략을 세우는 것도 홍보분과 위원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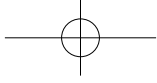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조직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업종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섭외해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분과위원회 위원 역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인물들을 중심으로 계속 섭외해 나가기로 했다.





GSEA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 조직위원

소 속	성 명	직 함	비 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경용	이사장	조직위원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	기획분과장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기획분과위원
한국사회투자	이종수	대표	기획분과위원
성공회대학교	김동준	교수	기획분과위원
건국대학교	김재현	교수	기획분과위원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기획분과위원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이미영	이사	기획분과위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기획·조직·홍보분과위원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	기획분과위원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	조직분과장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원각	대표	조직분과위원
(사)서울지역자활센터	이수홍	대표	조직분과위원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변형석	대표	조직분과위원
소셜픽션랩	이원재	소장	조직분과위원
씨닷(C.)	한선경	대표	조직분과위원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이미연	사무총장	조직분과위원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	김일영	단장	조직분과위원
세스넷	정선희	대표	조직분과위원
(사)씨즈	유병선	이사장	홍보분과장
한겨레경제연구소	이현숙	소장	홍보분과위원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박문규	단장	기획·조직·홍보분과위원
국제협동조합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최찬호	사무총장	자문위원
HBM 협동조합경영연구소	박경서	이사장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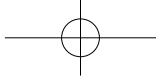


(2) 국제자문단그룹(Global Advisory Group)

국제자문단그룹은 GSEF 2013에 참여했던 8개의 도시와 9개의 단체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정기 온라인 회의를 통해 협의체 현장 및 규약, 회원 승인, 창립총회 프로그램 등 많은 문제들을 서울조직위원회와 함께 의논하며 창립총회를 공동 기획하였다.

국제자문단그룹

도시 (8)	서울	대한민국
	교토 Kyoto	일본
	요코하마 Yokohama	일본
	퀘존 Quezon	필리핀
	볼로냐 Bologna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Regione Emilia-Romagna	이탈리아
	몬트리올 Montreal	캐나다
	퀘벡 Quebec	캐나다
단체(9)	K2인터내셔널 K2 International Group	일본
	홍콩 사회서비스 연합회 HKCSS	홍콩
	아시아 벤처 기부 네트워크 AVPN	싱가포르
	레가코프 에밀리아로마냐 Legacoop Emilia Romagna	이탈리아
	로컬리티 Locality	영국
	그룹SOS GROUP SOS	프랑스
	상티에 Chantier de l'ë conomie sociale	캐나다
	칼폴라니 연구소 Karl Polanyi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	캐나다
	소셜트레이더스 Social Traders	호주



(3) GSEA 2014 창립준비 임시사무국

한편 협의체의 구축을 위한 임시사무국의 역할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맡게 되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국제사업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3명의 전문인력을 충원하였다.

2 | 추진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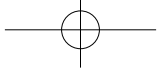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1) GSEA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 발족식

- 일시: 2014. 3. 19(수) 08:00-09:40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참석위원: 총 12명
- 위원장: 송경용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위 원: 이수홍 (사)서울지역자활센터 대표, 유병선 (사)씨즈 이사장,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이미영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김익승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단장, 한선경 씨닷(C.) 대표,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오미에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 서울시: 정진우 과장, 김설희 팀장, 김준민 주무관, 정경진 주무관
- 임시사무국: 이승원 단장, 남수정 팀장, 주가혜 매니저
- * 배 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영식 사무국장

● 주요 논의 안건 및 자문 사항

① GSEA 2014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 조직위원장 선출 : 송경용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분과위원장 선출 : 기획분과위원장: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조직분과위원장: 오미에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홍보분과위원장: 유병선 (사)씨즈 이사장



② GSEA 조직 구성 방안 논의

- 조직의 명칭 변경(Forum→Association)
- 회원 기준 마련
- 국제자문단그룹과의 소통 창구 구축

* 특이사항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에서 창립총회 행사 후원의사 표명

(2) GSEA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 기획분과회의

- 일시: 2014년 4월 4일 오전 7시30분
- 장소: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로배움터1
- 참석위원: 총 4명

송경용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서울시: 정진우 과장, 김설희 팀장, 김준민 주무관, 정경진 주무관

임시사무국: 이은애 센터장, 이승원 단장, 남수정 팀장, 주가혜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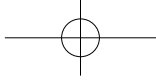
● 주요 논의 안건 및 자문 사항

① 보고

- 임시사무국·서울시 업무 협의 결과 보고
- 2013년 GSEF 참가 도시/단체의 역할 및 위상 및 지방도시의 참여구조 결정
- 회원기준(안)
- 조직위원회 발족
-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유치관련
- 해외초청도시 1차 목록 기준 발송 완료(4.3)
- 영문 홍보물, 홈페이지 등 GSEF 홍보 방안 마련

② 안건

- 현장의 구성(안)
- 창립총회 운영방식
- 주제별 세션 의제
- 개막식 주요 행사 등



(3) 제1회 GSEA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 회의

- **일시:** 2014. 4. 18(금) 07:30-09:30
- **장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로 배움터2
- **참석위원:** 총 11명
 - 위원장:** 송경용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위 원:** 김의승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단장, 김재현 건국대 교수,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미영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상담센터 대표, 유병선 (사)씨즈 이사장
 - 서울시:** 정진우 과장, 김설희 팀장, 김준민 주무관, 정경진 주무관
 - 임시사무국:** 이승원 단장, 남수정 팀장, 주가혜 매니저, 서희원 인턴

● 주요 논의 안건 및 자문 사항

① 해외초청 관련

- 도시와 민간기관의 동반 참석 독려
- 추가 초청 고려 대상 도시 논의 ex) 인도, 볼리비아, 필리핀 등
- 국제기구/조직 협력방안 논의 ex) ICLEI, UGLG, UNDESA, ICA, GSEN 등

② 홍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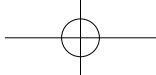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 GSEA 홍보 대주제 선정
- GSEA 2014 홈페이지 구성 논의

③ GSEA 창립총회 프로그램 관련

- 총회의 형식 및 세션의 성격 논의
- 사이드프로그램 제안 : 두레생협·ICOOP 등

④ 서울조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 조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확대 방안 논의



(4) 제3회 GSEA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 회의

- **일시:** 2014. 5. 20(화) 07:30~09:30
- **참석위원:** 총 9명
 - 위원장:** 송경용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위 원:** 김의승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단장, 김재현 건국대 교수,
김일영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 단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유병선 (사)씨즈 이사장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상담센터 대표,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원구원장
 - 서울시:** 정진우 과장, 김설희 팀장, 김준민 주무관, 정경진 주무관
 - 임시사무국:** 이승원 단장, 남수정 팀장, 주가혜 매니저, 송재걸 인턴, 서희원 인턴

● 주요 논의 안건 및 자문 사항

① 조직 구성 관련

- GSEF 2013 참가 도시 및 단체들과 조직의 명칭, 형식, 멤버십 논의

② 창립총회 주제 관련

- 서울조직위원회 대상 총회 슬로건 공모

③ 초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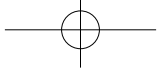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 지방 선거 이전에는 전략적 초청 도시 담당부서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력
- 선거 이후 초청장 재발송

④ 세션 및 프로그램 관련

- 기획분과가 3~4개 기획 세션 기획, 조직분과가 현장 의견 수렴해 일반세션 분배
- 총회 본 행사는 17, 18, 19일 삼일 간 진행, 세션은 18, 19일 양일 간 진행
- 아이쿱이 사무국 협조 하에 구레 자연드림파크 현장 방문 프로그램 기획/진행

⑤ 서울조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 조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자문단 운영 방안 논의



(5) 제4회 GSEA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 회의

- **일시:** 2014. 6. 17(화)
- **장소:** 서울시청 8층 회의실
- **참석위원:** 총 17명
- **위원장:** 송경용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위 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이수홍 (사)서울지역자활센터 대표,
김의승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단장, 김재현 건국대 교수,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유병선 (사)씨즈 이사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 이미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상담센터 대표,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한선경 씨닷컴(C.) 대표,
이미영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김동준 성공회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정선희 세스넷 대표,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 서울시:** 정진우 과장, 김설희 팀장, 김준민 주무관, 정경진 주무관
 - 임시사무국:** 이승원 단장, 남수정 팀장, 주가혜 매니저, 송재걸 인턴, 서희원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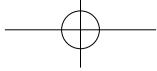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 주요 논의 안건 및 자문 사항

① 초청 관련

- 리마인드 레터 발송 : 1차 제안서 발송 66개 도시 대상
- 적극적 초청 전략 추진
 - 서울조직위원회 적극적 협조 요청
 - 서울시 국제과 공조체계 구축
 - 국제자문단 협조 요청
 - 박원순 시장 해외순방 활동 활용

② 6월 해외 온라인 포럼 안건 선정

- 조직 및 행사 명칭, 대주제 및 기획 세션 주제,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 논의·확정



(6) GSEF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조직위원회 회의

- **일시:** 2014. 10. 21(화) 07:30-09:00
- **장소:** 서울시청 무교로청사 8층 회의실
- **참석위원:** 총 14명
- **위원장:** 송경용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위 원:** 변형석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남부원 한국YMCA 사무총장,
박문규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김동준 성공회대 교수,
유병선 (사)씨즈 이사장, 이미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이미영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이수홍 (사)서울지역자활센터 대표,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종익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정선희 세스넷 대표,
한선경 씨닷(C.) 대표
 - 서울시:** 정진우 과장, 김설희 팀장, 김준민 주무관, 정경진 주무관
 - 임시사무국:** 이승원 단장, 남수정 팀장, 주가혜 매니저

● 주요 논의 안건 및 자문 사항

① 홍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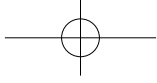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 인쇄제작물: 지하철 홍보물 게재, 포스터 및 대봉투 제작·발송
- 영상 제작: 영화제작소 눈과 사전홍보영상 콘티 작업 진행
향후 개막식 주제영상 및 현장 스케치 제작 추진
- 뉴스레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세모편지 제작
- 온라인 웹 배너: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 기타: 인천 공항에 해외 초청자 배포용 영문홍보물 300부 송부
11월 14일~17일 3일간 멀티큐브 광고

② GSEF 현장 관련

- GSEF 현장 의견 수렴 내용 검토

③ 지역포럼 관련

- 광주포럼 : 몬드라곤 대학교 및 트렌토 협동조합 기조 발제 섭외
- 제주포럼 : 상티에 및 칼 폴라니 연구소 기조 발제, 행사 후 간담회 등 초청 기획



02 GSEF 2014 추진과정



1.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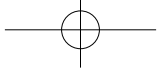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서울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의 성격, 명칭, 그리고 이를 담을 현장, 창립총회시 논의할 안건들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이를 국제자문단과 함께 논의하며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하였다. 민과 관이 함께하는 국제기구라는 유일하였기에 많은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의 성격과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1 | 조직의 성격 및 위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013년도 참여한 여러 도시와 단체가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의했던 의도와 필요성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조직의 성격과 위상을 명확히 하는 일이었다.

현재 구성하고자 하는 조직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경제의 방법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지역과 국가를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국제연대’이며, 주체들의 적극적이고 관심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발전적이며 지속가능성을 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회원제를 기반으로 민과 관이 참여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하였다.

정회원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많은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의 규모를 제한하지는 않기로 하였으며, 지역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을 단위로 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정회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 국제기구는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서울의 의견을 온라인 포럼이라는 형식을 통해 국제자문단과 공유하였다.



이러한 서울의 안에 대하여 퀘존시는 회원의 혜택, 투표의 자격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세밀히 규정해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그룹 SOS는 “아직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회원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며 정회원과 파트너 회원 등으로 회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상띠에는 조직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회원과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통해 회원의 구분을 정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 조직의 명칭

다음으로, 이와 같은 조직의 성격을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만들어야 했다.

서울은 「서울선언」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고 또한 각 주체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GSEA^{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서울의 안에 대해 마찬가지로 온라인 포럼을 통해 국제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Proposed Agenda for GSEF 2014 and the Summary of the Opinions of the Global Advisory Group Members on the Agenda

Proposed Agenda:

A. Name Change :

1. From GSE *Forum* to GSE *Association*

A. Name Change from GSE Forum to GSE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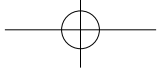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1. Positive Feedbacks :

- The change is with full respect with the concept of Seoul Declaration.
- Association seems more appropriat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event.
- The change will have great impact on how the members feel implicated in the event and encourage them to truly commit themselves.
- The change makes sense.
- No objection.

2. Concerns:

- Implications of the organizational shift
- Issues that may occur as a more formal membership is required for an association

국제사회적경제협회의 조직의 명칭 및 회원규정 등에 대하여 온라인 포럼을 통해 국제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



볼로냐, 에밀리아로마냐, 요코하마는 우려를 나타냈다. 볼로냐와 에밀리아로마냐는 현재 회원들이 참여하여 모범적인 시범사례 등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먼저 구축한 후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요코하마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반면, 로컬리티, 퀘존, 그룹SOS, 상띠에 등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로컬리티는 이 포럼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협의체^{As-sociation}가 더 맞다는 의견을 주었고, 퀘존시와 상띠에는 이같은 변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룹SOS도 ‘협의체’가 회원들이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기에 적합하므로 적합한 명칭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칼폴라니연구소는 협의체라는 조직은 멤버십이 필요하기에 그에 따라 어떤 문제점들이 동반될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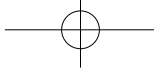
Transcript and Compilation of Opinions of the Global Advisory Group

City / Organization	Full Name	Date	Theme: Name Change
Kyoto City	Fujita Hiroyuki (vice mayor)	2/17	"I am also pleased to know that '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 is going to be organized soon with full respect for the concept of Seoul Declaration [...]."
Quezon City	Josefina G. Belmonte	2/24	"I do not have any objections on the proposal to change the name to '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 [...]."
Locality	Jess Steele	2/25	(Interview was conducted on the phone, so the transcription is not perfect.) "Since the forum is not a one-time event but a networking event through which we are establishing relationships, the name ' Association ' seems more appropriate ."
Groupe SOS	Nicolas Hazard	3/4	"The change of the word 'Forum' to 'Association' may have a great impact on how the members might feel implicated in the event. As part of an 'Association' they will more likely feel part of a group and truly commit themselves . The name change could lead to a renewal of participation."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Nancy Neamtan	3/04	"This change makes sense and is fine with us ."
Yokohama City	Shinya Koibuchi	2/17	"[W]e are very much surprised at the sudden proposal of reorganization from Forum to Association. Please understand that ... City of Yokohama has not had sufficient tim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such an organizational shift and cannot give an informed opinion about the matter."
Karl Polanyi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 at Concordia University	Marguerite Mendell	2/26	"I find it interesting that you wish to change the name from 'forum' to 'association', but I wonder if this might pose some problems as it requires a more formal membership in an association that does not yet exist."

명칭 및 회원규정 등에 관한 국제자문단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

이러한 온라인 포럼에서의 논의를 통해 서울시는 더 많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갖는 열린 구조의 조직형태와 그러한 조직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직의 명칭을 재고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SEN^{Global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Network}, GSENet^{Global Social Economy Network} 등이 조직의 새 이름으로 논의되었고, 모두에게 익숙한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를 조직의 이름으로 계속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논의 결과, 조직의 명칭은 GSEF로 최종 결정되었다. GSEF 2013의 성과를 계승하되, 네트워크와 실행 기구를 함께 갖춘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였다.



3 | GSEF 헌장

이렇게 합의한 내용들을 명문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정태인 원장과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시사무국, 서울시 등으로 이루어진 헌장 태스크포스^{TF} 팀을 7월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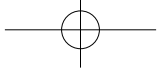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헌장에는 조직의 성격 및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규정하는 부분, 회원의 구분과 가입 및 탈퇴를 설명한 부분, 의장과 운영위원회 등 조직의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에 관한 부분, 재정에 관한 분을 담기로 하였다.

2014년 7월 30일 GSEF 헌장 서울 TF팀과 GSEF 2014 조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헌장 1차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은 위고^{Wego} 정관, 시티넷, RIPESS 헌장 및 국제규정 등을 참고하였다.

작성된 1차 초안은 2014년 9월 20일까지 7차례의 수정을 거쳐 GSEF 헌장 서울 최종안을 만들었다. 2014년 10월 14일, 영역본 작성 후 국제자문단그룹 및 10월 14일 현재 GSEF 2014 참가 확정자에게 검토 후 의견회신 요청 메일을 발신하였다.

<p>3) The GSEF supports every effort to form social economy associations and social economy supporting bodies in each region. Through these organizations, the GSEF promotes various joint projects to spread the ecology of social economy on a global scale.</p>	<p>© UNLTD UN (GLOBAL SOCIAL ENTREPRENEURSHIP NETWORK)</p> <p>I agree with this, but believe it should also support efforts to form social economy associations and supporting bodies in themes, as well as regions. That might include thematic work such as social entrepreneurship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sectors of the social economy such as venture philanthropy (eg AVPN), impact metrics (such as GIIN), and start up support (such as the Global Social Entrepreneurship Network).</p> <p>© AVPN</p> <p>Regarding point 2.3.3) The GSEF supports every effort to form social economy associations and social economy supporting bodies in each region. Through these organizations, the GSEF promotes various joint projects to spread the ecology of social economy on a global scale.</p> <p>We are in a unique position with a number of regional and thematic associations participating in GSEF 2014. It will be of great value therefore for GSEF to provide a umbrella structure that helps to increase the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within and among these different existing platforms rather than focus on creating several new entities that would be duplicating efforts using scarce resources.</p>
--	--

서울의 「헌장」 초안의 항목들에 대하여 국제자문단 등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



4 | 슬로건과 대주제

조직의 창립을 위해 GSEF 2014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했다. GSEF 2013의 슬로건은 ‘협동의 발견’^{New Discovery of Collaboration}이었다. 협동과 연대가 가진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였으며 가능성의 실천을 위해 네트워크의 창립이 제안된 자리였다.

협업체 창립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이번에도 GSEF가 지니는 함의를 담는 주제어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서울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슬로건을 공모했다. 그 결과 ‘협동을 통한 연대’^{Solidarity through Cooperation}와 ‘변화를 향한 연대’^{Solidarity for Change/New World}가 조직위원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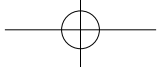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국제자문단그룹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슬로건은 ‘변화를 향한 연대’^{Solidarity for Change}이었다. ‘변화’는 지구적 위기와 지역문제를 극복해가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을 의미하였다. 나아가 진부하고 권위적인 관계에서 해방되어 보다 자유로운 삶을 누리 고자 하는 GSEF의 연대를 상징하기도 했다.

‘변화를 향한 연대’가 추구하는 것은 전 지구적 경제사회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낡은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 슬로건 속에는 협동을 통해 사회혁신, 생태위기 극복, 소외된 이들의 존엄성 회복,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사회적경제 국제연대의 신념도 담겨 있었다. 이는 2013년 협업체의 발기단체들이 함께 만든 서울선언문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슬로건이었다.

‘변화를 향한 연대’라는 슬로건 아래, GSEF에서는 서울 선언문을 발전시킨 9가지의 의제들을 설정하였다.

GSEF 2014의 주요 의제

1.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2. 시민사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행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3. 경험·비전 공유 및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적교류 프로그램 운영
4. 사회적경제-시장경제-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모델의 개발
5. 사회적경제 연합체와 지원조직의 형성 및 협력을 위한 지원
6. 빈곤국가의 다면적인 문제의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통합적 해결을 위한 노력
7. 여성·노동·환경·의료 등 다양한 운동과의 연대 및 글로벌 공동행동 추진
8. 2015년에 만료되는 유엔(The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차세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OGs)’를 실천할 개발의제들의 논의
9. 이 모든 것을 지원·보장하는 각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개발 및 조정 노력



2. 초청

그곳에 어떤 이들이 참석했는가는 국제 행사의 성격을 규정함은 물론 행사의 성공 여부까지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더군다나 갓 태어난 GSEF를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을 브랜드화 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고, 이 일의 성패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주요 정보와 사람들을 얼마나 모으느냐에 달려 있었다.

1 | 초청 과정

이번 행사의 초청 대상자는 사회적경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해가고자 하는 전 세계 혁신 도시들과 국내외 단체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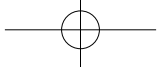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우선 GSEF 2013에 참가했던 도시와 단체들은 최대한 참가하여 발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창립을 제안하였으며 조직의 성격과 헌장, 회원 구조 등 많은 과정을 함께한 국제자문단의 참여는 성공적인 GSEF의 창립에 중요한 전제이자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도시의 경우 세계적인 혁신도시,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에서 선정한 세계협동조합 도시, 서울시의 자매·우호 도시 중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도시, 준비조직위원회와 국제자문단그룹의 조언을 통해 92개의 1차 초청대상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2014년 4월 3일~11일, 이 중 61개 도시에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초청장에 대해 회신을 보내온 곳은 4곳뿐이었다. 협의체^{Association} 구성에 대한 부담감, 6월 4일 예정된 한국의 지방선거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선거일정, 시의회 일정, 예정된 자체 행사 등 각각 처한 상황이 상이하여 확답을 주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좀 더 적극적인 초청 전략이 필요했다.

6월 지방 선거 이후, 초청 작업에 보다 속도를 냈다. 준비조직위원회와 국제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25곳의 전략적 초청 대상 도시를 선정했으며 정식 명칭을 국제사회적경제포럼으로 변경한 제안서와 초청장을 다시 발송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네트워크의 비전, 미션, 행동계획에 대한 구상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아시아 중심 도시로서 서울시의 명확한 비전도 제시했다.

국내외 단체들을 초청할 때는 단체별 세션 초청을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주제 및 단체의 특징을 고려하기로 했다. 해외 초청 도시 및 단체들과 국내 단체들을 연계한 세션 운영 등을 통해 참가 동기를 부여하고, 협의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또한 GSEF 2013에 참가했던 도시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또 다른 도시와 단체들을 초청하는 것은 물론, GSEF 2014에 참가하기로 한 영국문화원, 아니스 등과 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구축해가기로 했다.

조직위원 및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여하고 뜻을 함께하는 것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초청장을 보내고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공식적인 방법만으로는 상대를 설득하기 힘들 때가 많았다. 때로는 공문에 대한 답변보다 그동안 쌓아온 우정과 신뢰에 대한 대답이 더 빠를 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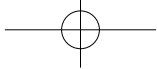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조직분과 위원인 한선경 씨닷(C.) 대표는 아시아 지역 초청을 맡았다. 연결하는 점 Connecting dots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직의 이름처럼 씨닷(C.)은 아시아 내 사회혁신가들과 기관들을 연결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을 해왔다. 한선경 대표는 인도네시아 반둥, 싱가포르, 홍콩, 대만, 방콕 등을 직접 방문해 도시정부와 사회적경제 단체들의 GSEF 2014 참여를 독려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네트워킹 활동을 해오며 아시아의 사회적경제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혁신가들과 꾸준히 교류해 왔던 것이 GSEF 초청에 큰 도움이 되었다.

GSEF 2014에서 '아시아 사회적경제 정책대화' 세션을 맡기로 한 주한영국문화원도 아시아 지역의 도시정부와 사회적경제 단체들을 초청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온 주한영국문화원은 전 세계 100여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국문화원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얀마, 방글라데시의 도시정부 및 아시아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GSEF 2014 참여를 독려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 스프레드아이SPREADI는 유럽 지역 초청을 맡았다. 스프레드아이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지식 교류와 협력을 주요 목표로 삼고, 혁신가와 실천가, 기업가, 연구원, 민원 공무원, 사회부문 정책입안자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만드는 공동체이익회사CIC다. 스프레드아이는 그동안 아시아와 유럽 내 사회적경제 혁신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말뫼, 브리스톨, 스톡홀름 등 유럽의 도시정부와 사회적경제 단체들의 GSEF 2014 참여를 독려했다.

조직분과 위원인 이원재 소셜픽션랩 소장은 미주 지역 초청을 맡았다. 이원재 소장은 뉴욕, 보스턴, 워싱턴 등 미주 지역의 도시정부와 사회적경제 단체들을 행사에 초청할 수 있도록 컨택포인트를 제공했고, 직접 초청 작업을 하기도 했다.

상티에, K2 등 GSEF 2014 참석 의사를 밝힌 국제자문단그룹의 민간단체들도 우리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정부와 단체들을 추천해주었다. 이들은 때로 초청 작업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조직위원들은 평소 친분을 쌓아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단체들을 초청해 나갔다. 조직분과위원회의 오미에 위원장과 정원각 위원은 아이쿱을 통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과 맨체스터 시에 초청 제안을 했고, 기획분과 위원인 김재현 건국대 교수는 일본 시가현 및 마을 만들기 관련 단체를 연결했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의 송인창 대표는 스페인 몬드라곤에 초청 제안을 했다.

각국의 도시정부와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초청한 곳 중에는 GSEF 2014에 참석하지 못한 곳도 많았다. 그러나 초청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GSEF가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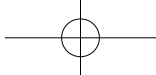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2 | 초청 결과

최종적으로 GSEF 2014 참석을 확정지은 해외의 도시정부는 13개국 18개 도시, 사회적경제 단체는 18개국 43개 단체이다. 국제기구는 UNRISD^{유엔사회개발연구소}, OECD LEED^{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경제고용발전}, ILO Social and Solidarity Academy^{국제노동기구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등이 이번 행사 참석을 확정지었다.

3 | 참석자 비용 지원

국제행사의 관례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GSEF 2014에 참석하는 해외 도시정부에는 숙박에 대한 지원을,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는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하였다.

또한 해외 초청자들을 위해 인천공항에 안내데스크를 운영하였으며, 도시정부 대표단 및 주요 초청자들을 대상으로 호텔까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GSEF 2013 참가도시에 보내는 초청 레터



OFFICE OF THE MAYOR

날짜

수신자

직함

소속기관

Dear 수신자/직함/소속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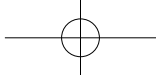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Warm greeting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 are very pleased to invite 도시명 to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 (GSEA), to be held November 17–19, 2014 in Seoul, South Korea.

The GSEA will be established to implement the Seoul Declaration adopted at the 2013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in Seoul. Based on trust and collaboration between participating cities and organizations, the GSEA will pursue innovation,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through social economy.

The 2013 GSEF was a meaningful venue in which participants, including 도시명, gathered to share experiences of innovation through social economy and to discuss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challenges such as economic bipolarization, social inequalities and exclusion, and environmental issues. With the strong support of participants, we adopted the Seoul Declaration to establish a global association for social economy, encompassing all countries and cities, to share visions and ideas, pursue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create social economy development models.

Thu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GSEA is planning an inaugural meeting for the GSEA on November 17–19, 2014 in Seoul.

Seoul City Hall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http://english.seoul.go.kr>



We are expecting approximately 5,000 participants at this inaugural meeting, to officially announce the establishment and launch of GSEA, action plans and strategies for joint projects, and the future vision and mission of GSEA.

The experiences of 도시명 regarding social economy as a means to attain efficiency, equality, and sustainability was very insightful at the 2013 GSEF. Therefore we greatly look forwar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도시명 at the inaugural meeting for GSEA as well, which will be helpful in building a better future and a better life for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through social econom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will do our best to prepare the inaugural meeting for GSEA. We kindly ask for your continuous interest in and promotion of GSEA. Please refer to the official proposal and the promotional brochure attached to this letter, and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We look forward to your reply.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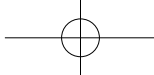
Best regards,

시장님 서명란

Won-soon Park
Mayor of Seoul

Attachment 1: Official Proposal
Attachment 2: Promotional Brochure

Seoul City Hall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http://english.seoul.go.kr>



신규도시에 보내는 초청 레터



OFFICE OF THE MAYOR

날짜

수신자

직함

소속기관

Dear 수신자/직함/소속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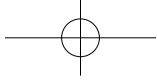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Warm greeting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 are very pleased to invite 도시명 to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 (GSEA), to be held November 17-19, 2014 in Seoul, South Korea.

The GSEA will be established to implement the Seoul Declaration adopted at the 2013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in Seoul. Based on trust and collaboration between participating cities and organizations, the GSEA will pursue innovation,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through social economy.

The 2013 GSEF was a meaningful venue in which participants around the world gathered to share experiences of innovation through social economy and to discuss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challenges such as economic bipolarization, social inequalities and exclusion, and environmental issues. With the strong support of participants, we adopted the Seoul Declaration to establish a global association for social economy, encompassing all countries and cities, to share visions and ideas, pursue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create social economy development models.

Thu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GSEA is planning an inaugural meeting for the GSEA on November 17-19, 2014 in Seoul.

Seoul City Hall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http://english.seoul.go.kr>



We are expecting approximately 5,000 participants at this inaugural meeting, to officially announce the establishment and launch of GSEA, action plans and strategies for joint projects, and the future vision and mission of GSEA.

도시명 is a leader in social economy, providing much insight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pursuing social economy. We would greatly appreci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도시명 at the inaugural meeting for GSEA, which will be helpful in building a better future and a better life for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through social econom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will do our best to prepare the inaugural meeting for GSEA. We kindly ask for your interest in and promotion of GSEA. Please refer to the official proposal and the promotional brochure attached to this letter, and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We look forward to your reply.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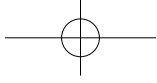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Best regards,

시장님 서명란

Won-soon Park
Mayor of Seoul

Attachment 1: Official Proposal
Attachment 2: Promotional Brochure

Seoul City Hall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http://english.seoul.go.kr>



3. 기념포럼

서울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GSEF 2014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념포럼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국제자문단 그룹도 이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이번 행사의 정식 명칭도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창립 총회 및 기념포럼^{2014 Inaugural Meeting of Global Social Economy Forum}’으로 정하였다. 이로써 GSEF 2014는 창립총회와 기념포럼 두 가지 성격을 띠었다.

파일럿 형식으로 진행된 GSEF 2013을 정례화시킨 기념포럼은 사회적경제를 응원하는 모든 이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창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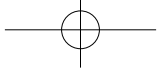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GSEF 2013에서 많은 세션을 운영하다보니 집중도가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 행사의 기념포럼은 세션 수는 줄이되 깊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사회적경제 각 부문의 열정으로 운영된 세션의 개수는 2013년 수준과 비슷하게 되었다. 행사장이 부족하여 서소문청사와 은평 혁신파크까지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약 3,000여명의 국내와 참가자가 참여했다.

기념포럼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해 국내외 지역 및 주체들이 자신의 특성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문별 과제의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1 | 기획 세션

기획 세션은 기획분과위원회의 주도 하에 국제자문단 그룹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우선 이번 총회에서는 ‘변화를 향한 연대Solidarity for Change’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각각의 세션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국제자문단그룹과의 논의를 거쳐 기획분과위원회가 선정했다. 세션 주관 기관 선정에 따른 초청 및 교섭 작업 역시 기획분과위원회가 맡았지만, 필요시에는 GSEF와 관련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GSEF 2014 기념포럼 기획세션 주제

	주제	세션 주관기관
1	사회적경제와 교육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추진단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한신대학교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2	사회성과 연계 채권(SIB)	한국사회투자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3	지역커뮤니티 성장을 위한 자상형성 전략	사단법인 마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	사회적경제와 국제기구의 역할	UN TF on SSE UNDP 서울정책센터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5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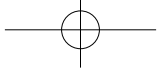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2 | 일반 세션

기획세션을 제외한 일반세션은 조직분과위원회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도시 및 단체를 대상으로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받아 적절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세션운영 참가 공모도 실시했다. 2014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았으며 GSEF 의제와 세션 주제의 연관성, 패널구성의 적절성,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적극성 등을 기준으로 준비 서울조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GSEF 2014 기념포럼 일반세션 주제 및 주관기관

	주제	세션 주관기관
1	아시아 사회적경제 정책대화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영국문화원
2	사회적경제 자원으로서의 프로보노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재단법인 동천
3	윤리적 패션 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윤리적패션 네트워크
4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한겨레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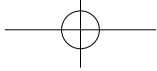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5	사회적경제 기본법 의의와 입법쟁점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6	아시아의 사회혁신: 테크놀로지 전략과 리더십	ANIS 희망제작소
7	청년문제, 사회적경제로 풀어내기	한일청년포럼 함께일하는재단
8	협동조합 도시로의 성장과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9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과 공정무역	한국공정무역단체 협의회
10	노동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강화와 확대전략	해피브릿지 경영연구소
11	사회적 경제 이론과 실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12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모작으로서 도시농업	서울연구원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부설 도시농업연구소
13	서울선언문의 의의와 전망	일본 서울선언문연구 모임
14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의 관계	Social Innovation Exchange(SIX) 스프레드아이
15	협동조합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와 사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6	소셜벤처 파트너스와 벤처 자선활동	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17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과 실천	(사) 서울자활협회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18	사회적경제와 환경	푸른아시아

3 | 세션 주관기관 지원

세션 주관기관에게는 세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실무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반 세션 주관기관의 경우 해외 초청자 교류 및 응대에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적 선발대상으로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 파트너 초청 업무에 관한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세션 운영 중에는 동시통역을 제공하기로 했고, 필요한 경우 순차통역을 고려하기로 했다. 세션 기획 과정에서 언어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션 운영기관은 사전에 임시사무국과 협력 범위를 논의했다.



4. 지역포럼 (GSEF 후속행사)

GSEF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로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모델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GSEF 행사는 국내 지방정부들에게도 다양한 국내외 지방정부 대표단과 사회적경제 경험 및 정책을 교류하고 민관협력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에 서울시와 임시사무국은 국내 각 지방정부의 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과를 나누고 국제포럼 내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정책설명회를 여는 등 각 지방정부들과 상호 교류하며 GSEF 2014 홍보 및 참가를 적극 제안했다. 사회적 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의 협조는 홍보 및 참가 제안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서울은 GSEF 2014 후속행사로써 GSEF 지역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해외 사회적경제 선진 도시정부 및 민간조직이 참여하는 GSEF 지역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것이었다. 지역 포럼은 지방 정부의 신청을 받아 열기로 했고, 여러 지방정부와 논의 끝에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구례시에서 GSEF 본 행사 직후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GSEF 2014 지역포럼

- 일시: 2014.11.20(목), 21(금) 각 1일
- 장소: 해당 지역 지방정부 청사 등
- 주제: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민관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 프로그램 구성

행사명	행사개요
기조강연	해외 사회적경제 협의체·중간지원조직·연구소 대표 주제강연
사례발표	국내외 사회적경제 지역 민관협력 사례 공유
원탁토론	해당 지방정부 대표/담당자,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발제 및 토론
기념공연	해당 지역 사회적경제 문화공연 단체
공동선언	사회적경제 지역민관협력 공동선언(지역포럼 준비주체들 간 사전 준비)
기념만찬·네트워킹 파티	국내외 참가인사 및 협력기관 대표 간 네트워킹 및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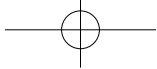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5. 홍보

GSEF 2014의 홍보 목표는 서울을 비롯한 세계 혁신 도시정부와 단체들의 국제협의체 발족을 알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국제 협력 기반 구축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본격적인 홍보는 10월부터 언론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홍보 계획

구분		목표	미디어 이벤트	이벤트 + PR	기타
1단계	10월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및 가능성 인식 제고 ● 창립총회 인지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메인 배너 게재 ● 파트너 기관 포스터 배포 및 배너 게재 ● 온라인 홍보물 배포
2단계	11월 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립총회 및 포럼 개최의 중요성 홍보 ● 세션별 주제 본격 이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출입기자 보도자료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및 할인(사전 등록, 학생,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 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홍보물 배포 ● 공간 개편
3단계	11월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한 전방위 홍보 ● 세션별 주제 이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외신기자, 주요기자 초청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홍보물 배포 ● 공간 개편
	11월 3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부스 운영 ● 제주, 광주, 구례 등 지역포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운영, 안내



1 | 온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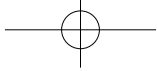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온라인 홍보는 GSEF 2014 공식 홈페이지,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된 GSEF 뉴스레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뉴스레터인 세모편지, 온라인 배너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온라인 홍보 방안

세부 매체	일정	세부 내용
GSEF 2014 공식 홈페이지	7~8월	홈페이지 오픈 및 참가자 정보 업데이트
	10월 1주	온라인 등록 시스템 오픈
	11월 2주	모바일 앱 오픈(한/영)
GSEF 뉴스레터 (한/영)	11월 6일	행사 사전 리뷰, 주목할 만한 세션&주목할 만한 연사, 조직 위원장 인터뷰, 해외연수 참가기 등 5개의 콘텐츠로 사전특 별판 제작
	11월 27일	포럼 전체 스케치, 주요 인사 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포럼 특 별판 제작
세모편지	8월 20일	행사 준비현황
	9월 24일	참가도시 및 기관소개 1 (쿠리치바, 세타가야)
	10월 7일	참가도시 및 기관소개 2 (핀란드 생협 S그룹,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
	10월 22일	주요 참가대상, 연사 소개
	11월 5일	국내참가자 등록 독려
온라인 배너	10월 5주~11월 1주	25개 자치구 및 특화사업단,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사이트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후 홍보배너 게재

2 | 오프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는 지하철 배너와 포스터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천공항에서는 서울관광마케팅의 일환으로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GSEF 2014 멀티 큐크 광고를 무료로 진행했고, 해외 초청자 배포용 영문홍보물 300부도 지원했다. 또한 영화제작소 눈을 통해 해외 부스 홍보 영상도 제작했다.



오프라인 홍보 방안

세부 매체	일정	세부 내용
지하철 광고	10월 3주~11월 3주	지하철 내 액자형, 모서리형(2종) 2,000매 게재
포스터	10월 3주 10월 4주	1,000매 제작, 유관기관(자치구, 세션주관기관, 대학 등) 배포 및 부착
초청장	11월 2주	개폐막식 및 만찬 초청장 발송
해외 부스 홍보	11월 1주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회) 제4차 총회(청도 개최) 홍보부스 설치 및 사전홍보영상 제작
인천공항	11월 3주	입국장 멀티큐브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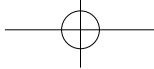
3 | 언론 홍보

언론 홍보는 보도자료 배포 및 지면 광고, 박원순 시장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조직위원들은 칼럼 및 기고문을 통해 GSEF를 알리기로 했다.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이자 경제평론가인 정태인 교수는 시사in과 경향신문에, 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한겨레신문에 각각 칼럼 및 기고를 싣기로 했다.

언론 홍보 방안

세부 매체	일정	세부 내용
보도자료 배포	10월 5주	행사 개최 홍보, 홈페이지 및 등록 안내
	11월 2주	주요 연사 안내, 행사 개최 홍보
	11월 4주	(행사 후) 행사 성공 개최
인터뷰(좌담회)	11월 3주	시장님 인터뷰 일정 조율(2~3회)
지면광고	10월 5주~11월 2주	한겨레, 한겨레21 지면광고(4회)

사실 GSEF 2014는 행사 규모에 비해 홍보의 규모는 작은 편이었다. 홍보비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GSEF 2014 행사장을 찾았다. GSEF의 홍보가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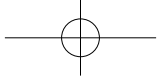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6. 행사대행사^{PCO} 선정

서울시의 GSEF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소요예산은 4억 9천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역포럼 예산 별도.} 약 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행사 규모에 비해 예산은 빠듯했다. 이에 행사 운영을 위한 대행사^{PCO} 선정도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했지만,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행사의 성격에도 충실해야만 했다.

GSEF 2014의 PCO 선정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고를 통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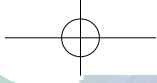
GSEF 2014 대행사업 용역 입찰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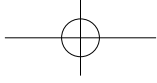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 사업명: 「2014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대행사업 용역
-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 - 2014.11.30
- 사업 예산: 총 49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법: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 가격 투찰: 전자 입찰
일시: 2014.8.29(금) - 9.11(목) 10:00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G2B)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 접수
일시: 2014.9.1(월) - 9.11(목) 10:00
장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국제사업단
- 제안발표 및 선정 심사회 개최
일시: 2014.9.12(금) 16:00
장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참가자: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한 프레젠테이션 심사 진행
- 사업 내용
 - 1) 초청업무 지원
 - 항공권 구매 업무
 - 초청자 숙박 관리
 - 2) 회의장 및 부대시설 조성
 - 무대, 영상, 중계, 음향시스템, 발표시스템 조성 등
 - 3) 오·만찬 및 식음료 준비



- 환영 만찬, 네트워킹파티, 초청대상자 오찬, 커피브레이크, 기타 다양한 네트워크 세션 운영
- 4) 현장 탐방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현장탐방 및 DMZ 관광 등 가이드
- 5) 인쇄물제작
 - GSEF 로고 및 포스터 등 디자인 작업
 - 포스터, 프로그램북, 발표자료집, 초청장, 설치물 등 제작
- 6) 홍보
 - 홍보영상 제작, 매체 홍보, 우편 발송 등
- 7) 기타
 - 전시장 구성 및 부스 운영, 통번역, 문화예술 부대행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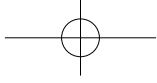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PCO 선정은 기술능력⁹⁰과 입찰가격¹⁰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업체들의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했다. 실제로 PCO 예산 대비 사회적경제 관련 업체들의 비중은 약 38%에 이르렀다. 오·만찬 및 식음료 준비의 경우 네트워킹 파티, 오찬, 커피 브레이크 등 연회별로 각기 다른 업체들을 선정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에게 GSEF 2014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GSEF 2014는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이었기 때문이다.





GSEF 2014 주요 결과





01 GSEF 2014 개관



1. 행사 개요

서울특별시와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4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GSEF 2014'은 전 지구적 위기 및 지역 문제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해법을 찾고자 모인 전 세계 사회적경제 선진 도시와 민간조직들의 협력과 연대의 장이었다.

본 총회는 전 해에 개최된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2013}과 연결이 되면서도 주최 측이 해외의 참가자를 초청하는 관례적인 방식이 아닌, 사전 준비과정에서부터 참가 도시 및 민간조직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경제의 협력과 연대의 실현을 위한 국제네트워크인 GSEF의 성격과 위상, 공동행동,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등을 함께 결정하고 설립하고자 개최되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새로운 국제 협의체인 GSEF는 향후 참여주체들의 합의에 따라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연대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GSEF 2013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8개 혁신도시와 9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채택한 '서울선언'을 계승, 유연한 다자간 네트워크에 기반한 국제협의체를 발족하는 '총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포럼'이 동시에 진행된 만큼, 사회적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협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자유롭게 교류하는 뜻 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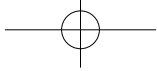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GSEF 2014는 모든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2. 행사 요약

행사명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GSEF 2014)
기간	2014. 11. 17(월) ~ 19(수), 3일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혁신파크 등
슬로건	변화를 향한 연대(Solidarity for Change)
공동 주최	서울특별시, GSEF 2014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
주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참가도시 및 기관	바스크주정부, 가와사키 등 18개 해외지방정부/ 상티에, 트론토협동조합연맹 등 43개 국내외 사회적경제 민간단체/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UNRISD} , OECD 지방경제 고용해외발전 프로그램 ^{LEED} , 국제노동기구 ^{ILO} 사회연대경제아카데미 3개의 국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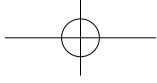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3. 주요 프로그램

개막식	GSEF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국제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도시정부, 민간단체 연사들의 기조연설 및 모범사례 공유
창립준비 회의	11월 19일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에 앞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들을 이끌고 있는 민간단체와 도시정부 대표들이 모여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의 현장 등 논의
창립총회 및 폐막식	전 세계 사회적경제 선진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함께 사회적경제 국제연대의 강화 및 전지구적 문제해결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의 창립을 위해 '현장' 채택 및 대표, 운영위원 선출 등을 통해 GSEF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포
기념 포럼	기획세션, 일반세션, 특별세션 등 총 23개의 주제별 세션
지역 포럼	서울 외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기념 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구례군 등)



4. 해외 참가 도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은행	무함마드 카제미 Muhammad A. Kazemi 보좌관
캐나다	주한퀘벡정부대표부	유충렬 대표
	몬트리올시	상탈 홀루 Chantal Rouleau 집행위원
		조한느 라보에 Johanne Lavoie 사회적경제국장
홍콩	내무부	플로렌스 후이 Florence Hui 차관
인도	मुंबई 지방자치단체	바가시리 투카람지 캡스 Bhagyashri T. Kapse 행정관
		찬다라 젠드라 자다브 Chanda R. Jadhav 행정관
인도네시아	반둥창조도시포럼	드위니타 라라사티 Dwinita Larasati 사무총장
	요그야카르타	무함마드 후다 알바나 Muhammad H. Albanna 국제협력담당관
일본	가와사키시	미우라 아츠시 Miura Atsushi 부시장
		카츠모리 키요시 Katsumori Kiyoshi 시민자치권부 매니저
	도쿄도 세타가야구	호사카 노부토 Hosaka Nobuto 구청장
	교탄고시	이츠오 카와토 Itsuo Kawato 보건복지부 부국장
		타카토시 후지무라 Takatoshi Fujimura 매니저
말레이시아	글로벌 혁신창조센터	그레이스 사이 Grace Sai 고문
필리핀	퀘존시	조세피나 벨몬테 Josefina Belmonte 부시장
		아마벨 루세나 Amabel Lucena 부시장실 지역법제관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회	호세 마리아 미로파스쿠엘 Josep Maria Miro Pascual 사회혁신부장
	바스크 주정부	후안 마리아 아부르토 Juan Maria Aburto 사회부 장관
		마리아 우바라체나 Maria Ubarrechena 부장
		임마놀 줄리아가 Imanol Zuluaga 커뮤니케이션부 부장
타이완	노동부	펑밍하오 Feng-Ming Hao 차관보
태국	사회적기업청	누타폰 자루와나폰 Nuttaphong Jaruwannaphong 국장
동티모르	동티모르 대사관	마우리시오 보르게스 Mauricio Borges 노동관보
영국	람베스 자치구	아나 란들 Anna Randle 전략및평등팀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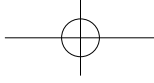


5. 참가 국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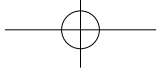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UNRISD	파스칼 반 그리쉬이센Pascal van Griethysen 사회적경제정책국장
OECD LEED	세르지오 아제니Sergio Arzeni 지방경제고용발전국장
ILO SSEA	산드라 유Sandra Yu 양질의 일자리 전문가

6. 해외 주요 참가 단체

방글라데시	그라민텔레콤 신탁	파르빈 마흐무드Parveen Mahmud 상무이사
	BRAC사회혁신연구소	안잘리 사르케르Anjali Sarker 사무원 등
캐나다	샹티에	낸시 님탄Nancy Neamtan CEO
	칼폴라니연구소	마가렛 멘델Marguerite Mendell 국장
중국	언리미티드 중국/NPI중국	웨이나 왕Weina Wang 부회장
	통슨로이터 재단	동웨이 리우Dongwei Liu 국장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안네 산타마키Anne Santamaki 국제관계부장
프랑스	그룹SOS	프랑수아 코메Francois Comet 국제개발부 부국장
	SEMAEST	디디에 미셀 델리Didier M. Dely 국장
홍콩	홍콩사회서비스연합회	호이 와이 추아Hoi Wai Chua CEO
인도네시아	사뚜나마 재단	아이 게데 에디 푸르와카Gede Edy Purwaka 사무총장
이탈리아	트렌토협동조합연맹	카를로 델라세가Carlo Dellasega 총재
일본	아시아벤처기부네트워크	이토 켄Ito Ken 동아시아부 국장
	K2인터내셔널그룹	이와모토 마미Iwamoto Mami 대표
	히가시야마 예술지원서비스	아시다테 사야카Ashidate Sayaka 국장
	리츠메이칸대학교	아키바 타케시Akiba Takeshi 교수
	일본 서울선언문연구모임	마루야마 시게키Maruyama Shigeki 코디네이터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나카토 유조Nagato Yuzoh 회장 외



일본	탈원전을 지향하는 지자체장 회의	우에하라 히로코 Hiroko Uehara 사무총장
	몽블랑 미팅	이마무라 하지메 Hajime Imamura 부회장
	수도대학 도쿄도심환경과학 대학원	키쿠치 토시오 교수
말레이시아	사회적기업연합회	워렌 찬 Warren Chan 상무
	영국문화원-말레이시아	클레어 워커 교육사회국장
멕시코	RIPESS	알타그라시아 비야레알 Altagracia Villarreal 위원
필리핀	사회적기업네트워크	루리나 가르가리타 Lurina Gargarita 상임이사
	프레다 재단	셰이 쿨렌 Shay Cullen 대표
미얀마	미얀마 개발자원연구원	자우 오우 Zaw Oo 대표경제보좌관
싱가폴	리엔사회혁신연구소	조나단 창 Jonathan H. Chang 전무이사
	사회적기업 연합회	페니 로우 Penny Low 공동의장
	아시아벤처기부네트워크	나이냐 서버랄 대표
스페인	몬드라곤대학교	호세 마리아 루자라가 Jose Maria Luzarraga 국제 회장
타이완	사회적기업연구소	이한 리 Yi-han Lin 대표
영국	커뮤니티링크스	제럴딘 블레이크 Geraldine S. Blake 대표
	소셜파이낸스	에르데姆 오바치크 Erdem Ovacik 컨설턴트
	협동조합대학	린다 쇼 Linda Shaw 부학장
	유럽사회적기업연합	클리프 사우스콤 Cliff Southcombe 전무이사
	SIX	루이즈 풀포드 Louise Pulford 국장
	스프레드아이	김정원 · 임소정 공동CEO 외
미국	소셜벤처파트너스	로나 로웨나 프라이어 Rona R. Pryor 부국장
	블룸버그 어소시에이츠	린다 깁스 Linda Gibbs 사회서비스과장 외
	아동성공연구소	메건 골든 Megan R. Golden 연구원
	매뉴팩처뉴욕	밥 블랜드 Bob Bland 대표
	탭루트재단	조엘 바셰킨 Joel Bashevkin 상무이사



7. 일자별 주요 프로그램

첫날
1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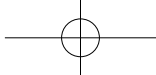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 창립총회 준비회의 16:00, 대회의실
- 환영 만찬 17:00,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
- 아시아 사회적경제 정책 대화 10:00, 서울혁신파크 서로배움터

둘째날
11월 18일

- 개막식 09:00, 다목적홀
- 창립총회 준비회의 14:00, 대회의실
-
- 사회적경제와 교육 14:00, 태평홀
- 사회적경제 자원으로서의 프로보노 14:00, 다목적홀
- 윤리적 패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14:00, 바스락홀
-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14:00, 워크숍룸
- 사회적경제기본법 의의와 입법 쟁점 14:00, 서소문청사 강당
- 아시아의 사회혁신 : 테크놀로지 전략과 리더십 14:30, 서울혁신파크 크리에이티브랩
- 청년 문제, 사회적경제로 풀어내기 14:30,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광장
- 협동조합 도시로의 성장과 지역사회 생태계 16:30, 다목적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공정무역 16:30, 바스락홀
- 노동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강화와 확대 전략 16:30, 워크숍룸

셋째날
11월 19일

- 창립총회 및 폐막식 16:30, 다목적홀
-
- 사회적경제와 환경 09:00, 이벤트룸
- 사회성과 연계 채권 09:30, 태평홀
- 지역커뮤니티 성장을 위한 자산형성 전략 09:30, 다목적홀
- 사회적경제와 국제기구의 역할 09:00, 바스락홀
- 사회적경제 이론과 실천 09:00, 대회의실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 이모작 09:00, 워크숍룸
-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의 관계 11:00, 워크숍룸
- 서울선언의 의의와 전망 11:00, 바스락홀
- '협동조합 간 협동'의 의미와 사례 13:30, 태평홀
- 소셜벤처 파트너스와 벤처 자선 활동 14:00, 바스락홀
-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과 실천 14:00, 워크숍룸
-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14:00, 대회의실



02 개막식



1. 오프닝 및 환영사, 축사

11월 18일 오전 9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GSEF 2014 개막식이 시작됐다. 홀 1층에는 주로 세계 각지에서 온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2층에는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동가 및 시민들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

개식에 앞서 오프닝 영상이 상영됐다. 당면한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의 필요성과 국제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3분 분량의 영상이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송경용 공동조직위원장은 환영의 인사와 함께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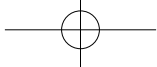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연대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1년 전인 GSEF 2013에서 우리는 ‘협동의 재발견’이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토론했고, 그 결과 폭넓은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만난 오늘, 우리는 그 연대의 정신을 계승한 「서울선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다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물질만능 풍조의 사회를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이라며 GSEF 창립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하나의 단체나 기구 또는 도시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화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의 장입니다.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걸음이 이 운동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어 개막 축사에 나선 플로렌스 후이(Florence Hui) 홍콩 행정부차관은 사회적경제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모델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연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안들이 긍정적인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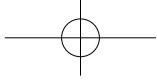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10년 사이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더 인간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콩 대표자들은 GSEF를 통해 동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의 창립을 함께 기뻐하며, 사람과 협동 그리고 연대에 가치를 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동과 신뢰는 모두가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입니다. 경제양극화와 에너지 고갈, 생태계 위기 등의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참여와 생태적 가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GSEF는 각 기관과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간에 경험과 비전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며 역동적인 연대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2. 기조연설 I

그리고 기조연설 I 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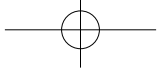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첫 번째 기조연설은 파스칼 반 그리에튀센(Pascal van Griethuysen) UN사회개발원 사회적경제 정책국장이 맡았다. 그는 UN사회개발원을 비롯한 UN기구들이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및 환경파괴에 대체할 구체적이고 명쾌한 대안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혜와 공평, 연대의 사회연대 경제

“사회연대경제 행위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다른 사람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정이 단기적 및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각의 대안이 지닌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간의 균형을 맞춥니다. 환경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런 통합적인 의사결정과 균형적 시각이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혼자서 행동하는 개인이 결코 얻을 수 없는 성과를 협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협력은 필수입니다. 사회경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호혜와 공평·연대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연대는 협력행위가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도록 합니다. 연대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 혼란을 낳는 사회적 배제와 좌절을 방지함으로써 성숙하고 응집력 있는 사회로 만들어줍니다.





또 사회연대경제는 환경보호를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정치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적 의사결정과 자주관리를 기초로 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지지합니다. 자원과 잉여분을 사회통합적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동원하고 재분배하려 합니다. 이 모두는 이윤극대화와 기업주도의 자본주의적 접근방식과 대조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임을 입증해줍니다.”

그리에티센 국장은 이같은 맥락에서 2013년 9월 UN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특별전담반이 조직됐고 20개에 달하는 UN기구와 정부 간 조직, 그리고 국제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의 상부협회 4개가 모였다고 밝혔다. 특별전담반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GSEF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자치정부와 기업가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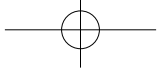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두 번째 기조연설은 후안 마리아 아부르토 Juan Maria Aburto 스페인 바스크 주정부 사회부 장관이 맡았다. 아부르토 장관은 독재정부와 정치 폭력 아래서 바스크 지방이 세계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치정부와 기업가 정신이라고 소개했다.

“독재정부가 사라진 후 바스크 지방은 1979년 게르니카 법을 통해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조세와 산업 경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경제협약을 맺음으로써 지방자치 규칙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비전은 사람과 경제 희생이었습니다. 경제 모델의 중심은 윤리적·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 원칙에 집중했습니다. 고유의 문화와 전통, 민족의 특성에 따라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 기업가 정신에 영감을 받아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바스크 지방의 근로자 1인당 소득은 3만 유로에 달하고 있고, 실업률은 14.6%로 스페인 전체의 실업률 27%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바스크 지방은 1960년대부터 민관협력이라는 틀에서 사회정책을 펴왔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는 기술과 혁신 그리고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바스크 지방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특화한 종합 대학이 3개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품질 향상에 힘써 200만 인구의 작은 도시 바스크가 세계 경제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발전한 협동조합과 노동자협회를 통해 노동자가 경제정책을 계획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혁신은 경제 부문을 넘어 문화, 사회단체, 정치집단에서 다방면에 걸쳐 이뤄졌고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화합, 환경을 중시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고용창출과 주거정책을 기본으로 빈곤퇴치에 앞장섰습니다. 덕분에 인구의 80% 가량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는 매달 600유로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기대수명은 남자 79세, 여자 85세입니다. 저희는 지방 재정의 75%를 사회정책에 쓰고 있습니다.”

아부르토 장관은 바스크의 성공사례는 자치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통의 비전과 민관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경제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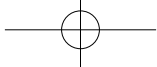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파트너십

세 번째 기조연설은 낸시 님탄(Nancy Neamtan) 캐나다 상티에 대표가 맡았다. 그는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밝히고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급증하는 도시화 현상 때문입니다. 오늘날 5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 확산돼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과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도시정부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한데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둘째는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





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주체 모두 공동체 안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의 인프라를 조성해 개인의 삶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들고 교육, 여가 주택과 같은 공공의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시민의 참여 욕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단체에 참여해 자신들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한 도구와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자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도 성공하려면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이 있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예는 공공부문의 조달에 있어 사회적경제 주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북미 사회에서는 공공부문 조달에 있어 쿼터를 정해두거나 소외된 단체들에게 특혜를 준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최소 30% 이상을 그 지역의 농산물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볼로냐에서는 장애인과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캐나다의 에드몬튼 시는 지난 2008년 사회적경제 조직을 돕기 위한 대출기금 1,200만 달러를 조성하기도 했다.

넘탄 대표는 또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변혁으로 가는 단계라며 특히 거버넌스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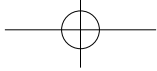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거버넌스 모델은 단기적으로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업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저희 퀘벡에서는 거의 모든 공공 정책들이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수립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진정한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처럼 거버넌스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설을 마치면서 넘탄 대표는 GSEF 차기 총회를 몬트리올에서 열기를 희망한다는 몬트리올 시장의 뜻을 전하여 참가자들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마지막 네 번째 기조연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았다. 박 시장은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서울시의 캐치프레이즈를 소개하며 사회적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상호 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장터를 열어 취약한 판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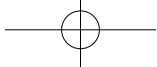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지원해주고 있으며 서울시가 먼저 구매 고객이 돼 올 한 해만도 800억 원어치의 공동구매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GSEF 행사도 통역·전시·다과·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해 준비했습니다.”

서울은 ‘시민이 시장이다’를 모토로 88회의 청책^{聽策}토론회와 3회의 정책 박람회 등을 열어 시민의 정책 참여의 장을 넓혔고,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새로운 공공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됐다. 지난 2012년에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했다. 공유기업들은 그 이후 서울시의 행정력이 뒷받침되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서울시 고유브랜드인 ‘나눔카’는 공용주차장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받은 이후에 이용률이 연간 약 150% 이상 증가했다. 아이 옷을 공유하는 (주)키플의 경우에는 자치구와 지역 내의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매칭 이후 1년 사이에 아이 옷 공유 비율이 120% 확대됐다.

박 시장은 서울에는 현재 1,000여 개의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협동의 힘으로 소외된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제화의 메카로 부활한 서울의 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 경력단절 여성들이 모여 만든 직장협동조합 ‘소셜메이트숍’ 그리고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시장은 GSEF가 전세계 사회적기업과 단체들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또 다른 차원의 협력과 연대를 만들어낼 것을 확신한다며,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연설을 마쳤다.





3. 기조연설 II

기조연설II는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본 가와사키시, 이탈리아 토렌토 협동조합연맹, 그리고 OECD의 지방경제고용발전 프로그램의 활동과 성과가 소개됐다.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가와사키시는 일본의 첨단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첨단 연구개발 도시다. 기차로 18분이면 도쿄에 갈 수 있고, 일본의 관문인 하네다 공항과도 인접해 있다. 인구는 146만 명으로 일본 도시 중 8위에 해당한다. 미우라 아츠시^{Atsushi Miura} 가와사키 부시장은 “가와사키시는 기업,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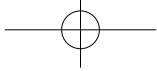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가와사키시는 곧 직면하게 될 문제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꼽았다. 현재 146만 명의 인구가 152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013년 26만 명에서 2030년에는 40% 늘어난 36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자산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미우라 부시장은 “시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소하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

먼저 지역 내 기업과의 포괄적 협력 방식으로 기업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후지츠^{Fujitsu}와 함께 빅데이터 및 오픈데이터 활용법을 연구했고, 첨단 주택건설 기업인 다이와하우스^{Daiwa House Industry}와는 복지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지금까지 159개 기업과 협정을 체결했다.

시는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기구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펼쳤다. (주)아이에스에프넷^{ISF-Net}과의 협력으로 생계보조금 수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고, 사회적기업 단웨이^{Danway}와 협력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피플디자인연구소^{People Design Research Institute}와 함께 무장애^{barrier-free} 마을을 개발했고, 그래스 가와사키^{Grass Kawasaki}와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마을기업 창업을 지원했다.

미우라 부시장은 “가와사키시의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과제이면서 세계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NPO 등 다양한 주체와 협동·연대해야 하고, 가와사키시의 사례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연맹의 카를로 델라세가(Carlo Dellasega) 사무총장은 사과 문양으로 한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트렌토는 빈부 격차가 매우 적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트렌토의 특산물 중 하나가 멜린다(Melinda) 사과이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 손꼽힌다. 멜린다 브랜드의 소유주는 4천여 명의 생산자 조합원들이다. 트렌토 협동조합연맹에는 16개 지역 사과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다.

델라세가 사무총장은 “전체 조합원의 사과재배 면적은 6,000ha로서 1인당 1~2ha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규모다. 개별적으로 생산·판매를 했다면 가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까지 매우 가난했던 트렌토 사과농가들은 협동조합을 만든 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멜린다 사과는 연간 10억 개(6만 톤)가 생산되며 이중 70%가 전세계 41개국에 수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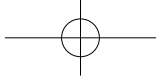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협동조합으로 빈곤 극복

트렌토에서 협동조합이 일군 변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빈부격차 해소로 이어졌다. 트렌토 지역은 다양한 협동조합이 발달되어 있으며 지역 저축액의 60%가 신용협동조합에 예금되어 있을 정도다. 협동조합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혀 있는 셈이다. 델라세가 사무총장은 “함께 일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트렌토 사과협동조합이 입증했다”며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유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세르지오 아르제니(Sergio Arzeni) OECD 지방경제고용발전 프로그램(LEED) 국장은 “서울시에 대해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고, 이는 OECD의 지향점이기도 하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OECD의 지향점으로 ‘포용적 성장과 신뢰’를 들었다. 기존의 성장이 격차 확대의 성장이었다며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을 심화시킨 성장, 지역사회와 사회적 관계를 파괴해온 성장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왜곡된 성장으로 인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사회적 관계의 복원”이다.

사회적 관계의 복원을 위하여

LEED는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데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사회적경제의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아르제니 국장은 “여전히 사회적경제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경제 발전의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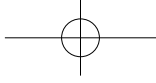


림들도 많다”며 “지금까지 경제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었고, 정치인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켰다. 사회적경제 사업가들이 분리된 관계를 연결시키는 게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르제니 국장은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성공의 열쇠는 사회적 자본, 관계의 자본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상향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수 명망 사업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누구나 사업가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03 창립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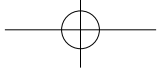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1. 창립총회 준비회의

창립총회는 GSEF 2014의 핵심 행사였다. 그동안 이메일 등 온라인 미팅을 통해 논의 해온 GSEF 현장을 의결하고, GSEF를 상설적인 국제기구로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원활하고 활기찬 창립총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회의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준비회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창립총회 준비회의는 1차(17일)와 2차(1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의장소는 1, 2차 모두 신청사 3층 대회의실이었고, 사회는 남부원 한국YMCA 사무총장이 맡았다.

GSEF 창립총회 준비회의

- 일시 : 1차 - 2014. 11. 17(월) 16:00~18:00
2차 - 2014. 11. 18(화) 14:00~18:30
- 장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도시정부 및 민간단체 대표 60여 명
- 사회 :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주요 안건
 - 「GSEF 현장」 논의 및 최종안 확정
 - 창립총회 진행 방안
 - 의장도시 및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 논의
 - 차기 개최지 선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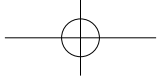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GSEF 헌장」과 관련해서는 행사 5개월 전부터 예비과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 6월 국제자문단과의 논의를 거쳐 행사명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The Inaugural Meeting of the 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 기념포럼’으로, 조직명을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로하기로 확정했고, 2014년 7월말에는 정태인 원장과 남부원 사무총장 등을 중심으로 ‘「헌장」 TF팀’이 만들어졌다. TF팀은 UN 및 위고^{Wego}, RIPESS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헌장 혹은 정관 등을 참고하여 「GSEF 헌장 1차 초안」을 작성했으며, 2014년 9월 20일까지 7차례의 수정을 거쳐 「GSEF 헌장 서울 최종안」 작성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4일, 이를 참석 확정 도시 및 단체들과 공유하며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러한 예비과정을 거쳐 17일의 1차 준비회의에서는 먼저 정태인 교수가 「GSEF 헌장」 작성 경과 및 핵심내용과 그에 대한 각 도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헌장에 대한 각 도시 및 기관의 사전 검토의견 및 동의 여부, 추가의견 등이 진행되었다.

논의는 주로 회원의 범위 및 GSEF의 정체성 등에 대한 원론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민간 회원과 지방정부 회원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GSEF의 정체성으로서의 민-관 협력 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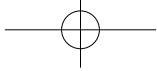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회원의 확장성과 관련하여, 포용적 시스템을 취하되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창립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다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책임있게 추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논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작업이 이어졌고, 미처 정리되지 않은 사항은 차기 준비회의에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취합하여 최종 정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18일의 2차 준비회의에서는 1차 준비회의의 정리 내용과 남은 안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뒤, 전문·총론·회원·조직·재정·부칙 등 헌장 각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은애 GSEF 임시사무국장의 「GSEF 발전방안」 발표 시간을 가진 다음, 수정 완료된 헌장 내용에 따라 총회 식순이 확정되었다.

마지막 안전으로 차기 총회 개최도시 선정이 있었다. 스페인 바스크 주정부와 캐나다 몬트리올시가 개최 희망 의사를 밝혔고, 투표를 통해 몬트리올시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회의를 모두 마치고, 창립총회 식순 및 안전을 안내하면서 준비회의가 종료되었다.



2. 창립총회 및 폐막식

GSEF 2014의 하이라이트인 창립총회가 11월 19일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다양한 세션 일정으로 서울시청 신청사와 서소문별관, 서울혁신파크 등지로 흩어졌던 사회적경제 리더 및 활동가들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모였다. 총회의 사회는 마거릿 멘델 교수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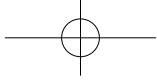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GSEF 창립총회

- **일시** : 2014. 11. 19(수) 16:30~18:00
-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석대상** : GSEF 가입 회원기관 대표 전원 및 사회적경제 관련 종사자, 연구자, 정책입안자 및 일반 시민
- **사회** : 마거릿 멘델 칼폴라니연구소 국장 겸 교수
- **주요 안건**
 - 축하
 - GSEF 창립 제안 연설
 - 「GSEF 헌장」 작성 과정 및 핵심내용 보고
 - 「GSEF 헌장」 채택
 - 의장도시 선출
 - 운영위원 선출
 - 차기 개최지 선정
 - GSEF 창립 선포 등

본격적인 창립총회에 앞서 축사가 이어졌다.

국제 컨설팅기업 블룸버그어소시에이츠(Bloomberg Associates)의 린다 김스(Linda I. Gibbs) 총장은 “사회문제 해결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문제를 푼다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GSEF가 그와 같은 민-관 모범사례들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위원장인 신계륜 의원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점을 축하한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활동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는데 이 포럼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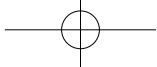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제적 기여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가 끝난 후 GSEF 창립 제안 연설로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됐다.

영국의 커뮤니티 링크스 Community Links의 제럴딘 블레이크 Geraldine S. Blake 대표가 먼저 연설을 했다. 그는 “커뮤니티 링크스는 지금의 경제체제가 소외시킨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개선시키도록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와 협력관계가 실패하면 우리가 돕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는 결과만 남는다. 그렇기에 민관 협력을 강조하는 GSEF의 창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세피나 벨몬트 Josefina Belmonte 퀘존시 부시장, 조안느 라보에 Johanne Lavoie 몬트리올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그리고 마루야마 시게키 Shigeki Maruyama 일본 서울선언연구모임 대표 등의 창립 제안 연설이 이어졌다.

제안 연설에 이어 「GSEF 헌장」 채택을 위한 보고가 이어졌다. 헌장안의 작성 과정과 핵심내용 보고는 남부원 한국YMCA 사무총장이 맡았다. 남 사무총장은 “총 5장 11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헌장에 GSEF의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미션과 목표, 회원규정, 조직구조, 재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에는 지역의 문제 그리고 지구적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은 지역 간 그리고 민과 관의 협력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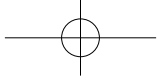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이며 그 협력의 주요 전략은 사회적경제라고 정의되어 있다”며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전세계 민과 관이 협력하여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임이 현장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GSEF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주체들로 규정해 GSEF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보다 많은 민과 관이 GSEF에 참가하고 함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임을 덧붙였다.

보고가 끝나자 사회자인 멘델 교수가 제안에 찬성한다면 박수로 화답해달라고 총회 참가자들에게 요청했다. 그렇게 창립총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GSEF 현장」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임시사무국을 거쳐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7차례의 수정을 거쳐 탄생한 현장이었다.

현장 채택에 이어 의장도시와 차기 개최지도 결정됐다. 의장도시는 서울, 차기 개최지는 몬트리올 시가 참가자들의 합의를 통해 선정됐다. GSEF 의장도시로 선출된 서울시를 대표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다”고 인사한 뒤, “의장도시로서 GSEF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저 박원순은 이웃과 마을의 거대한 힘,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국제연대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을 대표해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의 창립을 선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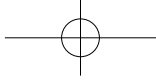
며 GSEF 창립을 선포했다.

GSEF의 창립 선포와 아울러 GSEF 2014 행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폐막 행사에는 종이비행기 퍼포먼스가 행해졌다. 행사장에 사전에 배포된 오색 종이 비행기에 참가자 자신의 염원과 아이디어로 메시지를 작성한 뒤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다함께 무대를 향해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였다. 수백 장의 종이비행기는 무대 스크린의 영상과 연동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미지 효과를 형성했으며, 세계 최초의 사회적경제 국제협의회 창립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지방정부 및 단체들의 국제기구인 GSEF가 서울에서 출범했다.





04 기념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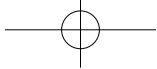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GSEF 2014가 추구하는 변화는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낡은 사회경제 패러다임에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 변화는 경쟁을 넘어서 혼자가 아닌 서로를 책임지면서 자유로워지는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총회와 포럼은 이러한 신념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국제연대 네트워크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약속하는 장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포럼은 5개 소주제로 나누어 5개의 기획세션과 18개의 일반세션 등 총 23개 세션이 운영되었다.

기획포럼의 5가지 주제

1. **도시재생** : 무분별한 도시재개발이 아닌,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만들기
2. **사회적금융** : 독점적 이익과 부채 증가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회적 금융기반 모색
3. **공유경제** : 대량생산·대량소비가 아닌, 친환경·이타적 사회적 관계 형성
4. **사회적경제와 노동** : 고용불안정과 차별을 넘어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 사회
5. **사회적경제와 교육** : 학교·마을·교사·학생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환경과 생태, 에너지, 경제 위기 등 근래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협동을 통한 사회혁신, 생태위기 극복, 소외된 이들의 존엄성 회복, 참여 민주주의의 심화 및 확대 등을 통해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념포럼은 이러한 신념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국제연대 네트워크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획세션 1 | 사회적경제와 교육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4:00~18:3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태평홀
- **주관** :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추진단,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 **참가기관** : 서울시 교육청, 영국협동조합대학, 말레이시아 교육청,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한신대학교, 독산고등학교 등
- **사회자** : 김명신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추진단장, 정건화 한신대 교수
- **참석 인원** : 약 1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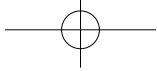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김명신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추진단장이 사회를 맡은 1부 “국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를 위한 방안 모색”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축사로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축사에서 “서울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이라며 “학교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교육영역에서나마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폭력, 과도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를 맞은 교육현장에서 혁신을 이루려면 자존감과 자율성, 창의성, 그리고 협동심을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부 “말레이시아 학교협동조합 운영사례와 국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수원 학교협동조합추진단 연구원의 말레이시아 사례 발표에 이어 김홍섭 서울독산고등학교장과 장인홍 서울시의원, 양동수 (재)동천 상임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2부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중간지원조직, 당사자조직의 역할과 과제”에서는 영국협동조합대학의 린다 쇼(Linda Shaw) 교수와 SK사회적기업가센터 강민정 부소장,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원각 대표, 그리고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조우석 팀장의 사례 발표가 있는 뒤, 박상선 성공회대 교수와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원각 대표는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의 핵심은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는 협동조합 이론가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굳게 결합된 조합원 및 활동가들을 기르는 데 있다.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길러낼 때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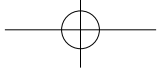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기획세션 2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09:30~10:3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태평홀
- **주관** : 한국사회투자,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 **참가기관** : 영국사회금융^{Social Finance UK}, 아동성공연구소^{Institute for Child Success}, 자본시장연구원, AVPN, 블룸버그 어소시에이츠, 희망제작소 등
- **참석 인원** : 약 60명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아동성공연구소의 메건 골든^{Megan R. Golden} 연구원이 “미국의 사회성과 연계 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을,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실장이 “한국의 SIB”를, 그리고 AVPN의 이토 켄^{Ken Ito} 동아시아지부 국장이 “일본의 SIB 실행에 관한 전망”을 각각 발표했다. 그리고 패널토론 시간에는 블룸버그 어소시에이츠의 린다 깁스^{Linda I. Gibbs} 총장과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 한온교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나누었다.

SIB란 정부가 저소득층 취업교육, 교도소 재범방지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전문사업자에게 맡기고,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 대기업과 자선재단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인 채권의 기존 성격과 달리 SIB는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의 지급보증 약정을 바탕으로 사회성과와 연계된 채권을 민간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다. 민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들은 정부로부터 투자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단순 기부비용으로 처리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각 지역의 SIB 사례의 공유를 통해, SIB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SIB를 더욱 발전·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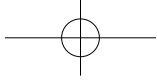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기획세션 3 | 지역커뮤니티 성장을 위한 자산형성 전략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09:30~10:30
-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주관 : (사)마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 참가기관 : 커뮤니티 링크스Community Links,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동경제협회^{SE} MAEST,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사투나마 재단SATUNAMA Foundation 등
- 참석 인원 : 약 170명
- 진행 : 윤진호 서울도시연구소 대표

먼저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호사카 노부토^{Nobuto Hosaka} 구청장이 “세타가야구의 마을 만들기 경험 공유”를, 영국 커뮤니티 링크스의 제럴딘 블레이크^{Geraldine S. Blake} 대표가 “자산형성 과정의 시민참여와 정책화 경험 공유”를, 그리고 프랑스 세마에스트^{SEMAEST}의 디디에 델리^{Didier M. Dely} 국장이 “도시 재생을 통해 본 민관협력 개발회사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세타가야구는 민관이 함께 낡은 목조주택 재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자기 집 정원을 개방하는 마을정원 운동, 빈집활용 운동, 마을 경관 사업, 나아가 육아공동체와 취미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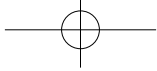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공동체 등 다양한 마을재생사업을 전개하면서 가치 있는 전통의 회복과 신뢰 깊은 이웃 관계,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런던 웨스트햄^{Westham}에는 1886년 지어져 구청과 학교로 쓰인 역사적인 건물이 1989년부터 방치되어 있었다. 이를 ‘커뮤니티 링크스’가 의회를 찾아가 건물을 개조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테니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자금이 부족했던 링크스는 지역 자금 모금과 함께 125개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개조 비용 150만 파운드^{약 27억 원}를 마련하였고, 의회로부터 해당 건물을 125년간 무상 임대받아 현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공의 자산’으로 만드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 하나의 자산을 공동 소유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수익 사업도 진행하고 해당 수익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 설비 마련이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이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점점 살기 좋은 동네가 돼 가는 것이다.

패널토론 시간에는 이미경 건축도시공간연구원과 김홍길 한국사회투자 팀장, 남철관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국장, 이상수 토지주택공사 연구원, 김일영 마을기업사업단장, 아이 게데 에디 푸르와카^{Gede Edy Purwaka} 사투나마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지역커뮤니티를 기본 축으로 마을 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민간 스스로 어떻게 자원을 모으고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세션 4 | 사회적경제와 국제기구의 역할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09:00~10:3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바스락홀
- **주관** : UNTFSSSE, UNDP 서울정책센터,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 **참가기관** : 몽블랑미팅,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 **진행** : 남부원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참석 인원** : 약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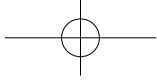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이 세션의 첫 번째 발제는 UN기구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SSE},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의 파스칼 반 그리에튀센 대표가 맡았다. TFSSE는 2013년 5월 열린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컨퍼런스의 결과물이다. 사회연대경제를 진흥시키자는 취지로 그해 9월 발족했는데, 여기에는 유엔 산하 OECD, ILO, UNESCO, WHO 등을 비롯한 19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옹저버로는 몽블랑미팅^{MBM},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사회연대경제진흥 대륙간 네트워크^{RIPESS}, Réseau Intercontinental de Promotion de l'Economie Sociale Solidaire 등이 있다.

그리에튀센 대표는 TFSSE에는 현재 UN 시민사회대화, 사회연대경제와 재정, 기금조성 등 분야별로 3개의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들을 널리 알리고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를 지원하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ILO ‘양질의 일자리’ 담당자인 산드라 오^{Sandra O}가 나섰다. 그는 “ILO는 기본적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며 정책제언, 원격학습, 출판물 등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계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사회경제연대 아카데미 행사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어 세르지오 아제니 OECD 지역경제고용개발^{LEED} 프로그램 국장이 발제를 했다. 그는 “OECD는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 확립, 지속가능한 발전을 사명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지역고용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기업과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 발제는 사회연대경제진흥 대륙간 네트워크^{RIPESS}의 알타그라시아 비야레알^{Altagracia Villarreal}이 맡았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이 미국·캐나다·멕시코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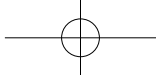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영향은 부정적이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금은 줄었다. 농업의 경우 미국은 대형농장이 대기업에 인수되었고, 멕시코는 식량주권을 잃었다. 멕시코 실업자들은 복미로 이주했다. 3개국 모두 노인, 건강, 교육,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가 축소되었다. 이같은 부정적 세계화에 맞서 RIPESS는 그동안 사회연대경제제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제 연대활동을 꾸준히 펼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다. 비야레알 씨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며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마무라 하지메 Hajime Imamura 국제연구정보센터 CIREC 인터내셔널 부회장은 몽블랑미팅 The Mont-Blanc Meetings의 활동을 소개했다. 몽블랑미팅은 2005년 사회연대경제 기업인들이 모여 만든 국제 NGO이다. 이곳은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을 일굴 수 있다는 사례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년에 한 번 전세계 사회연대경제 기업인들이 모여 공동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 참가규모는 3,000명을 넘는다.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세르지오 아제니 국장은 “아직은 사회연대경제에 참여하는 기업가가 소수이지만, 그렇게 때문에 몽블랑미팅, RIPESS처럼 국제연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세션은 하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모이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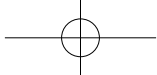
기획세션 5 |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14:00~16:00
- **장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관** :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 **참가기관** : 대만 노동부, 홍콩 내무부, 캐나다 몬트리올시, 스페인 바스크 주정부, 일본 가와사키시, 런던시 램베스구청, 캐나다 퀘벡, 상티에, 서울 금천구, 서울 성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관악구
- **진행** : 낸시 님탄 상티에 대표
- **참석 인원** : 약 180명

GSEF 2014의 전체 기념포럼 중에서 가장 많은 청중이 몰린 세션이다. 그만큼 사회적경제에서의 각국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기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낸시 님탄^{Nancy Nearthan} 상티에 대표가 “지방정부의 역할과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뒤, 세 가지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캐나다의 경우, 1995년 퀘벡주에서 경제위기에 봉착한 여성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 행진은 퀘벡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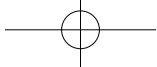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정부를 중심으로 기초단체, 경영자협회, 노동자연맹, 사회단체 대표가 모여 ‘퀘백의 경제·사회·미래에 관한 연석회의’를 이끌어내었고, 연석회의의 위원장을 맡았던 낸시 님탄은 그해 10월 「자! 연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주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상호 합의 하에 만들어진 퀘백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각종 사업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경제위기 해결 방안이 담겼다. 이에 퀘백 주정부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육과 주거, 환경, 문화 분야에서 각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제1 토론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 지방정부의 경험”에는 바스크 주정부의 후안 마리아 아부르토 Juan Maria Aburto Rique 고용사회정책부 장관,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플로렌스 후이 Florence Hui 홍콩 내무부차관이 참석했다.

제2 토론회 “사회적경제 정책 수행의 현실과 교훈”에는 미우라 아츠시 Atsushi Miura 가와사키시 부시장과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펑밍 하오 Feng-ming Hao 대만 노동부차관, 조안느 라보에 Johanne Lavoie 몬트리올시 사회적경제국장, 김영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제3 토론회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 : 이슈와 과제”에는 애나 랜들 Anna Randle 런던 램베스구청 전략기획평등부장과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일반세션 1 | 아시아 사회적경제 정책 대화

- 일시 : 2014년 11월 17일(월) 10:00~15:00
- 장소 : 서울혁신파크 서로배움터
- 주관 :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
- 진행 : 클리프 사우스콤(Cliff Southcombe) 소셜파이낸스 이사, 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
- 참석 인원 : 약 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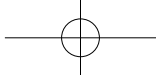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GSEF 2014 행사 첫 날 열린 이 세션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가와사키, 미얀마, 서울시 등 아시아 각 나라 및 도시의 참가자들이 아시아 지역의 공통된 비전과 정책 목표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조 연설과 1부, 2부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은 “아시아 사회적경제의 특성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희망제작소 이원재 부소장이 맡았다.

1부는 “아시아 사회적경제의 성장 배경과 공통점”을 주제로 4가지의 사례가 발표된 뒤, 연관된 2~3개 주제에 대한 그룹토론 및 결과 공유로 진행되었다. 점심식사 후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역시 사례 발표와 그룹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의 종합토론 시간에는 1, 2부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에 대한 종합토론 및 실행 계획이 논의되었다.

토론 결과, 앞으로 스타트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방안,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및 마케팅 지원, 「사회적가치법」 제정,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위한 인센티브나 지원 등이 앞으로 우선적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시에서는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의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공공구매 확대와 체계적인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발굴,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아울러 번역 협동조합과 트리플래닛, 동네빵네협동조합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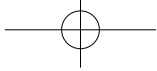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일반세션 2 | 사회적경제 자원으로서의 프로보노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4:00~16:00
-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주관** :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재)동천
- **참가기관** : 탭루트재단, 톰슨로이터재단
- **진행** : 정선희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대표
- **참석 인원** : 약 130명

첫 번째 발제 “미국 프로보노의 역사와 현황”은 조엘 바셰브킨^{Joel Bashevkin} 탭루트재단 Taproot Foundation 샌프란시스코 지부장이, 두 번째 발제 “톰슨로이터재단의 활동사례 소개”는 동웨이 루^{Dongwei Liu} 톰슨로이터재단 Thomson Reuters Foundation 동아시아지역 프로그램 디렉터가 맡았다.

바셰브킨 지부장은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for the public good}라는 뜻의 라틴어 약자로서, 공익의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기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프로보노란 비영리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들의 사명을 달성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무료로 기부되는 전문가의 서비스이다”라고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과 발전으로 지역사회와 전세계의 사회 문제 해결은 전보다 더 수월해져는 듯하다. 동시에 인재관리, 전략, 마케팅, IT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러한 수요는 자신들의 역량과 지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Pro bono}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내의 일반 기업의 연간 자선봉사기금보다 4배나 많은 약 150억 달러 가치의 프로보노 전문 서비스가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션에서는 빌리언체인지^{Billion+Change} 캠페인, 프로보노 워크, 글로벌 프로보노 서밋, 글로벌 프로보노 펠로우 네트워크, 그리고 링크드인^{LinkedIn} 플랫폼과 같은 집단행동이 전지구적 프로보노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한 사례와 함께 논의되었다.



일반세션 3 | 윤리적 패션 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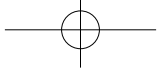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4:00~16:0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바스락홀
- 주관 : 윤리적 패션 네트워크
- 참가기관 : 매뉴팩처뉴욕^{Manufacture Newyork}
- 진행 :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 참석 인원 : 약 50명

“윤리적 패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제목의 제1발제는 김방호 오르그닷 대표가 맡았고, “윤리적 패션 산업 도시 제조기반 구축 모델”이라는 제목의 제2발제는 밥 블랜드^{Bob Bland} 매뉴팩처 뉴욕^{Manufacture Newyork} 경영자 디자이너가 맡았다.

김 대표는 윤리적 패션 네트워크^{EFN, Ethical Fashion Network}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한국의 윤리적 패션 기업들을 소개했다. 지역 기반의 생산자와 디자이너들의 결합으로 윤리적 패션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었다.

이 세션은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패션’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윤리적 패션은 인류애와 환경에 대한 자각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패션 산업을 추구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패션 산업의 환경오염 감소, 패션 산업의 디자인 다양성 증대, 윤리적·합리적 소비를 위한 대안 제시, 그리고 의류 생산자를 위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등을 중시한다. 친환경 소재뿐만 아니라 옷을 만드는 노동 환경의 윤리성 및 공정성도 윤리적 패션의 요소라는 것이다.

현재 윤리적 패션 네트워크는 130개 국가 약 8,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15,000개의 기업 또는 패션 전문 기관들이 이 포럼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패션업계의 선도 기업들과 대학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일반세션 4 | 사회적경제와 공유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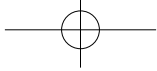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4:00~16:0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워크숍룸
- **주관** : 한겨레경제연구소^{HERI}
- **참가기관** : 히가시야마 예술가지원 서비스^{HAP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코리아,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등
- **참석 인원** : 약 90명

이 세션은 공유 경제의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제열 서울시 사회혁신 담당관은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발표를 통해 서울의 공유 도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공유도시 정책은 공간·물건·지식·정보 등 각종 유무형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시정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공유기업과 연계하여 승용차를 공동이용하는 ‘나눔카’ 사업, 망치나 전동 드릴·캠핑장비 등 생활물품을 공유하는 ‘공구도서관’ 사업, 단기간에 입고 버려지는 아동의류에 대한 공유 사업, 기증된 정장을 응원 메시지와 함께 청년 구직자에게 공유하는 ‘열린옷장’ 사업 등이 그 사례로 제시되었다.

아시다테 사야카^{Sayaka Ashidate} 히가시야마 예술가지원 서비스^{HAPS, Higashiyama Artists Placemnet Service} 국장은 일본 예술가들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HAPS는 교토시 히가시야마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로, 작업실이나 전시공간, 주거공간,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예술가를 지원한다.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예산에 맞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전시나 행사비용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계획을 짜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소^{HERI} 수석연구원은 “지역사회와 공유경제”를 발표했다. 서 연구원은 고척 돔구장이 공간의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이나 단체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공유의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그밖에도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엔비^{Airbnb}, 회원제 렌터카 공유 회사 집카^{Zipcar}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를 도입한 공유 경제 사례로 재활용, 프리마켓, 전통시장, 공공자전거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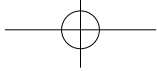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일반세션 5 | 「사회적경제기본법」 의의와 입법 쟁점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4:00~16:30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주관**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 **진행** :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 **참가기관** : 두꺼비하우징, 한국교원대학교, 트래블러스맵,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그룹SOS, 바스크 주정부 등
- **참석 인원** : 약 100명

이 세션은 “한국적 맥락의 특수성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김해원 한국교원대 교수의 발제와, 그에 따른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 1부에서는 변형석 서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와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가, 패널토론 2부에서는 프랑스와 코메François Comet 그룹SOS 국제개발부 부회장과 마리아 우바레체나Maria Ubarrechena 바스크 주정부 사회경제부 차장이 패널로 참가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서구의 사회적경제 발달 궤적과 공통되는 면이 있으면서도 정부의 정책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차이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정부 순응적인 조직들과 다른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들 조직은 성숙된 시민사회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성장하여 사회 문제 해결의 파트너이자 혁신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서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세션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 정책 등 기본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을 자세히 다루었다.



일반세션 6 | 아시아의 사회혁신 : 테크놀로지 전략과 리더십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4:30~18:30
- **장소** : 서울혁신파크 3층 크리에이티브랩
- **주관** : 아시아NGO이노베이션 서밋^{ANIS}, 희망제작소
- **참가기관** : 아시아벤처기부네트워크^{AVPN}, 브락^{BRAC}, 치노베이트^{CINNOVATE}, 리엔센터^{Lien Centre}, 인텔차이나, 사회혁신국제회의^{SIX}, 스프레드아이, 서울시 정보기획단
- **참석 인원** : 약 65명

이 세션은 총 4부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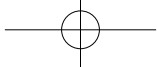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1부는 이은경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아시아 지역 사회혁신의 7가지 특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2부는 “현장 중심의 사회혁신 : 풀뿌리와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안잘리 사르케르^{Anjali Sarker} 방글라데시 BRAC 연구원이 ‘활동 중 교육^{Doing while Learning}’이라는 제목으로, 라셰돌 카비르^{A. H. M Rashedul Kabir} BRAC ICT 전문가가 ‘모바일 화폐(Mobile Money)’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조나단 창^{Jonathan H. Chang} 싱가포르 리엔센터^{Lien Centre} 이사가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3부는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옹^{C. Y. Yeung} 인텔 차이나 사회책임개발 이사와 김기병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이 사례발표자로 나섰고, 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과 나태영 인텔 아시아태평양&일본 사업 사업개발 부장이 패널토론자로 함께 했다.

4부는 패널토론 및 라운드 테이블 시간이었다. 루이즈 풀포드^{Louise Pulford} 사회혁신국제회의 대표와 웨이나 왕^{Weina Wang} 홍콩현대문화연구소 대표, 임소정 스프레드아이 대표, 이토 켄^{Ken Ito} 아시아벤처기부네트워크 국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일반세션 7 | 청년 문제, 사회적경제로 풀어내기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4:30~18:30
- **장소** : 서울혁신파크 1층 청년허브강당
- **주관** : 한일청년포럼, 함께일하는재단,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언리미티드 차이나
- **참가기관** : K2인터내셔널 일본, 예비사회적기업 (주)연금술사, 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민달팽이유니온, 유자살롱
- **참석 인원** : 약 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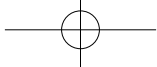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고용 취약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진출 및 자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세션은 1부 “한국과 일본, 사회적경제 안에서 청년의 자립을 고민하다”와 2부 “사회적경제, 청년문제의 능동적 해법을 꿈꾸다”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이와모토 마미(Mami Iwamoto) K2인터내셔널그룹 대표가 “포괄적 청년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를, 박진숙 서울형 사회적기업 (주)연금술사 대표가 “한국 니트NEET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각각 발표했고,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준 한일청년포럼 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진숙 대표가 소개한 니트NEET 청소년이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도 취업을 하지도 취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18~24세 청소년을 말한다. 2013년 한국의 15~25세 중 NEET 청소년은 19.2%로, OECD 국가 중 7번째이다. 지난 3년간 고졸 이하 비진학 청소년은 15,000명씩 늘고 있고 이 중 12.3%가 NEET 청소년이다. 이에 박 대표는 성미산 마을에 근거지를 두고,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친환경 도시락) ‘소풍가는 고양이’를 통해 빠른 적응과 기술습득을 돕고 있다.

2부에서는 웨이나 왕(Weina Wang) 언리미티드 차이나 부회장과 로나 로웨나 프라이어(Rona R. Pryor) 소셜벤처파트너스SVP 부국장, 이학중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권지영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이충한 유자살롱 대표 등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프라이어 부국장은 소셜벤처파트너스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각 개인이 기부를 늘리고, 비영리단체를 후원하며, 공동체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청소년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평생기부자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소셜벤처 사업가 및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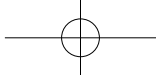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일반세션 8 | 협동조합 도시로의 성장과 지역사회 생태계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6:30~18:30
- **장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주관**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참가기관** : 트렌토협동조합연맹,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등
- **참석 인원** : 약 130명

이미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의 개회선언과 임정빈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 세션에서는 카를로 델라세가^{Carlo Dellasega}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대표가 “트렌토시의 협동조합 도시로서의 발전과정 및 트렌토협동조합연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창립준비 위원이 “트렌토 사례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협동조합 도시로의 성장 및 발전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하였다.

트렌토협동조합연맹은 분야별로 구성된 중간조직인 20여개 컨소시엄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과 연계되어 있으며, 연맹은 이러한 컨소시엄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협동조합, 특히 소규모의 협동조합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수주 등의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트렌토 주는 이러한 연맹의 역할을 통해 거대자본이 아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생산, 가공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협동조합 방식의 소비와 금융이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 협동조합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정태인 위원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모델을 몬드라곤 모델과 에밀리아 로마냐 모델, 퀘벡 모델로 나누어 설명한 뒤,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을 제안했다. 정 위원은 먼저 퀘벡 모델을 따라 지자체의 사회정책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다음으로 현재 하청계열 하에 있는 절반의 중소기업을 세력화하고 독립적 중소기업들도 산업별·지역별로 네트워크화 해야 하는데 이런 구상에 에밀리아 로마냐가 이상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과 경제민주화 조치들을 거치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주체 중에도 몬드라곤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 순서에서는 김홍필 구로구 협동조합협의회장과 조현선 안성고삼농협 조합장, 김재겸 한살림서울생협 상무이사, 유영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조직위원장 등이 각각 토론을 이어갔다.



일반세션 9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공정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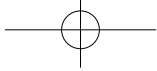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6:30~18:3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바스락홀
- **주관** :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 **참가기관** : 프레다재단^{PREDA Foundation},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국제개발협력센터
- **참석 인원** : 약 70명
- **사회자** : 이강백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이사

이 세션은 필리핀의 인권재단인 프레다재단^{PREDA Foundation}의 셰이 킬린^{Shay Cullen} 신부가 “공정무역의 의미와 사례”를, 손혁상 경희대학교 교수가 “경희대학교-YMCA 동티모르 사례 소개”를 각각 발제한 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프레다 페어트레이드^{Preda Fairtrade}는 프레다재단에서 설립한 공정무역 기업이다. 이들은 프레다지역센터와 함께 성적·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구조와 자활, 일상생활, 정규 교육,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 바탕이 바로 망고 공정무역에서 나온다.

물론 프레다 페어트레이드가 하는 일은 아동복지 활동에 머물지 않는다. 망고 생산자들의 적절한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며, 친환경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교육장과 보건소를 건설하기도 한다. 투명성과 상호존중, 그리고 대화를 특징으로 하며,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손혁상 교수가 소개한 동티모르 사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대학과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한 사업으로, 동티모르 커피공정무역 자립화를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 지역의 자생을 돕는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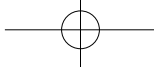
일반세션 10 | 노동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강화와 확대 전략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6:30~18:3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워크숍룸
- **주관** : 해피브릿지경영연구소
- **참가기관** : 몬드라곤대학교,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대안노동자협동조합대안노협연합회
- **참석 인원** : 약 110명
- **진행** : 김성오 대안노협연합회 조직위원장, 박경태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이사

이 세션에서는 먼저 스페인 몬드라곤 경영대학의 호세 마리 루자라가^{Jose Maria Luzarraga} 교수가 “노동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강화와 확대”를 주제로 기조발제,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협동총합연구소의 오카야스 키사부로^{Kisaburo Okayasu} 이사장이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사례”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맡고, 대안노협연합회 김성오 조직위원장과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의 박경태 이사가 패널로 토론에 참가했다.

몬드라곤 복합체는 스페인 시민전쟁 이후 발생한 대량실업과 사회적 위기 속에서 스페인 국민들의 생존과 지역 커뮤니티의 변화를 위해 교육과 협동적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루자라가 교수는 소개했다. 루자라가 교수는 몬드라곤이 그동안 엄청난 발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왔으며, 앞으로도 팀 기업^{Team-Entrepreneurs}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몬드라곤 팀아카데미^{MTA, Mondragon Team Academy}에 대해 소개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경쟁이 아닌 협동에 있다”는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들도 더욱 강력한 협동을 바탕으로 팀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며 발표를 마쳤다.





일반세션 11 | 사회적경제 이론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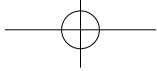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09:00~13:00
- **장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관** :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참가기관** :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연구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콩코디아 대학 칼폴라니 정치사회연구소
- **진행** : 김동준 성공회대 연구교수
- **참석 인원** : 약 85명

이 세션은 1부 “사회적경제 이론의 실천사례”와 2부 “칼폴라니와 사회적경제 연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우선 1부 순서에서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가 “한국 사회적경제 발전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김의영 서울대 교수와 미우라 히로키 경희대 연구교수가 “한중일 사회적경제 매핑 : 의의와 과제”를, 김종수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최준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전략에 관한 연구 : 경찰청 사례를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했다.

2부 순서에서는 정태인 위원이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과 사회적경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 “칼 폴라니가 한국 사회적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그리고 마거릿 멘델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장이 “칼 폴라니 연구와 사회적경제”를 각각 발표했다.

홍기빈 소장은 “1960년대 이래 약 반 세기 동안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기간의 앞의 절반은 개발 독재와 국가 동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뒤의 절반은 시장 독재와 자본에 의한 동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자본)의 공세가 시민사회를 파편화시키고 왜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한국 사회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시스템에 중요한 교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속에서 칼 폴라니의 사상과 철학이 자본주의의 ‘해독제’로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세션 12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 이모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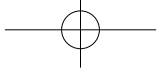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09:00~13:0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워크숍룸
- **주관** : 서울연구원,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부설 도시농업연구소, 예코11
- **참가기관** : 일본지리학회,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
- **진행** : 강내영 도시농업연구소 부소장, 이창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석 인원** : 약 60명

이 세션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약 700만 명)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지역의 은퇴자가 환경과 생태,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분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농업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션은 키쿠치 토시오^{Toshio Kikuchi} 일본지리학회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인생이모작으로서의 도시농업” 발표와, 백혜숙 예코11 대표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에 이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키쿠치 이사장은 동경 대도시권의 타치카와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퇴직자·고령자의 지속가능한 활동에 기반한 도시농업의 재편과 농촌 공간의 상품화의 여러 양상을 설명했다. 특히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간 뒤 농촌 노동력이 과소화·고령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에게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 농업으로 전개되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직판장의 경우 전통형, 다품종 농산물형, 농상공 연계형, 체험·콜라보레이션형 등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이제 도시농업은 이 직판장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로 연계해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혜숙 대표는 “도시농업은 생활쓰레기, 학교폭력, 에너지, 공동체 붕괴, 도시열섬 등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생물다양성, 토종씨앗 보급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로 안성맞춤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도시농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과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 소셜벤처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일반세션 13 | 「서울선언」의 의의와 전망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11:00~12:3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바스락홀
- **주관** : 일본 서울선언문 연구모임
- **참가기관** : 「서울선언」 모임 참여형 시스템 연구소, 도쿄도 세타가야구, 일본협동조합연합회, 한국협동조합협회
- **참석 인원** : 약 65명

“「서울선언」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선언이다. 10가지 항목으로, A4용지 두 장의 내용 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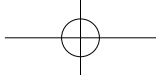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일본의 사회적경제 연구가 마루야마 시게키^{Shigeki Maruyama} 교수의 말이다.

마루야마 교수는 GSEF 2013을 눈여겨보면서 「서울선언」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관심은 ‘일본 「서울선언」 연구모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GSEF 2014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인구가 약 1억 2천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8천만 명이 농협과 생협 등의 협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대부분 스스로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제도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재정 지원을 받을 때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가입을 결정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서울선언」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읽힌다.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GSEF 현장」은 미래의 국제 연대를 위한 토대라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에 마루야마 교수 일행은 이번 GSEF 2014에 하나의 세션을 만들 정도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션은 마루야마 교수의 발제에 이어 호사카 노부토^{Nobuto Hosaka} 도쿄 세타가야구청장, 야나기사와 토시가츠^{Toshikatsu Yanagisawa} 일본협동조합학회 회장, 츠다 나오노리^{Naonori Tsuda} 공생경제추진포럼 대표, 그리고 우영균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일반세션 14 |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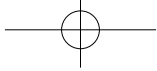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11:00~12:3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워크숍룸
- **주관** : 사회혁신국제회의(SIX(Social Innovation eXchange), 스프레드아이)
- **참가 기관** : 바르셀로나 시의회, 람베스 자치구
- **참석 인원** : 약 60명

세계 곳곳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사례를 소개하고 더 나은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세션이었다. 각각의 혁신 사례들이 지역의 맥락에서 사회적 요구들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다소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협력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각 사례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변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깊었다.

첫 번째 사례로 호세 마리아 미로 파스쿠알^{Josep Maria Miro Pascual} 바르셀로나 시의회 사회 혁신부장이 바르셀로나의 BCN^{Barcelona Care Network}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사례로 정상훈 사회혁신공간 데어^{There} 상임이사가 데어에 대해 소개했다. 데어는 사람과 공간, 정책,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회혁신을 만들어가는 단체이다.

세 번째 사례로 애나 랜들^{Anna Randle} 람베스 자치구 전략및평등팀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랜들 팀장은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얻기 위해 자치정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리고 람베스 자치구의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했다.



일반세션 15 | 협동조합 제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의 의미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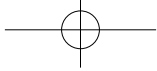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13:30~16:0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태평홀
- **주관**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참가기관**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진행** :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교수
- **참석 인원** : 약 140명

세션은 1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와 국가별 사례”와 2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의 기조발제는 영국협동조합대학교의 린다 쇼^{Linda Shaw} 교수가 맡았고, 이어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의 안네 산타마키^{Anne Santamaki},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이정주 이사장, 도쿄도 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요시오카 타카시^{Takashi Yoshio-ka} 등이 발제를 맡았다. 2부에서는 서종식 대안노협연합회 정책위원장, 전재홍 북서울신흥 상무, 정경섭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경창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S-Group}는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 조직이다. 조합원은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200만 명 정도이고, 매출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전체 소매유통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핀란드 국내에서는 중소 규모 협동조합들의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공정무역을 통해 제3세계 협동조합의 성장을 돕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들은 대규모 협동조합과 소규모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소비자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또는 노동자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나아가 국내 협동조합과 제3세계 생산자 사이의 협동 등과 같은 다양한 협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는 “협동조합의 원칙이 1937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1966년에 1차 개정, 1995년에 2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차 개정 때부터 ‘협동조합 간 협동’이 원칙으로 포함됐다. 통상적으로 협동조합 간 협동이란 서로 다른 협동조합, 즉 생산자협동조합 및 노동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가리킨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동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세에 맞선다는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세션 16 | 소셜벤처파트너스와 벤처 자선 활동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14:00~16:0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바스락홀
- 주관 : 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 참가기관 : 소셜벤처파트너스 인터내셔널
- 참석 인원 : 약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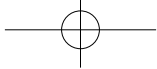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18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청년 문제, 사회적경제로 풀어내기’ 세션에 참여했던 로나 프라이어 소셜벤처파트너스 인터내셔널 부국장이 19일 다시 한번 발제자로 나섰다.

개별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들 중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기업을 ‘벤처’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들 중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소셜벤처’^{Social Venture}라고 부른다. 즉, 소셜벤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 가치창출과 혁신을 이룩하고 거기서 창출된 이익을 분배하여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소셜벤처는 매우 이상적인 기업의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SVP는 그런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파트너와 연결하여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에 사무국이 있는 소셜벤처파트너스^{SVP}는 서울을 포함해 7개국 38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전세계 3,000명 이상의 기부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비영리단체를 후원한다. 이곳의 기부자들은 단순한 기부자가 아닌 소셜벤처의 파트너이다. 사무국은 파트너들에게 전략적 자선활동에 대해 알리고 파트너가 가진 시간과 재능, 금융 투자를 통해 자선활동이 최대한 많은 영향을 끼치도록 하고 있다.

SVP 서울의 박광희 이사장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소셜벤처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SVP의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일반세션 17 |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과 실천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14:00~16:0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워크숍룸
- **주관**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대안노협연합회
- **참가기관** : 일본노협연합회
- **진행** : 오상훈 한국자활센터협회장
- **참석 인원** : 약 1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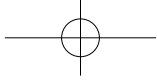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오상훈 한국자활센터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 세션은 나가토 유조^{Yuzoh Nagato} 일본노협연합회 이사장과 김승오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최예준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사업위원장, 그리고 이츠오 가와토^{Kawato Itsuo} 교탄고시 보건복지부 부국장의 사례발표로 이어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인한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다. 게다가 두 나라는 모두 실업률이 높고 청년 및 여성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션의 취지였다.

나가토 유조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운동은 사회연대 운동의 하나이며 그 목적은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고려해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을 연결하는 사회적 영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와 경제 효율을 종합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시장 중심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오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화 전략이란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 미션 수행을 통해 지역 사회의 욕구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역화 전략은 지역 공동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각 조직의 사회적 미션과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결과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예준 위원장은 이피쿱 협동조합과 지역화폐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협동은 과정이며, 변화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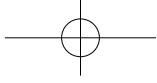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일반세션 18 | 사회적경제와 환경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09:00~10:00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이벤트룸
- **주관** : (사)푸른아시아
- **참석 인원** : 약 55명

(사)푸른아시아는 기후변화에서 안전한 아시아와 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막화 및 황사 방지사업,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등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2006년 UN지구환경기금^{UNGEF} 공인 NGO로 등록되었고 2008년 외교통상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다. 2011년에는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공인 NGO로도 등록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사막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몽골 지역에서 푸른아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환경 및 지역재생 활동을 소개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초지 생산량을 늘리는 환경적 효과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효과, 그리고 유실수 재배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함께 거두고 있다.





05 부대 행사



1. 환영 만찬 및 네트워킹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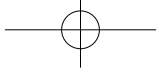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1 | 환영 만찬

- 일시 : 2014년 11월 17일(월) 19:00~21:00
- 장소 :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지하1층 그랜드볼룸
- 참석 인원 : 초청연사 및 국내외 참가자 250여 명
- 메뉴 : 정찬(한식)

행사 첫 날 준비된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참가자들을 만찬장으로 안내했다.

환영 만찬은 예상 참가자 수가 150명에서 25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4곳을 비교분석하여 만찬장을 선정했다. 선정 뒤에는 메뉴 확정을 위한 시식을 진행하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환영연이 열리기 전 식전 공연으로, 비보이 출신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여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조울’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비보잉 퍼포먼스와 영상이 조화를 이루는 영상 맵핑 공연이었다.

이어 정효성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의 환영사와, 린다 쇼 영국협동조합대학 부학장, 플로렌스 후이 홍콩 내무부 차관, 야나기사와 토시카츠 일본 메이지대 교수(서울선언 연구모임) 등의 축사, 그리고 피키 사타리^{Fiki Satari} 반등창조도시 의장과 우에하라 히로코^{Hiroko Uehara} 탈원전을 지향하는 지자체장 회의 사무총장 등 여러 내빈들의 건배제의가 이어졌다.

식후 공연은 여성 5인조 퓨전 국악밴드 ‘비단’의 무대였다. 한국의 전통 다큐와 국악이 어우러지며, 대형 화면을 통해 스토리와 공연이 연출되는 공연이었다.

2 | VIP 오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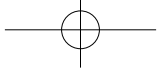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1) 서울시장 주재 오찬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2:20~13:40
- 장소 :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차르트홀
- 참석 인원 : 국내외 참가자 100여 명
- 메뉴 : 정찬(양식)

2) GSEF 조직위원장 주재 오찬

-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12:30~14: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참석 인원 : 국내외 참가자 100여 명
- 메뉴 : 정찬(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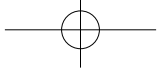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3 | 네트워킹 파티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9:30~22:00
- **장소** :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강당, 스페이스류, 서로배움터 등
- **참석 인원** : 국내외 참가자 250여 명
- **운영타입** : 패키지 푸드 제공 및 자유 배석

국내외 참가자 약 250여 명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가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강당과 스페이스류, 서로배움터 등에서 마련되었다. 패키지 푸드와 자유배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청년허브 강당에 모여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GSEF 2014 조직위원회 소개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등을 듣고, 스페이스류로 이동했다. 입장 동선상에 위치하는 우물샘키친 앞쪽에서 패키지 푸드가 배포되어 자연스럽게 식사와 건배, 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이 서로 모여 유쾌한 공연도 즐기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2. 전시 및 체험 행사

1 | 금천제조襟川製造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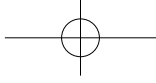
이 사진전은 윤리적 패션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 오르그닷Orgdot의 디자이너 및 제작자 팀과 서울 금천구청,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단이 함께 진행한 ‘금천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금천구 내 봉제 전문가와 디자이너들이 힘을 합쳐 지역 사회와 패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금천 봉제 공장이 가진 역사와 역량 그리고 아우라를 담은 비주얼 콘텐츠를 만들어 널리 소개하는 한편 우수한 봉제 공장을 발굴해 인디 브랜드 및 디자이너들과 맺어주는 등의 활동으로 연계되었다.

프랑스 사진작가 올라 레이어Ulla Reimer는 40년 넘게 전세계를 누비는 비주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보도 사진작가로서 일을 시작한 이래 영화 제작사의 특별 사진작가로서 유명 인사들의 인간적이고도 일상적인 면을 사진으로 담아내 많은 찬사를 얻었으며, 이후 아트 사진작가로서 자신의 열정을 다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봉제공장의 손때 묻은 작업도구들과 장인의 주름진 손, 그리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프레임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2 | 협동 체험

엑투스협동조합이 개발한 협동조합 학습용 보드게임 ‘렛츠쿵Let's coop’을 직접 체험해보는 행사였다. 보드게임 렛츠쿵은 게임 참가자들이 조를 이루어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게임으로서, 최종 경영 실적이 좋은 팀이 이기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출자, 기여, 협동심, 7원칙 등의 협동조합 운영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주간 및





협동조합의 날 행사 때는 경연대회를 열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협동조합을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보드게임이라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체험 행사에는 렛츠쿵 보드게임을 대형 사이즈로 제작하여 행사 참가자들이 큰 주사위를 던지고 해당 칸의 미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보드게임을 직접 해보고 싶은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테이블 2개소를 설치, 소형 렛츠쿵 보드게임을 비치하여 상시 운영하기도 했다.

3 | 마주 잡은 손

행사 기간 동안 GSEF 참가자와 시민청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협동과 연대의 상징인 손그림 잇기를 통해 공간 데코레이션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연대를 통해 변화 발전해나가는 GSEF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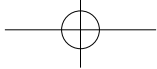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테이블에 비치된 각자의 손 모양을 그리고 오린 다음 그 위에 하고 싶은 마이나 소원을 적어 앞 사람의 손 그림 옆에 이어서 겹도록 했다.

3. 현장 탐방

참가자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현장 탐방 행사를 가졌다.

- **일시** : 2014년 11월 17일(화) 10:00~15:00
2014년 11월 18일(수) 14:00~18:30
- **운영 대상** : 해외 초청 연사, 도시 대표 및 수행원, 기관 대표 중 사전 신청자
- **운영 방안** : 사회적경제 기업 '트래블러스맵' 운영

행사 첫날인 17일(월)에는 경복궁-통인시장-남산N타워 코스를 운행했고, 둘째날인 18일(화)에는 북촌 공방체험-아피 인력거-인사동 쌈지길 코스를 운행했다. 첫날에는 18명, 둘째날에는 10명이 탐방에 참여했다.



4. 지역포럼

GSEF 2014에는 GSEF 2013에 없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지역포럼이었다. GSEF 창립을 계기로 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의 붐을 조성하고, 특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번 지역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남 구례군 등 세 곳에서 개최되었다.

1 | 제주특별자치도

GSEF 2014 제주포럼은 20일 오후 2시 제주 오리엔탈호텔 연회장에서 제주 지역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민관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낸시 님탄^{Nancy Neamtan} 상티에 대표와 마거릿 멘델^{Marguerite Mendell} 칼폴라니연구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지역재생과 공유경제를 주제로 원탁토론이 진행되었다.

2 | 광주광역시

GSEF 2014 광주포럼은 광주 지역 사회적경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0일 CMB 광주방송에서 열렸다.

이니고 블랑코^{Inigo Blanco} 몬드라곤대학교 교수와 호세 마틴 로페즈^{Juan Jose Martin Lopez HBM} 협동조합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초빙,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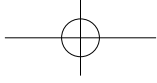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첫 주제발표에 나선 호세 마틴 로페즈 책임연구원은 “상호 협력하되 경쟁하지 않는다”는 협동조합 원칙과 조합 간 연대와 효율적 비즈니스 수단인 ‘내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니고 블랑코 교수는 ‘팀 형태로 함께 배우고 행동하며 창조하는 글로벌 교육시스템 현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미옥 빛고을 아이쿱생협 이사장과 정진철 조선대 교수의 지정토론과 사회적 경제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3 | 전남 구례군

GSEF 2014 구례포럼은 아이쿱생협과 공동으로 주최되었다. 11월 20일 구례자연드림파크 컨퍼런스홀에서 “협동조합의 혁신으로 극복하는 경제위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지역포럼에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서기동 구례군수,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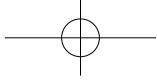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네 산타마키^{Anne Santamaki}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국제관계부 국장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의 “핀란드생협과 아이쿱생협의 혁신을 통한 성장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최성현 구례부군수, 스페인의 후안 호세 마틴 로페즈 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와 구례자연드림파크와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했다.

포럼이 끝난 뒤에는 해외 참가자들과 구례 화엄사와 벚꽃길 등 지역 투어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남원아이쿱 방문으로 지역포럼 일정을 마쳤다.





06 언론 보도



1. 홍보 전략

홍보 파트에서는 목표를 세 가지로 잡았다.

첫째, GSEF는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옹호하고 상호 협력하는 국제협의체이며, 그 바탕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서울이 있다는 점이였다.

둘째,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적가치를 우선하는 까닭에, 오늘날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지속가능하면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였다. 인간관계를 복원하는 일, 공동체를 살리는 일, 호혜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기존의 자본 중심 경제 방식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GSEF는 전세계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교류하는 자리이자, 더 나은 사회적경제 모델을 서로 배우고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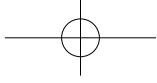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홍보의 실행은 행사가 열리기 3주 전부터 3단계로 진행했다.

3주 전인 10월 4주(1단계)에는 GSEF 자체의 인지도 확산에 주력했다. 주로 SNS를 통해 행사 개최를 알리고, 기고문이나 칼럼 등을 통해 행사의 의의를 전파했다.

2주 전인 11월 1주(2단계)에는 기념포럼의 세션별 주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고, GSEF 창립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하기 시작했고, 기고문·칼럼뿐 아니라 기획기사와 주간지 광고 등도 활용했다.

그리고 1주 전 및 행사 주간(3단계)에는 세션별 주제 이슈화를 계속하면서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한 전방위 홍보를 실시했다. 외신기자를 포함한 주요 기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프레스룸을 운영했다.





협동조합 일자리 1만개 캐나다 '몽헤알'의 비결

'몽헤알',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토론토 다음으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지역이자 프랑스어권 도시 중 파리 다음으로 큰 도시다. 우연이 닳고 있는 퀘벡주와 대도시인 '몬트리올' (Montreal)을 프랑스어로 발음한 게 바로 '몽헤알'이다. '몽헤알'은 '협동조합'의 오랜 역사로도 유명한 곳이다. 도시 구성원들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분야의 세계적 모델로도 손꼽힌다. 심지어 퀘벡주의 경우 주민 개개인이 복수의 협동조합에 가입하다보니 실제 인구수보다 협동조합 원수가 훨씬 더 많은 정도다.

퀘벡주의 독특한 협동조합운동은 '지역개발협동조합'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ve-RDC) 제도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퀘벡주 17개 행정구역 중 11개 지역에 설립된 RDC는 협동조합, 공공기관과 신생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토대인 협동조합이다. 지난 10년간 RDC는 500여 개의 협동조합 창립을 지원한 뿐만 아니라 1만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의 큰 2가지 비결이 있다. 하나는 RDC 자체 협동조합 네트워크다. RDC에는 퀘벡주의 2800개 협동조합 중 약 1000개가 회원으로 관여해 있다. RDC가 창립을 지원한 협동조합의 약 80%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협동조합 정신을 잊을 수 없는 대목이다. RDC의 모든 활동은 투명성과 예산, 활동수익, 회비로 유지된다.

또다른 비결은 국제협동조합연맹회(ICQCM)의 활발한 협력에 있다. 15개 임업별 연맹으로 구성된 ICQCM은 퀘벡주의 대부분 협동조합이 소속된 대표조직이다. 퀘벡주 정부는 ICQCM과 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퀘벡주 협동조합운동의 뿌리엔 노동운동이 있다. 1800년대 경자업자와 실업자가 속해서 퀘벡의 노동운동가들은 스스로 기금을 조성해 자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자했다. 주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임금규정을 확대해나갔다.

특히 몬트리올이 보여주는 '재운동'은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사회적운동으로 그 외연이 넓고 있다.

몬트리올의 '샹타이' (Chantier économie sociale)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네트워크다. 행정지원부



캐나다 몬트리올 사회적경제 조직협회 네트워크 '샹타이'의 낸시 놀란 대표.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사회적경제학자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퀘벡주 'RDC제도' 바탕
인구보다 조합원수 많아
조직간 네트워크도 긴밀**

및 정책생성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샹타이에는 몬트리올과 퀘벡을 넘어 '사회연대경제 진흥 네트워크' (REPRESS)를 통해 미주 권역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네트워크들과 교류한다. 이들의 협력에 따른 성과를 다시 퀘벡과 몬트리올에서 나눈다. 협동조합의 창립지원, 창업 후 다양한 지원 및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체 R&D(연구-개발)능력 강화라는 3대자랑을 갖춘 몬트리올은 북미협동조합의 대표지역인 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몬트리올의 '샹타이' 모습은 지역경제개발공사(CEDCs=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속적인 도시빈민화와 실업률 상승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립된 CEDCs는 1984년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업, 사회운동단체, 지방정부가 지역조직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졌다.

CEDCs는 빈곤보다 그 원인이자 해법이라 할 수 있는 실업문제에 집중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노력이 더 강력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몬트리올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후 CEDCs는 샹타이 단위의 기반이 되고 몬트리올을 다채로운 지역네트워크의 신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 개최. 서울에서 개최된 7일 열린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2013)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참가도시 대표들과 '서울선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이탈리아 볼로냐 및 에밀리아로마냐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일본 교토 및 요코하마, 필리핀 케손시 등 8개 도시 대표가 참석했다. 박원순

파이낸셜뉴스 2013. 11. 8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서울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장에서 열린 '2013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GSEF 2013)'에서 '서울선언'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서울을 비롯해 이탈리아 볼로냐와 에밀리아로마냐주, 캐나다 퀘벡과 몬트리올, 일본 교토와 요코하마, 필리핀 케손 등 8개 도시 대표가 참석했다.

헤럴드경제 2013. 11. 8

머니투데이 2014. 11. 8

'사회적경제' 선진도시, 서울에 모인다

올 11월 국제포럼 첫 개최... 정례화 추진
국제적 연대 강화 '서울선언문' 발표 계획

서울시가 오는 11월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외국도시간 교류와 국제기구, 현직기업가 등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각 국가에서 경험적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을 발전시키는 전 세계적 단위의 협력체나 네트워크가 없다"며 관련 정책의 계획과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구체화한 행사다.

서울시는 오는 11월5일부터 7일까지 서울근대미술관에서 2013 국제 사회적경제포럼(가칭)을 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럼엔 서울시를 비롯해 캐나다 퀘벡주, 이탈리아 볼로냐,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홍콩, 일본 도쿄, 호

주 바자니아 등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국제도시들과 샹타이(퀘벡), 랑론(이탈리아) 등 사회적경제 관련 해외 주요 민간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세션으로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혁신과 지역성장,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정 등이 마련된다.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를 통한 서울혁신의 현황과 발전 모델"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참가자들이 지역·부문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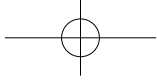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2013 국제 사회적경제포럼(가칭)' 주요 프로그램		*참석도시
행사명	행사장소	장소
각종특별이행 토론	-서울선언 선언 발표를 위한 주요인사 중심의 협력체간의 진행	선행사 (파리/퀘벡)
개회식	-국제 사회경제를 민간경제 및 도시간 우호에 한하여 잘 여인	선행사 (파리/퀘벡)
포럼세션	-주제1: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혁신과 지역성장 -주제2: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정	선행사 (파리/퀘벡)
전시, 이벤트 등 부대행사	-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 전시·홍보 판매 부스운영 -해외 초청사 현장발표, 워크숍, 세미나, 사회적경제 정책 설명회	선행사 (파리/퀘벡) 시정행 DMZ 등

교류할 수 있도록 15~20명 규모의 네트워크 세션 △사회적경제분야의 기업과 조직들이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계획을 공개하고 평가받는 경연대회 △한국 사회적경제 관련 현황발표 및 서울 도시발전 △사회적경제영역 상영회 △사회적경제조직

전시·홍보 등도 열린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사회적경제 국제화 서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포럼을 매년 정례 행사로 정착시키고 도시간 순회 개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출본 기자 k0301@

머니투데이 2013. 6. 7



2015. 07. 08. 수요일

프라임경제

자본시장
산업
부동산
아웃소싱
정치사회
오비이엔
아하!그릴군요

기업 | 정부/지자체

글자크기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발전 위한 'GSEF 2014' 개최
오는 17일부터 서울 간 기차...국내외 지방정부 20여개 참가
노병우 기자 | rbu@newspine.co.kr | 2014.11.10 12:12:59

[프라임경제] '2014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이하 GSEF 2014)'이 오는 17~29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과 시민청 등에서 열린다.

'GSEF'는 국내외 사회적 경제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시민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과 경험을 나누고 상호협력력을 약속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행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서울시와 GSEF 2014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며 '변화를 향한 연대'를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3일 동안 진행되는 GSEF 2014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시아 사회적경제 정책대화 △개막식 △기조 연설 및 사례발표 △주제별 세션 △GSEF 창립총회 등이다.

논의 주제는 △사회적 경제와 교육 △도시재생 △사회적 금융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역할 △협동조합 △공공주택 △윤리적 패션 △푸드보노 △공유경제 등이며, 서울시는 이번 행사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GSEF 2014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불로냐 △퀘벡주 △몬트리올 △푸리치바 △가와사키 △방콕 등 20여개 국내외 지방정부가 참가할 예정이다.

프라임경제 2014. 11. 10

서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의장 도시 선정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18개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43개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창립총회에서 GSEF의 초대 의장 도시로 뽑혔다. GSEF는 도시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찾기 위해 민간기관과 도시들이 모여 구성한 사회적 경제 관련 국제 협의체다. GSEF는 2016년에 다음 총회를 열기로 하고 캐나다 몬트리올을 개최 도시로 정했다. /김홍록기자

서울경제 2014. 11. 21

박원순 서울시장, 린다 김스 前뉴욕 부시장과 '사회적경제' 논의
“사람 중심 경제활동이 우선돼야 서민 삶의 질 향상”

반부패, 불평등, 환경파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론 추구보다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이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애착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다. 원광제과 등을 운영하면서 남다른 민간 사회적경제활동을 실천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시장이 되면서 서울 곳곳에 사회적경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3개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예 사회적경제 국제회의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청과 서울컨벤션센터에서는 19일(가) 2박3일간 전세계 60여개 도시와 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사회적경제

시, 아동복지서비스 SIB사업 추진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 다른 지역과의 경험 공유도 필요

회의(GSEF)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미국 뉴욕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다닌 린다 김스 전 뉴욕 부시장과 만나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스 전 부시장은 재직시절 2012년

국제 최초로 지난 2월 (대한국사회복지와 아동복지서비스) SIB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이날 대담에서 '게대로 된 사회적경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적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스 전 부시장은 '서울시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3년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스 전 부시장은 '전통적인 공직사업은 정부가 성과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서울

시대로 최초로 지난 2월 (대한국사회복지와 아동복지서비스) SIB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이날 대담에서 '게대로 된 사회적경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적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스 전 부시장은 '서울시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3년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스 전 부시장은 '전통적인 공직사업은 정부가 성과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청 접견실에서 만난 김스 전 뉴욕 부시장을 만나 사회적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SIB는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민간이 야망한 성과를 낸 후의 사회적경제 성과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회적경제 모델이다. 정부는 예산 절감 효과를, 민간은 사회적경제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서울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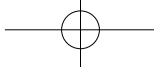
세계 라이카스 코스트에 수급 중인 불소염을 대상으로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형식적' 행동 학습 프로그램은 발표하면서 미국에 처음으로 사회적경제(SIB-Social Impact Bond)를 도입했다.

이해 대해 김스 전 부시장은 '협동조합 그 어느것이든 설립한지 8개월 밖에 안됐지만, 다른 도시와 사례를 공유하는 연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사회적 서비스는 정보, 수급과 활용, 장기적인 보고 체계 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최현성 기자/penn@heraldcorp.com

프라임경제 2014. 11. 10



변화를 향한 연대...사회문제 해결 백가쟁명 한겨레, 2014. 11. 24

사회적경제로 일어난 伊 트렌트, 그리고 제주 제주의소리, 2014. 11. 24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가 첫번째 열쇠 제주의소리, 2014. 11. 25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한국아이닷컴, 2014. 11. 29

여야 손잡게 한 '사회적경제' 뒤통스 머니투데이, 2014. 12. 03

학생이 가격 정하고 엄마는 '매점 아줌마'로 한겨레, 2014. 11. 21

위기의 학교생활협동조합, 미래는? tbs교통방송, 2014. 11. 19

[칼럼] 몬드라곤의 비밀 시민일보, 2014. 11. 27

국제사회적경제 창립총회 개최 tbs교통방송, 2014. 11. 20

밥 블랜드 : 봉제노동자와 협업하면 창의적 제품 나와 한겨레, 2014. 11. 18

린다 쇼, 부모·지역사회 직접 나서 어릴 때부터 공동체의식 길러줘야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 2014. 1. 25

린다 깃스 : 공공정책, 시민 목소리 귀담으면 결과도 좋지요 한겨레, 2014. 12. 08

린다 깃스 : 사람 중심 경제활동이 우선돼야 서민 삶의 질 향상 헤럴드경제, 2014. 11. 18

송기호 단장 : 서울시 사회적경제 tbs교통방송, 2014. 11. 18

한국 찾은 '공정무역 운동가' 셰이 켈린 신부 가톨릭신문, 2014. 11. 23

셰이 켈린 신부 : 좋은 물건 사려면 노동자 정당한 보상도 해줘야 한겨레, 2014. 11. 18

셰이 켈린 신부 : 가난한 농민, 부자 위해 농산물 기르지만 정당한 대가 못 받아

경향신문, 2014. 11. 17

조엘 바쉐킨 : 연말 불우이웃돕기 넘어...기업들의 '프로보노' 기대합니다

한겨레, 2014. 12. 02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수의 힘 시사IN, 2014. 11. 29

느린 친구를 위한 사회적 투자 한겨레, 2014. 12. 03

[경제와 세상] 서울에 문 여는 '칼폴라니연구소' 경향신문, 2014. 12. 04

아름다운 도시 '몽헤알'을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2014. 11. 08

광주시, 20일 국제사회적경제 인사초청 포럼 개최 NSP통신, 2014. 11. 20

광주시, 세계적 협동조합 전문가 초청, '광주포럼' 개최 시민일보, 2014. 1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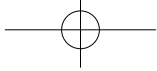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광주시, 국제사회적경제 인사초청 광주포럼 개최 일요신문, 2014. 11. 20

국제사회적경제 인사초청 광주포럼 개최 데일리안광주전라, 2014. 11. 20

광주시, 국제사회적경제 인사초청 포럼 개최 광주타임스, 2014. 11. 21

국제사회적경제 인사초청 광주포럼 개최 CNN21, 2014. 11. 21

광주광역시, 국제사회적경제 인사초청 광주포럼 개최 연합뉴스, 2014. 11. 21



국제사회적경제 인사초청 광주포럼 개최 중앙통신뉴스, 2014. 11. 21

국제사회적기업 전문가 초청 광주포럼 개최 드림저널, 2014. 11. 21

구례군 ‘협동조합 혁신, 경제 위기 극복’ 포럼 개최 이뉴스투데이, 2014. 11. 27

구례군, ‘협동조합 혁신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전략’ 포럼 개최 뉴스1, 2014. 11. 20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포럼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2014. 11. 21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포럼 개최 뉴시스와이어, 2014. 11. 21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포럼 개최 연합뉴스, 2014. 11. 21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포럼 개최 아침신문, 2014. 11. 21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포럼 개최 더한국타임즈, 2014. 11. 21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포럼 개최 광주타임즈, 2014. 11. 21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포럼 개최 NGTV, 2014. 11. 25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포럼 개최 매일일보, 2014. 11. 23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포럼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14. 11. 21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포럼 한국미술신문, 2014. 11. 21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제주포럼 열려 헤드라인제주, 2014. 11. 22

“지속가능 개발의 대안 모델될 것” 제민일보, 2014. 11. 20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제주지역포럼 개최 시사제주, 2014. 11. 19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한강타임즈, 2014. 11. 20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 선출 한국디지털뉴스,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이투데이,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아시아뉴스통신,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뉴스와이어,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의장도시로 선출 불교공뉴스,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 선출 시사뉴스, 2014. 11. 20

서울시, 세계 사회적경제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머니투데이,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 선출 뉴시스,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첫 의장도시로 선출 연합뉴스, 2014.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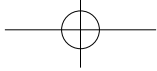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뉴스1,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 선출 이데일리,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 맡아 아시아경제,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첫 의장도시로 선출 매일경제,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시사뉴스메이커,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매일노동뉴스, 2014. 11. 21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초대 의장도시 은퇴한국, 2014. 11. 21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성동저널, 2014. 11. 21

박원순 시장 “회원도시간 협력 통해 사회적 발전 이루겠다” 오마이건설뉴스, 2014. 11. 20

GSEF, 초대 의장도시로 서울시 선출 동양뉴스통신, 2014. 11. 20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서울뉴스통신, 2014. 11. 20

서울시, 민관협력 ‘사회적경제연대’ 정식 출범 헤럴드경제,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이투데이, 2014. 11. 20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 도시에 서울시 선출 파이낸셜뉴스, 2014. 11. 20

공동의 노력으로 도시문제 해법 찾다 서울일보,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 선출 썬뉴스,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 현대해양, 2014. 11. 21

서울시,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더데일리뉴스,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뉴스온,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케이에스파뉴스,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tbs교통방송, 2014. 11. 20

[전국 패트roller] 서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의장 도시 선정 外 서울경제, 2014. 11. 20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초대 의장도시로 선출 뉴스에이, 2014. 11. 20

Seoul Selected as First Chair City for GSEF tbs교통방송 eFM, 2014. 11. 20

[뉴스파일] 서울시 ‘GSEF’ 초대 의장도시로 선정 국민일보, 2014. 11. 21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연합뉴스, 2014. 11. 19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 포럼 파이낸셜뉴스, 2014. 11. 18

[단신_사진기사]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연합뉴스, 2014. 11. 18

[단신_사진기사]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박원순 시장 연합뉴스, 2014. 11. 18

[단신_사진기사]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개막 연합뉴스, 2014. 11. 18

[단신_사진기사] ‘사회연대경제 강연’ 연합뉴스, 2014. 11. 18

[단신_사진기사]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환영사 연합뉴스, 2014. 1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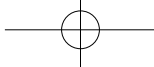
[단신_사진기사]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환영사 연합뉴스, 2014. 11. 18

[단신_사진기사]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환영사 연합뉴스, 2014. 11. 18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개막 뉴스1, 2014. 11. 18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기조연설하는 박원순 시장 뉴스1, 2014. 11. 19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 위한 ‘GSEF 2014’ 중앙일보뉴스, 2014. 11. 18



GSEF 2014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2014. 11. 18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소개하는 박원순 시장 뉴스1, 2014. 11. 18

국내의 사회적경제 전문가들 만난 박원순 시장 뉴스1, 2014. 11. 18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뉴스1, 2014. 11. 18

박원순 ‘파이팅 외칩시다’ 뉴스1, 2014. 11. 18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발전 위한 ‘GSEF 2014’ 뉴스1, 2014. 11. 18

사회적경제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최초 서울에 문연다 한국사정신문, 2014. 11. 19

칼폴라니연구소, 2014. 11. 18

칼폴라니연구소 서울에 등지 내외경제TV, 2014. 11. 18

서울시, 칼폴라니경제연구소 업무협약 불교공뉴스, 2014. 11. 18

경제학 저장 ‘칼폴라니연구소’ 서울 온다 머니투데이, 2014. 11. 18

내년 초 사회적경제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서울 오픈 헤드라인뉴스, 2014. 11. 19

서울시-칼폴라니경제연-연구소설립준비위,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메이커, 2014. 11. 18

서울시-칼폴라니경제연-연구소설립준비위, 업무협약 체결 현대경제, 2014. 11. 18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최초 서울에 등지 서울뉴스통신, 2014. 11. 18

서울시-칼폴라니경제연-연구소설립준비위, 업무협약 체결 뉴스와이어, 2014. 11. 18

서울시-칼폴라니경제연-연구소설립준비위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뉴스통신, 2014. 11. 18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최초 서울에 등지...내년 개소 뉴스1, 2014. 11. 18

서울에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 설립...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 조선비즈, 2014. 11. 18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주제발표 시정일보, 2014. 11. 28

이동진 도봉구청장,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주제발표자 참석

아시아뉴스통신, 2014. 11. 24

이동진 도봉구청장,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서 주제발표

일요신문, 2014. 11. 24

이동진 도봉구청장, ‘GSEF 2014’ 주제발표자 참석 국제뉴스, 2014. 11. 24

이동진 도봉구청장,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주제발표자 참석

여성종합뉴스, 2014. 1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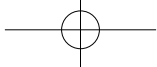
금천구, 금천제조 사진전 개최 헤럴드경제, 2014. 11. 17

금천구, 18~19일 금천제조 사진전 개최 뉴시스, 2014. 11. 17

금천구, 18~19일 시민청서 ‘금천제조 사진전’ 뉴스1, 2014. 11. 17

금천구, 18~19일 시민청서 ‘금천제조 사진전’ 중앙일보뉴스, 2014. 11. 17

금천구, GSEF 2014 연계 「금천제조 사진전」 개최 여성종합뉴스, 2014. 11. 17



봉제산업 재조명 ‘금천제조 사진전’ 개최 수도권일보사, 2014. 11. 17

금천구, GSEF 2014 연계 ‘금천제조 사진전’ 개최 국제뉴스, 2014. 11. 17

봉제장인과 사진예술가의 만남 경양일보, 2014. 11. 17

봉제장인과 사진예술가의 만남 ‘금천제조 사진전’ 신아일보, 2014. 11. 17

우리 구의 경제젓줄을 보다 서울일보, 2014. 11. 17

금천구, GSEF 2014 연계 「금천제조 사진전」 개최 아시아일보, 2014. 11. 17

봉제장인과 사진예술가의 만남 아시아경제, 2014. 11. 17

GSEF 2014 연계 ‘금천제조 사진전’ 개최 수도권보, 2014. 11. 18

금천구 작은 봉제공장들 예술이 되다 시민일보, 2014. 11. 17

혁신도시·민간기관 손잡은 글로벌협의회 나와 아시아경제, 2014. 11. 13

세계기관 60곳 모인 사회적경제협의회 서울서 첫발 연합뉴스, 2014. 11. 13

사회적경제 혁신도시-민간기관 손잡고 글로벌협의회 만든다 시사타임즈, 2014. 11. 13

서울시 주도로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만든다 헤럴드경제, 2014. 11. 13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기념포럼 개최 한국NGO신문, 2014. 11. 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총회 17~19일 서울서 개최 매일노동뉴스, 2014. 11. 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서울서 창립총회 열려 아시아투데이뉴스, 2014. 11. 13

혁신도시-민간기관 손잡고 글로벌협의회 개최 서울뉴스통신, 2014. 11. 13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서울시 주도 만든다 동양뉴스통신, 2014. 11. 13

서울시 주도 글로벌 사회적경제협의회 출범 뉴시스, 2014. 11. 13

전세계 사회적경제 트렌드 한눈에...‘글로벌협의회’ 출범 뉴스1, 2014. 11. 13

전세계 사회적경제 트렌드 한눈에...‘글로벌협의회’ 출범 중앙일보뉴스, 2014. 11. 13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총회 불교공뉴스, 2014. 11. 13

서울시 주도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출범 머니투데이, 2014. 11. 13

세계기관 60곳 모인 사회적경제협의회 서울서 첫발 매일경제, 2014.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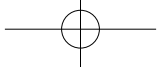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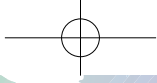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혁신도시-민간기관 손잡고 글로벌협의회 만든다 환경법률신문, 2014.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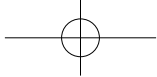
서울,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GSEF)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개최
중국동포신문, 2014. 11. 13

[뉴스파일] 서울시,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포럼 국민일보, 2014. 11. 14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17~19일 열려 한겨레, 2014. 11. 09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 위한 ‘GSEF 2014’ 개최 프라임경제, 2014.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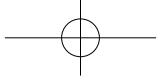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IV

GSEF 2014 평가 및 후속조치





01 GSEF 2014 평가



1. GSEF 2014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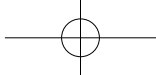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1 |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이하 GSEF 2014)에 참석한 13개국 18개 도시 지방정부들과 18개국 43개 민간조직들은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GSEF 2013의 「서울선언」 정신을 계승한 「GSEF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연대기구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를 발족하기로 결정하였고, 초대 의장도시로 서울시와 서울의 사회적경제 민간조직이 선정되었다.

이 국제협의체는 전지구적 위기 상황과 각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경제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온 지방정부와 민간이 상호 학습 및 발전할 수 있는 교류 플랫폼이다. 또한 지역의 문제가 곧 세계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폭넓은 국제연대의 장이 될 것이다.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헌장에는 본 협의체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전세계 민과 관이 협력하여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본 총회에는 ILO^{국제노동기구}, UNRISD^{유엔사회개발연구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UN기관 사회연대경제 특별전담반에 속해 있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구들이 참여하여 향후 GSEF와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사회적경제 국제네트워크인 RIPESS^{사회연대경제 진흥 대륙간 네트워크}, 사회연대경제 기업가들이 모여 만든 MBM^{몽블랑미팅}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GSEF발족을 환영하였다.



GSEF 2014 참여 도시 및 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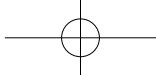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 **참여 도시** : 13개국 18개 도시
(퀘벡,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바스크주정부, 람베스구청, 가와사키, 세타가야구, 교탄고시, 홍콩, 서울)
- **참여 단체** : 18개국 43개 단체
(상티에, 칼폴라니연구소, 몬드라곤대학교, 로컬리티, SIX, 유럽사회적기업연합, 영국협동조합대학, 불룸버그어소시에이츠 등)
- **국제기구** : UNRISD, OECD LEED, ILO

2 | 국내외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GSEF 2014는 행사의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GSEF 준비 서울조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와 서울의 사회적경제 민간단체가 함께 만들어간 행사였다. 서울시장과 서울조직위원장이 공동의 조직 위원장으로 서울의 민간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창립총회준비 사무국으로 기능하였다.

GSEF 2014 개최를 위해 GSEF 2013에 참여하여 서울선언의 정신 즉 “사회적경제가 사회혁신과 참여민주주의의 사회적·경제적 토대”라는 것에 합의한 8개 도시와 9개 민간단체로 글로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GSEF 2014의 주제와 현장초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 및 반영해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본 행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몸소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참가자 기념품 구매, 초청, 현장운영 등 사용된 전체 예산의 약 40% 정도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집행되었다.



3 | 아시아 사회적경제 허브로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유치

세계적 사회적경제 연구기관인 칼폴라니연구소의 아시아지부를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서울이 아시아 사회적경제 연구 및 실행의 허브로 굳게 자리잡도록 했다.

앞으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KPIA, Karl Polanyi Institute Asia}는 칼 폴라니 사상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서울을 세계적인 사회적경제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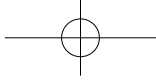
4 | '세계 사회적경제 수도, 서울'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GSEF 2014는 창립총회와 기념포럼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조직이 당면 과제를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들의 일상적인 국제협력과 교류에 대한 동기부여 및 촉진으로 평가된다.

교육, 청년, 도시농업, 공정무역, 벤처자선, 환경, 윤리적 패션, 도시재생, 사회적금융, 사회혁신, 공유경제, 지역화 전략,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연대 등을 주제로 총 23개 세션이 진행되었고 각자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향후 협력 과제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시와 영상 상영을 비롯해 사진전, 협동을 테마로 한 게임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일반 시민들도 사회적경제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약 4,000명의 인원이 3일 간의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아시아 사회적경제 정책대화에서는 아시아국가 사회적경제 정책담당자와 사회적경제 협의체 대표들이 모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를 논의했고 향후에도 GSEF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02 후속 조치



2014 GSEF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GSEF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를 세우는 일과, 해외 도시 및 단체들과의 GSEF 네트워크를 다지는 일이었다. 회의의 방식은 이메일을 통한 토론 및 의사결정으로 하되, 필요시 화상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의의 참가자는 의장도시 공동의장(박원순 서울시장, 송경용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과 차기 개최도시 민관 대표(몬트리올 시장, 몬트리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대표), 글로벌 자문기관 소속 도시 및 민간단체 중 희망 주체 등 약 10여 주체로 하였다.

1. 정식 운영위원회 구성

정식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GSEF 헌장」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의장도시, 공동의장 및 운영위원회

7.1. GSEF는 의장도시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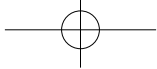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7.2. 의장도시와 공동의장

1) 의장都市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의장都市의 지방정부 대표와 의장도시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들 사이에서 선출된 대표가 GSEF 공동의장을 맡는다.

2) 의장은 GSEF를 대표하고 GSEF 총회를 주재한다.

3) 의장도시와 공동의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4) 의장도시 후보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사무국에 문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무국은 모든 회원들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7.3. 운영위원회의 구성

- 1)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운영위원, 차기 총회 개최 지방정부의 대표 2명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 2)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광범위한 지리적 대표, 그리고 지방 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 비율에 맞게 사무국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 사무국에 문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4) 운영위원 선출 시에는 지방정부회원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며 다양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7.4.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며 GSEF 사업의 집행, 회원가입의 검토, 총회 개최도시 심의, 회계의 감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사무국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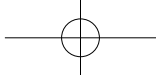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사무국 구성에 관한 현장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사무국

8.1. 사무국

- 1) 공동의장은 GSEF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 2) GSEF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 3) 사무국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집행하고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에 관해총회와 기타 회의를 지원해야 한다.
- 4)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GSEF에서 부담하며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 소재 도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할 수 있고, 사무국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2. 특별 분과 :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 특별 분과를 두고 운영할 수 있



다.

9.1. GSEF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원의 등록비 및 연회비

- 등록비 : GSEF 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등록비를 납부한다.

- 연회비 :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유형, 규모, 재정능력에 따라 회원의 연회비를 결정하며 회원의 경제·금융적 어려움 등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회비를 면제, 경감 및 지불방법 대체를 결정할 수 있다.

2) GSEF 회원 포함 각 지방정부, 국제기구 및 인가 받은 민간기구에서 출자한 공동사업자금

3) 특별기부금 : 회원들 혹은 비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4) 출판물 판매, 행사참가비 및 각종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

5) 비재정적 형태의 기부금

3. 회원 규정 확정

회원 가입 방식 및 서류에 관한 현장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회원

3.1. 원칙적으로, GSEF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 회원

3.2.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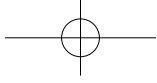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1) 정회원은 지방정부 회원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지방정부 회원은 개별 모든 지방자치단체·정부와 전국·지역 단위 지방정부 연합체·협의체에게 열려있다.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은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국가·대륙·대륙 간·국제 네트워크들(중간지원조직 및 협의체 등)에게 열려있다.

3.3. 준회원

준회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으로 GSEF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조직에게 열려 있다.



3.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GSEF의 활동이나 사회적경제의 분야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며, 명예회원은 GSEF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그 자격이 수여된다.

제4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4.1. 가입 :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총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4. 회비 규정 확정

회원의 회비에 대한 규정을 확정하기 위한 초안은 다음과 같다.

1 | 지방정부 회원 회비안 -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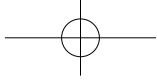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단위: 미화 USD)

Population('000) GDP Per capita (USD)	0~299	300~599	600~999	1,000~1,999	2,000~3,999	4,000~6,999	7,000~9,999	10,000~
0~999	200		300		400		500	
1,000~1,999	300		400		500		600	
2,000~5,999	400		500		600		700	
6,000~9,999	1,500	1,800	2,000	2,200	2,500	2,800	3,000	3,500
10,000~14,999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8,000
1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2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 회비안 - 정회원

(단위: 미화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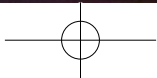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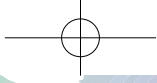
Population('000) GDP Per capita (USD)	0~299	300~599	600~999	1,000~1,999	2,000~3,999	4,000~6,999	7,000~9,999	10,000~
0~999	50		60		80		100	
1,000~1,999	60		80		100		120	
2,000~5,999	80		100		120		150	
6,000~9,999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10,000~14,999	900	1000	1,200	1,500	1,800	2,000	2,200	2,500
15,000~	1,200	1,500	1,800	2,000	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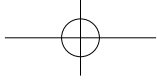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3. 준회원 회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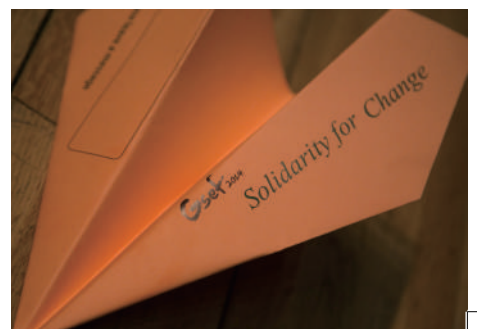
(단위: 미화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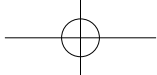
Population('000) GDPPer capita (USD)	0~299	300~599	600~999	1,000~1,999	2,000~3,999	4,000~6,999	7,000~9,999	10,000~
0~999	20		30		40		50	
1,000~1,999	30		40		50		60	
2,000~5,999	40		50		60		70	
6,000~9,999	150	1800	200	220	250	280	300	350
10,000~14,999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15,000~	600	700	800	900	1000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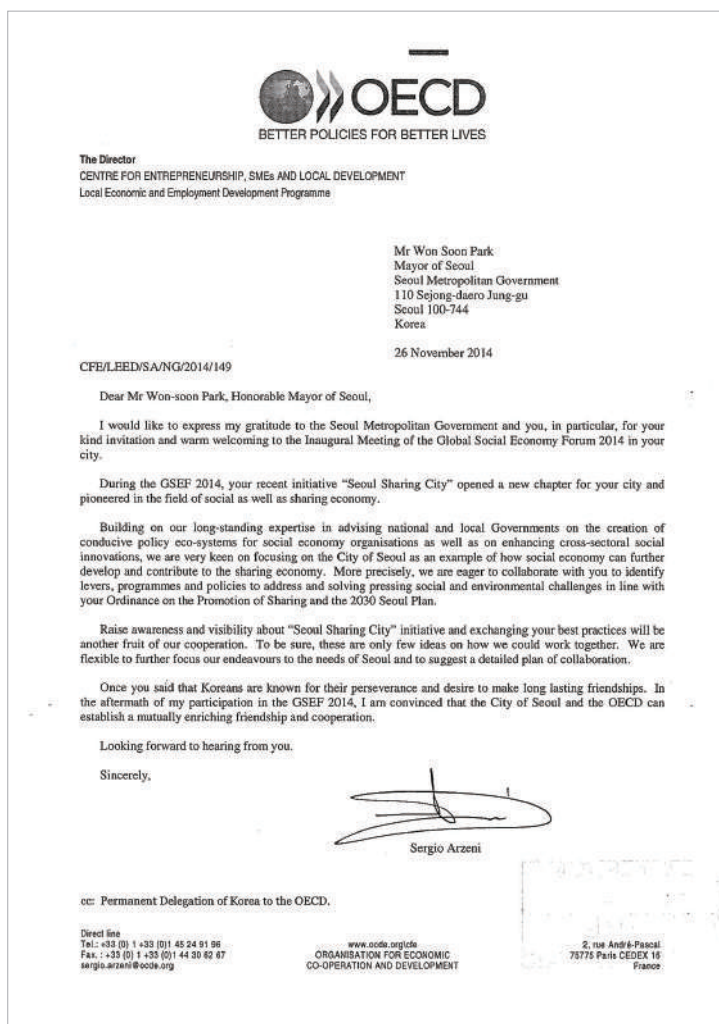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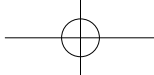


1. 행사 후 감사레터



OECD 감사레터





가와사키 감사레터

December 1, 2014

The Honorable Won Soon PARK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Dear Mayor Park,

I would like to cordially congratulate you on your success of GSEF2014 which was held from Nov. 17 to 19.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you for your kind hospitality extended to us, the officials of the City of Kawasaki, as well as NPOs and members of the social enterprises. In particular, it was our greatest pleasure to be invited to your office and provided an opportunity to closely talk with you. We will treasure this memory for a long time to come.

By participating in GSEF2014, I was able to recognize that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in many parts of the world to realize the social economy. At the same time, I came to know that there are various local governments, NPOs/NGOs,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 associations in the world, which have been pursuing efforts for realizing social justice.

We, the officials of the City of Kawasaki, understand that "local issues are directly related to global issues." Accordingly, we believe that measures to solve local issues are linked to measures to solve global issues. GSEF2014 made this belief even stronger.

I am expecting that global networks to realize the social economy will combine together and strengthen the "linkage" among them in the future. The City of Kawasaki would also like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Lastly, I wish you good health and success, as well as further development of Seoul City.

Sincerely yours,

Atsushi Miura
Deputy Mayor of the City of Kawasaki

대만 감사레터



Ministry of Labor
8F., No. 83, Sec. 2, Yanping N. Rd.
Datong District, Taipei City 10346
R.O.C. (Taiwan)

Mr. Won Soon Park
May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December 2, 2014

Dear Mayor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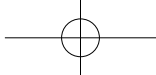
Thank you for having invited me to your Asia Policy Dialogue on Social Economy and Global Social Economy Forum 2014, GSEF. I felt especially honored at your generous arrangements and hospitality during my visit, no doubt making this a memorable event where not only was I able to have invaluable exchanges with representatives from around the world, but also a wonderful opportunity to see Seoul.

I was, in particular, elated and deeply impacted by the fervent discussions that were exchanged at the Asia Policy Dialogue on Social Economy regarding current and future social economic planning, and the understanding that no one is alone on this road to new global economy. That being said, innovative ideas being shared by many countries at the November 19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proved that integrated effort is the key to developing a social economy.

I am privileg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forum to open new visions to future social economic development, and to form new friendships with many economic partners. Social economy is an issue that Taiwan also values. We are open to new ideas and take initiative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social economic affairs. I sincerely look forward to inviting you to Taiwan shall opportunity arise, for exchanges on our multifaceted and unique social economical development and to create new economic cooperation models together.

Sincerely yours,

HAO Feng-ming
Deputy Minister
Ministry of Labor, R.O.C.



몬트리올 감사레터



Le Maire de Montréal

Le 12 décembre 2014

Monsieur Park Won-soon
Maire
Gouvernement métropolitain de Séoul
100, Sejong-daero, Jung-gu
Séoul
République de Corée

Monsieur le Maire et cher collègue,

Je suis très heureux du succès qu'a connu le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2014, qui s'est tenu dans votre métropole du 17 au 19 novembre derniers, et je vous en félicite. En effet, plus de 1 200 délégués provenant de 28 pays ont participé à cet important événement. Les échanges entre les spécialistes de différents pays permettront certainement des collaborations fructueuses.

Madame Chantal Rouleau, membre du comité exécutif de la Ville, qui a eu le plaisir de représenter Montréal au GSEF 2014 et de faire votre connaissance, m'a rapporté qu'elle avait beaucoup apprécié son expérience. Elle m'a également informé que la conférence avait été des plus enrichissantes et productives.

Je suis heureux que cette deuxième édition du forum ait notamment été l'occasion d'adopter la Charte du *Global Social Economy Forum*. L'adoption de cette charte jette ainsi les bases d'une organisation internationale visant l'échange des meilleures pratiques entre les différents acteurs de l'économie sociale afin, entre autres choses, de créer des emplois et une croissance économique équitable et durable. Cette organisation sera des plus utiles afin de contribuer à réduire les inégalités soci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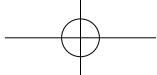
Je me réjouis également que les organisations participantes aient accepté à l'unanimité la candidature de Montréal pour la tenue de la troisième édition du GSEF. La Ville de Montréal se met donc à l'œuvre dès maintenant pour faire du GSEF 2016 un succès et un événement de haute qualité, comme ceux que vous avez organisés à Séoul au cours des deux dernières années.

En espérant avoir le plaisir de vous voir dans un proche avenir, je vous prie d'agréer, Monsieur le Maire, l'expression de mes sentiments les plus respectueux.



L'honorable Denis Coderre

Hôtel de ville, 275, rue Notre-Dame Est, Montréal (Québec) H2Y 1C6 CANADA
Téléphone : 514 872-3101 Télécopieur : 514 872-4059 maire@ville.montreal.qc.ca



2. GSEF 헌장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헌장

2014년 11월 19일, 서울

전문

오늘날 세계는 경제위기와 생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란 신뢰와 협동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공동체적 연대를 달성하는 경제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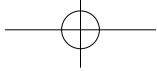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2013년 11월 5일 채택된 ‘서울선언’은 이러한 정신을 요약하고 있다. 2014년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체계적 발전과 세계적 규모의 연대를 위하여 GSEF의 헌장을 채택하려고 한다.

제1장 총론

제1조 우리의 정체성

1.1 사회적경제 국제연대를 위해 우리는 비영리 국제조직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 이하 GSEF)를 설립한다.

1.2 사회적경제는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연대의 가치를 달성하는 경제이며 지역공동체는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1.3 사회적경제의 주요 주체는 협동조합·공동체기업·사회적기업·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이며, 자선단체와 사회투자부문 역시 사회적경제에 속한다.

1.4 GSEF는 국가·인종·종교·성(性) 등 모든 차원의 차별과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1.5 GSEF는 다원적 발전을 지향한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다원성, 사회경제 조직들의 다원성, 거시경제적 목표의 다원성, 정치적 지향의 다원성을 인정하며 이들 다원성을 조화시키는 발전을 추구한다.

1.6 특히 GSEF는 풀뿌리 조직들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정책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조 우리의 비전, 임무, 그리고 목표

2.1 비전 : GSEF는 시장경제·공공경제·사회적경제 및 생태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발전이야말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연대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GSEF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이다.

2.2 임무 : GSEF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성장(fair growth),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의 지속가능성은 GSEF의 모든 활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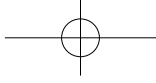
GSEF는 공유자원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이들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사용을 촉진한다.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리인 신뢰와 협동은 각종 공유지를 되찾기 위한 열쇠이다.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지식·역사 자원 등 모든 공유자원은 GSEF 활동의 중요한 대상이다.

2.3. 목표

1) GSEF는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GSEF는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GSEF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협의체와 지원조직을 형성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이 조직들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4) GSEF는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감하며 빈곤국가의 경제·사회·문화·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의 국제연대와 협력을 추진한다.

5) GSEF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와 양립가능한 전 세계 다양한 운동들을 지원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행동을 추진한다.

6) GSEF는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3.1 원칙적으로, GSEF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정회원
- 2) 준회원
- 3) 명예 회원

3.2. 정회원

1) 정회원은 지방정부 회원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지방정부 회원은 개별 모든 지방자치단체·정부와 전국 및 지역 단위 지방정부 연합체·협의체에게 열려 있다.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은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국가·대륙·대륙 간·국제 네트워크들(중간지원조직 및 협의체 등)에게 열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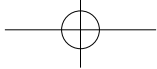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3.3 준회원

준회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으로 GSEF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조직에게 열려 있다.

3.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GSEF의 활동이나 사회적경제의 분야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며, 명예회원은 GSEF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그 자격이 수여된다.

제4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4.1 가입 :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총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4.2 탈퇴 : 회원은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절차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4.3 경고 및 자격 정지 : GSEF 운영위원회는 회원이 GSEF 헌장을 훼손하거나, GSEF가 추구하는 비전과 임무·목표·GSEF헌장을 위해 또는 위반하는 태도를 나타내거나 결과를 만든 것이 공식적으로 인지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경고 또는 회원자격 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고 또는 자격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연대

5.1 권리

1) 모든 회원은 GSEF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GSEF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자료·기록 등에 접근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원 자신의 발전과 공동 목적의 실현을 위해 GSEF의 새로운 과업 및 회원들 간 구체적인 연대와 협력을 제안할 수 있고, 총회 및 대륙별 대화 등 GSEF 내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GSEF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원규정에 따라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2 연대

1) GSEF의 모든 회원은 GSEF가 추진하는 과업과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2) 회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확장에 필요한 자신들의 경험·지식·정보를 GSEF 회원 간 지속적으로 나누는 등 회원 상호 교류를 위해 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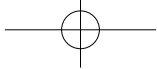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3) 회원은 적절한 수준에서 연회비를 납부하여 GSEF의 재정자립화에 기여하면서 모든 회원들이 사회적경제 가치에 따라 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조직

GSEF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를 가진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사무국

제6조 총회

6.1 총회 : 총회는 GSEF 회원이 임명한 대표들로 구성되며 GSEF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GSEF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2) GSEF 회원의 이익에 관한 사항
- 3) 의장도시 및 운영위원 선출
- 4) 차기 총회 개최도시의 선정
- 5) 현장의 수정
- 6) 조직의 해산
- 7) 그 밖에 GSEF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2 총회의 관리

1) GSEF 해산과 GSEF 현장 수정을 제외한 총회의 결정은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출석한 정회원의 다수결 찬성에 의해 내려진다.

6.3 총회의 개최

- 1)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개최지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2) 차기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는 이전 총회 개최시기 90일 전까지 유치제안서와 지방정부 대표의 공식 서한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 3) 차기 총회 개최가 결정된 지역의 지방정부는 민관공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일 1년 전까지 사무국에 총회 추진계획서를 제출한다.
- 4) 정기총회는 개최지역의 지방정부에서 모든 사항을 준비하며 사무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총회를 준비한다.
- 5)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전체 위원수 2/3의 동의를 얻어 개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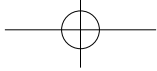
6.4 현장의 수정

현장 수정은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6.5 GSEF의 해산

- 1) GSEF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7조 의장도시, 공동의장 및 운영위원회



7.1 GSEF는 의장도시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7.2 의장도시와 공동의장

1) 의장都市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의장都市의 지방정부 대표와 의장都市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들 사이에서 선출된 대표가 GSEF 공동의장을 맡는다.

2) 의장은 GSEF를 대표하고 GSEF 총회를 주재한다.

3) 의장都市와 공동의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4) 의장都市 후보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사무국에 문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무국은 모든 회원들에게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7.3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운영위원, 차기 총회 개최 지방정부의 대표 2명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에 출마하고자하는 회원은 광범위한 지리적 대표, 그리고 지방 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 비율에 맞게 사무국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 사무국에 문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4) 운영위원 선출 시에는 지방정부회원과 사회적경제네트워크회원이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며 다양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7.4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며 GSEF 사업의 집행, 회원가입의 검토, 총회 개최도시 심의, 회계의 감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8조 사무국

8.1 사무국

1) 공동의장은 GSEF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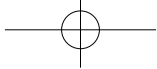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2) GSEF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3) 사무국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모든 결정 사항을 집행하고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에 관해총회와 기타 회의를 지원해야 한다.

4)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GSEF에서 부담하며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 소재 도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할 수 있고, 사무국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2 특별 분과 :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 특별 분과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9조 재원

9.1 GSEF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원의 등록비 및 연회비

- 등록비 : GSEF 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등록비를 납부한다.

- 연회비 :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유형·규모·재정능력에 따라 회원의 연회비를 결정하며 회원의 경제적·금융적 어려움 등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회비를 면제·경감 및 지불방법 대체를 결정할 수 있다.

2) GSEF 회원 포함 각 지방정부, 국제기구 및 인가 받은 민간기구에서 출자한 공동사업자금

3) 특별기부금 : 회원들 혹은 비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4) 출판물 판매, 행사참가비 및 각종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

5) 비재정적 형태의 기부금

제10조 지출

10.1 운영경비 : 사무국 운영경비, 임시총회 운영경비, 기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비용 등 GSEF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GSEF가 부담한다.

10.2 사업경비 : GSEF의 사업 중 특정 지방정부에서 제안한 사업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경비를 해당 사업을 제안한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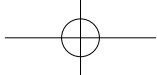
10.3 정기총회 개최비용 : 정기총회의 개최비용은 개최지역의 지방정부에서 준비한다.

10.4 기금 : GSEF는 각 지역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0.5 GSEF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이 제출하는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필요 시 공인 감사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11.1 이 현장은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즉시 발효된다.



3. GSEF 헌장 준비회의 자료

* 이 자료는 GSEF 서울조직위원회가 준비한 GSEF 헌장(안)에 대하여 회원 도시 및 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창립총회 준비회의의 토론토론자료로 쓰인 것임.

The GSEF Charter Draft

for discussion only

October 8, 2014, Seoul

TABLE OF CONTENTS

Preamble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Our Identity

Article 2. Our vision, missions and projects

Chapter 2. Membership

Article 3. Membership Categories

Article 4. Registration and Withdrawal of Membership

Article 5. Rights and Solidarity of Members

Chapter 3. Organizational Structure

Article 6. General Assembly

Article 7. Chair City, Co-Chair and Steering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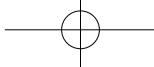
Article 8. Secretariat

Chapter 4. Financing

Article 9. Source of Revenue

Article 10. Expenses

Chapter 5. Supplementary Provision



PREAMBLE

Our world today has yet to recover from the economic crisis and the ecological crisis. To overcome such global challenges, we believe that creating a ‘better world’ and ‘better life’ through social economy is essential. Social economy refers to a form of economy that seeks to solve the present issues through trust and cooperation and forge communal solidarity.

‘Seoul Declaration’ adopted on the 5th of November, 2013 summarizes the spirit mentioned above. This year, we take a step further to adopt the Chapter of the GSEF for the systematic progress and global solidarity of social economy.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Our Identity

1.1. For the global solidarity of social economy, we establish the Global Social Economy Forum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GSEF”), as a non-prof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1.2. Social economy achieves the value of solidarity through trust and cooperation and the local community is its most fundamental foundation.

1.3. The main subjects of the social economy are cooperatives, village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s, credit unions, micro union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et cetera. Charities and social investment fields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

© Karl Polanyi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
The word ‘micro unions’ should be clarified or corrected.

© UNLTD UK
(GLOBAL SOCIAL ENTREPRENEURSHIP NETWORK)
There are very different views on the scope of the social economy, and very different legal situations and starting points across countries. We would urge that all activity which is committed to social benefit should be included. That would add voluntary action by individuals and groups on the one side, and profit with purpose businesses on the other side.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fit with purpose businesses, see <http://socialimpactinvestment.org/reports/Mission%20Alignment%20WG%20paper%20FINAL.pdf>
I also think this broad view fits 1.5 much better.

1.4. The GSEF does not acknowledge the discrimination and injustice of all kinds towards nationality, race, religion and gender.

1.5. The GSEF aims for the multi-dimensional progress. We acknowledge the pluralism of human natur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macroscopic and political aims. We pursue progress that harmonizes such pluralism.

1.6. In particular, the GSEF values the autonomy of grassroots organiz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is value, we believe it is essential to complement the policies of both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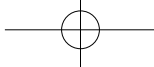
Article 2. Our vision, missions and projects

2.1. Vision : the GSEF aims for the harmonious progress of market economy, public economy (government), social economy (community) and ecology in general. Such progress will make the best use of an individual’s ability and 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solidarity among social economy subjects. Therefore, the GSEF serves as a global solidarity to achieve these go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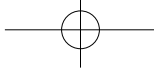
© MONTR AL
Values should be included in 2.1 VISION. Those values are part of a shared vision.

2.2. Missions :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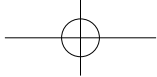
© KARL POLANYI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
2.2 I, of course, share the priority given to social services s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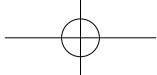
<p>GSEF pursues creation of quality jobs, fair growth, progress of grassroots democra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nd sustainable ecology are to be the underlying principles for every activity of the GSEF. In particular, the GSEF values the fields of social service such as care service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medical treatment and education.</p> <p>The GSEF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shared resources and promotes the fair approach and use of such resources. The key to solving “the tragedy of commons” are trust and cooperation, which are the fundamentals for social economy. Ecosystem, culture, knowledge and historical resources of all local communities are all important objectives of the GSEF’s activities.</p>	<p>as care service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medical treatment and education. However, I would place this in a broader framework to include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by social economy organizations/enterprises, so as not to run the risk of associating the social economy exclusively with service provision, which is often the case. I know this is not so for the GSEF but as this Charter should embrace the breadth of the social economy, it should reinforce the inclusiveness of the social economy to include all sectors, especially services. This is extremely important both to account for the significant presence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production of goods in all countries but also to avoid the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economy. Moreover, what we hope to achieve is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with respect to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not run the risk of placing the entire responsibility for these services o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education and medical treatment, which are public goods. Indeed, solidarity cooperatives in health care are demonstrating their capacity to provide excellent medical services but these often exist alongside public provision of general health care and are complementary. The same holds true for education, which, in many countries, remains public. My concern is that this article 2.2 will not highlight the many sectors that are "new" and are in the social economy and are attracting many young people who wish to work collectively in cooperatives and/or non-profit social enterprises.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food sector, social/environmental tourism, in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Culture, Recycling, to name but a few. And this is true in more traditional sectors as well, including housing and finance, manufacturing. And so on.....</p> <p>Further along in Article 2.2, there is reference to "the tragedy of the commons" and the need to solve this.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hat this argument by Hardin is invalid and that it was a hypothesis which assumed that a commons would include many free riders and a host of inefficiencies - thus the "tragedy". This is not corroborated by the reality of the "commons" that provides a totally contrasting image. So we don't need to solve the tragedy of the commons; we need to "reclaim" the commons; we need to engage with the growing movement of the commons and with the "cooperative commons" that is at the heart of the social economy.</p> <p>© GRAMEEN TELECOM TRUST</p> <p>Senior Citizens should be included.</p> <p>GSEF should also focus on NGO. In some cases, Development of SE emerged as a linkage with NGO grassroot activities.</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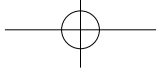
	<p>And, also the Social Business Concept, pioneered by the Nobel Laureate Professor Muhammad Yunus, which emphasizes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 model. And, last but not the least, GSEF should not waste time in reinventing wheels, rather try to add value, coordinate, network in a cost effective way.</p> <p>© LOCALITY Agreed with Karl Polanyi Institute's comments</p> <p>© UNLTD UK (GLOBAL SOCIAL ENTREPRENEURSHIP NETWORK) It is important for a new initiative to add genuinely new value. There are already international networks in many parts of the social economy - from agencies like AVPN and EVPA, GIIN, the Social Innovation Exchange, and our own work on GSEN. The specific value of the GSEF initiative is that it brings together all these networks into a whole-system approach. If it started to compete with the specific networks, it would lose support, and also lose the really unique value it could bring.</p> <p>© MONTR AL We should not limit social economy to "social service, and ...etc". I agree with Mendell's comment.</p>
2.3. Projects : the GSEF promotes the following projects continuously :	© MONTR AL The GSEF promotes both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and sharing of exchanges among the main global actors of social economy.
1) The GSEF promotes both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and sharing of exchanges among the main global actors of social economy. To this end, GSEF will establish on/offline platform and create diverse programs to activate the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This should be moved to MISSION.
2) The GSEF supports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agents to create a stable social economy network through the public-private-community partnership.	© MONTR AL THIS SHOULD BE MOVED TO MISSION.
3) The GSEF supports every effort to form social economy associations and social economy supporting bodies in each region. Through these organizations, the GSEF promotes various joint projects to spread the ecology of social economy on a global scale.	© UNLTD UN (GLOBAL SOCIAL ENTREPRENEURSHIP NETWORK) I agree with this, but believe it should also support efforts to form social economy associations and supporting bodies in themes, as well as regions. That might include thematic work such as social entrepreneurship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sectors of the social economy such as venture philanthropy (eg AVPN), impact metrics (such as GIIN), and start up support (such as the Global Social Entrepreneurship Network).
	© AVPN Regarding point 2,3.3) The GSEF supports every effort to form social economy associations and social economy suppor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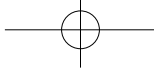
	<p>bodies in each region. Through these organizations, the GSEF promotes various joint projects to spread the ecology of social economy on a global scale.</p> <p>We are in a unique position with a number of regional and thematic associations participating in GSEF 2014. It will be of great value therefore for GSEF to provide a umbrella structure that helps to increase the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within and among these different existing platforms rather than focus on creating several new entities that would be duplicating efforts using scarce resources.</p> <p>© MONTR AL The GSEF supports every effort to form social economy associations and social economy supporting bodies in each region. This should be moved to MISSION.</p>
4) The GSEF acknowledges the responsibility towards supporting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suffer from poverty and serious underdevelopment, thereby promoting glob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ocial economy to enhance the environment,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ose countries.	<p>© MONTR AL This should be moved to MISSION.</p>
5) The GSEF supports various global movement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 social value we uphold and furthermore promotes group actions along with these movements to solve problems that the humanity confronts.	<p>© MONTR AL This should be moved to VISION.</p>
6) The GSEF may set up a fund to support social economy when necessary.	<p>© BASQUE COUNTRY GOVERNMENT - It also says that the GSEF may set up a fund to support social economy when necessary. However, in the documents budget or amount of fees are not reflected, and we would like to have an idea of the amounts to consider our membership.</p> <p>© LOCALITY On a practical level it would be useful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types of projects envisaged especially under 2,3,6.</p> <p>© MONTR AL PROJECT or MISSIO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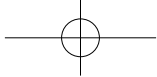
CHAPTER 2. MEMBERSHIP <u>Article 3. Membership Categories</u>	© GRAMEEN TELECOM TRUST In Article 3, membership categories needs to be revisited and should be more precise.
3.1. Membership of the GSEF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Full Member 2) Associate Member 3) Honorary Member	
3.2. Full Member 1) Full member is consisted of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economy network members. A full member possesses the voting right and is eligible to run for election.	<p>© UNLTD UK (GLOBAL SOCIAL ENTREPRENEURSHIP NETWORK)</p> <p>1) Full Member My view would be that full membership should be available to social economy organisations. Local governments are very important, but are in a different category.</p> <p>© LOCALITY Cliff(UnLtd UK) has made some very useful points and has very valuable experience to contribute. However, I disagree that full membership should be reserved for only social economy organisations. I think that the strength of this Forum is the collaboration between Local (and other) Government and social economy organisations for a shared purpose. We know that people can do remarkable things when they come together to solve their problems collectively. We have some excellent examples from the UK of how local government and social organisations can work together to support/enable this happen. I have also seen inspiring examples in Seoul from previous visits and there will be thousands more from around the network. Conversely we will all have seen the lost opportunities when organisations work separately and don't consider their impact on each other I would therefore urge that full membership of the Forum is open to both public and social organisations.</p> <p>© MONTR AL 3,2 Full Member The specificity and originality of this forum relies in its capacity to combine local governments and actors of the civil societ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is "joint venture" for social economy. I agree with Blake's comment.</p> <p>© SOCIAL ENTERPRISE EUROPE LTD. In truth I am not too comfortable with organisations that are built on a paid membership model. I have been and am on the Board of a number of these at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I see that model in declin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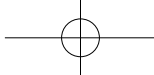
	<p>This is largely due to the increase of use of social media and many of these organisations have conceded that paid membership is declining but their power now lies in growing engagement through social media. Perhaps this is more the social enterprise way. Similarly the idea of organisations representing social enterprise nationally is one that has increasing problems.</p> <p>I certainly have been interested in such organisations as SOCAP (Social Capital) that relies entirely social media to involve thousands in virtual dialogue. I have been a speaker from my front room on one of their virtual conferences and find that they are able to communicate our work faster and wider than through the network organisations we subscribe to.</p> <p>My own organisation has Active Directors based in several countries and two continents (our definition of Europe has become a global one). We are starting to use new tools like Loomio - which allows for open on line discussion and decision making so the organisation itself has become more process than structure orientated. And we can involve many others. Using Loomio we carried out an international discussion that led to the agreement of publishing the first novel on social enterprise "The Dragon's Apprentice". That novel is already recording record sales around the world hours after its launch this week</p> <p>Which brings me to another point, that because social enterprise is independant of the other sectors - it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being able to challenge the traditional models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I believe this to be an essential part of a new social economy and in the session I will be running on Monday I will be using a Finnish tool called OPERA that typifies the new type of governance emerging from the social enterprise and to some extent cooperative and Mutual sector.</p> <p>In terms of what is the social economy I look at my own organisation's attempt to come to a working definition of social enterprise following a recent global consultation. We determine that social enterprise is a verb that has three components:</p> <p>Social objectives - (creating goods and services that help us take care of each other)</p> <p>Values and ethics - (asking ourselves what sort of world do want to live in and embedding that in our work)</p> <p>Socialisation - (that in all aspects of ownership/ working - including that of information we should look to spread that ownership on a fair and accessible basis) I think for me this is also how I look at a social economy. In terms of our practice in Social Enterprise Europe Ltd we have</p>
--	--



	<p>built and are building a small global network based on Social Licence Agreements. These are agreements that first agree the common values and objectives and then agree to share resources to achieve those objectives. There is no superior partner in these agreements and I think it offers a better alternative to Social Franchising where ideas are owned and sold not shared and nourished.</p> <p>We also this year launched the FairShares Model and set up the FairShares Association. The FairShares model is based on our value that everyone who creates wealth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ownership and decision making relating to that wealth not just the capitalist.</p> <p>So in our FairShares model the investor, the worker, the volunteer, the consumer and even the supporting community can all be allocated shares as they contribute to the creating of the wealth. I think these new models are important to the new social economy and are an important part of it.</p>
2) Local government membership is open to every local autonomous entity, government, and both local and national level associations.	
3) Social economy network membership is open to all the networks of regions, nations, continents and the globe, that are working in various fields of social economy including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p>© BANGLADESH BANK</p> <p>My one apprehension about the charter as drafted is that it may be paying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need of forging SE networks at country level as elements of an enduring network at the global level. In absence of well-knit SE networking at the national level, participation and engagements of individual SEs in the global network will risk being sporadic and transient. I would therefore suggest that the authors consider suitable redrafting of relevant sections of the charter, perhaps specifying one full membership in the GSEF for one SE in key networking role in each country, with associate membership for other SEs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GSEF.</p> <p>Best wishes,</p> <p>© MONTR AL</p> <p>2) Local government membership is open to every local autonomous entity, government, and both local and national level associations.</p> <p>3) Social economy network membership is open to all the networks of, etc...</p> <p>Better to be presented as categorized 'DEFINITION'</p>
3.3. Associate Member : Associate membership is open to every social economy-related organization wishing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SEF's activities.	
3.4. Honorary Member : Honorary membership is given to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that has made notable contribution to diverse social economy sectors and the GSEF activities. An honorary membership shall be nominated by the GSEF Steering Committee and be acknowledged by the General Assembly.	



<u>Article 4. Registration and Withdrawal of Membership</u>	
4.1. Registration : Member registration is reviewed by the GSEF Steering Committee and decid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GSEF and the concrete registration procedure is decided by a separate clause.	
4.2. Withdrawal : A member may withdraw its membership by informing the GSEF Secretariat in a written format. Withdrawal procedures are stated in a separate clause.	
4.3. Warning and Disqualification : The GSEF Steering Committee may take the necessary steps to decide the process of disqualification if a member is harming or contracting the Purpose, Missions, Vision and the Charter of the GSEF. The GSEF Steering Committee shall go through the designated formalities to disqualify the member.	
<u>Article 5. Rights and Solidarity of a Member</u>	
5.1. Rights	
1) Every member can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nd programs of the GSEF. They can also gain access to every information, resource and record related to the GSEF.	
2) To pursue individual development and achieve common goals, a member can suggest specific ways to consolidate solidarity and cooperation. Each member can also set forth its view through diverse communication channels in the GSEF, and fully exercise its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ithin the GSEF.	
5.2. Solidarity	
1) Every member supports and bands together for the tasks and programs promoted by the GSEF.	
2) Every member joins the solidarity for exchanging experiences, knowledge and information needed for the extension of ecology of social economy.	
3) Every member pays an annual fee to contribute to the GSEF's fiscal self-reliance and solidarity among all members.	<p>© BASQUE COUNTRY GOVERNMENT</p> <p>- It also says that the GSEF may set up a fund to support social economy when necessary.</p> <p>However, in the documents budget or amount of fees are not reflected, and we would like to have an idea of the amounts to consider our membership.</p> <p>© LOCALITY</p> <p>On a practical level it would be useful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types of projects envisaged especially under 2.3.6. And linked to this, to have clarification on the likely level of registration and membership fees.</p> <p>© MONTR AL</p> <p>5.2 Solidarity</p> <p>3) Annual fee, We will have to discuss that matter in Seoul. As I don't think any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make a commitment in Seoul, we will have to go back to our organization. At best, we could reach an agreement in principle in Seoul.</p>



CHAPTER 3. ORGANIZATIONAL STRUCTURES

The GSEF shall have three executive organizations as follow:

- 1) General Assembly
- 2) Steering Committee
- 3) Secretariat

Article 6. General Assembly

6.1. General Assembly : General Assembly consists of the full members of the GSEF and i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the following cases:

- 1) Cases on the GSEF projects and finance
- 2) Cases on the benefits of the GSEF members
- 3) Election of chair-city and steering committee members
- 4) Selection of host city for the next General Assembly
- 5) Amendment of the GSEF Charter
- 6) Dissolution of the GSEF
- 7) Other important agendas regarding the GSEF organizations and its management

6.2. Hosting General Assembly

- 1) The GSEF's General Meeting will be hosted biennially and its host city shall be decided at the General Assembly.
- 2) A local government that wants to host the next general assembly should submit a proposal and an official letter from its representative to the GSEF Secretariat at least 90 days before the opening of the General Assembly.
- 3) A local government that has been chosen as the host city for the next General Assembly should form a public-private organizing committee and submit its 'plan of action' to the GSEF Secretariat one year before the next General Assembly.
- 4) The host local government of the next General Assembly of the GSEF shall be in full charge of the overall preparation for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an agreement with the Secretariat.
- 5) A provisional general meeting of the GSEF may take place with the agreement of the two-third (2/3) of the current members of the GSEF Steering Committee. The budget to host a provisional general meeting of the GSEF is charged by the GSEF and is hosted by the chair-city. If necessary, it can make use of an online system.

6.3. Management of the General Assembly

- 1) All decisions, except those on dissolution of the GSEF and amendment of the Charter, are made by the majority vote of the full member unless the General Assembly reaches the agreement by deliberation.
- 2) The dissolution of the GSEF and amendment of the Charter shall be decided when at least two-third (2/3) of the current full members are present and the two-third (2/3) of the present full members consent.

Article 7. Chair-City, Co-Chairman and Steering Committee

© GRAMEEN TELECOM TRUST

In Article 7, term of tenure, consecutively for how many terms for Chair-City, Co- chairs, Steering Committee members should be precisely mentioned.

7.1. The GSEF elects a chair-city and sets up a Steering Committee.

7.2. Chair-city and co-ch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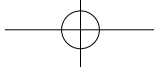
- 1) A Chair-city is elected at the General Meeting. One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 from the Chair-city, and one from a social economy network member in it shall be the co-chairs of the GSEF.

© MONTR 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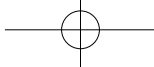
Co-chairs of GSEF : do you mean it has to be a SE network from the same city as the Chair-city?

- 2) A Chair-city represents the GSEF and presides the meeting of the GSEF.

- 3) The tenure for chair-city and co-chair is 2 years and they may serve in consecutive terms.



<p>4) If a local government that is a full member wishes to run for office, it needs to express its intention by submitting a document to the GSEF Secretariat 60 days before the next general meeting and the GSEF Secretariat must inform all the members promptly.</p>	
<p>7.3. The structure of Steering Committee</p> <p>1)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GSEF consists of co-chairs, elected Steering Committee members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host city of the next General Assembly. The number of all Steering Committee members should be around 20.</p> <p>2) All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except the representative of the host city of the next General Assembly are elected at the General Assembly. The tenure for the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is 2 years and they may serve consecutive terms.</p> <p>3) If a member wants to run for a Steering Committee member, it should express its intention by submitting a document to the GSEF Secretariat 60 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of the GSEF and the GSEF Secretariat must inform all members promptly.</p> <p>4) In constituting the Steering Committee, the balance in the ratio of the local government members and social economy network members should be maintained reasonably.</p>	
<p>7.4. Function of Steering Committee</p> <p>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GSEF should hold an official meeting at least once a year. The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auditing, execution the GSEF projects, review of member registration and review of host city candidates for the General Meeting.</p>	<p>© GRAMEEN TELECOM TRUST</p> <p>In Article 7.4, mode of official meetings should be mentioned, eg, face to face, whether video conference allowed etc.</p>
<p><u>Article 8. Secretariat</u></p>	<p>© GRAMEEN TELECOM TRUST</p> <p>In Article 8: Proposed organogram of the Secretariat, Tentative minimum budget should be mentioned.</p>
<p>8.1. Secretariat</p> <p>1) The GSEF shall establish its Secretariat and the office of the GSEF Secretariat shall be located in Seoul, South Korea.</p> <p>2) The Secretariat should be in charge of the execution and reporting of all decisions at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teering Committee. It should also support holding the General Assembly and other meetings in regard.</p> <p>3) The GSEF should be responsible for all budgetary management of its Secretariat. The city hosting the GSEF Secretariat can provide extra staffs and budget to the Secretariat to support its management.</p> <p>4) The Steering Committee may employ staffs for the Secretariat according to its needs and should conclude a hiring contract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p>	
<p>8.2. Special Division : The Steering Committee may manage a special division for specific projects in the Secretariat if necessary.</p>	



CHAPTER 4. FINANCING

Article 9. Source of Revenue

9.1. The GSEF's source of revenue is as follow:

1) Registration Fee and Annual Membership Fee

- Registration Fee : a new member of the GSEF should pay a registration fee

- Annual Membership Fee : Steering Committee shall decide the annual membership fee rate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ype, size and financial capacity of the members. The Steering Committee may decide on exceptional cases involving financial and economic status of particular members and may suggest reasonable alternatives

2) Funds for joint projects that are raised by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acknowledge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SEF members

3) Special donation such as voluntary donation from members and non-members

4) Profits through selling published materials, event fees and various contracts

5) Non-financial donations

Article 10. Expenses

10.1. The GSEF is responsible for its own operating expense, including its Secretariat's administrative expenses and the costs for provisional general meetings, and other extra expense acknowledged by the Steering Committee.

10.2. Expenses for projects : A portion of the expenses of a specific project proposed by local governments that is not a general GSEF project should be paid by local governments that suggested the specific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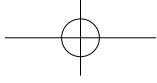
10.3. Expenses for hosting the General Assembly : the host city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ver the budget for hosting the General Assembly.

10.4. Fund : The GSEF can use its fund to support social economy in each area

10.5. Fiscal year for the GSEF starts on January 1st and ends on December 31st of each year. At the end of each fiscal year,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examine the account book submitted by the Secretariat and if necessary, the committee may take further review through a public audit board.

CHAPTER 5. SUPPLEMENTARY PROVISION

11.1. This Charter shall take effect on the day of the acknowledgment in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GSEF.



Gsef 2014백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기 획 서울특별시 : 정진우 과장, 김설희 팀장, 김준민 주무관, 정경진 주무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이승원 단장, 남수정 팀장, 주가혜 팀장
펴낸곳 서울특별시
제 작 삶의출판협동조합
발 행 2015년 8월

※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